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

2011. 08.

연구책임자 : 김재춘(영남대 교수)

<연구보고서 2011-04>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재춘(영남대 교수)

2011. 0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11-04〉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재춘(영남대학교)

공동연구원 이경환(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박상철(서울교육대학교)

박소영(대구대학교)

연구보조원 배지현(영남대학교 대학원)

차영화(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2011. 0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이 연구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요 약

이 연구는 2011년 8월에 고시될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교과용도서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탐색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증거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교과용도서 구분의 개관을 위해 교과용도서 구분의 의미와 특징,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정도서의 확대 방안 검토를 위해 초·중등학교 보통교과의 검·인정도서 확대 방안과 교사용지도서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의 근거를 탐색하였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의 일반원칙과 각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인정도서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심층면접,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용도서의 구분 기준 및 근거들은 정부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 개발의 이론적 배경, 즉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와 구분고시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국가가 교과서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검정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도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국·검·인정 혼용제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해 왔고, 현 정부 들어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교과서 발행 정책은 적어도 종수에 있어서는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1)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에 대한 명칭이 국·검·인정제로 사용되다가 1977년 교과서 검인정 파동 후 국정과 검정이 각각 1종도서와 2종도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2002년 6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다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2) 국·검·인정도서에 대한 정책적 강조점과 비중이 변화해 왔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 국정을 확대하면서 강조하던 정책이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검정도서의 종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현 정부 들어 인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의 종수가 국·검·정도서의 종수보다 더 많아졌다. 3) 교과서의 개념이 학생용의 교재를 의미하던 것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를 기점으로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교과서의 구분고시에서도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에 대한 발행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4) 인정도서의 개념과 중요성이 변화되었다. 광복 이후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인정도서가 교과서나 지도서를 대신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서로서 간주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인정도서도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념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적어도 종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주요 발행 제도로 등장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각 교육과정기별 검·인정도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검·정도서의 책 수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 가장 적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 확대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감소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정도서 책 수가 감소한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정도서로 발행되었던 교과서 중 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 관련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1) 설문조사, 2) 전문가 협의회, 3) 심층면접, 4)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각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6학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용 중인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황과 검·정도서 확대 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새로 도입된 검·정도서가 이전의 국정도서보다 약간 나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나아진 점은 외형체제(편집/디자인)라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교과서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 및 내용간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72.9%가,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 및 제공’에 대해서는 58.0%가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행유지(확대 반대)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51.9%인데 반하여, 반대(확대 찬성)하는 의견은 22.1%에 불과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확대하는 여러 방안 중 ‘3, 4학년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가장 적었으며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둘째, 교과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 출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다. 구분고시와 관련하여 교과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 출판사 관계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요 협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였다. 2) 중학교에서는 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3)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4) 지도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하되, 중등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교과의 경우에만 인정으로 구분하고, 가능하면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5) 학년군 단위로 교과용도서를 구분하되, 합책/분책은 출판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와 사·도교육청 연구관(사)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사들은 검정 확대에 찬성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되느냐 또는 검정으로 발행되느냐의 문제보다는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교과서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등학교 교사들은 대체로 인정도서의 확대에 찬성하였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들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3) 상당수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초등학교에서 교사용지도서는 꼭 필요하며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중등학교에서는 교사용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말고 출판사가 자유발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 교과전문가, 출판사 관계자 등은 자신의 개인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토론자의 대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1) 초등학교에서는 검정을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과 최소한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 중등학교에서는 국가정체성이나 이념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인정을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3) 초등학교에서 교사용지도서는 꼭 필요하며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중등학교에서는 교사용지도서를 최소한으로 구분하거나 구분고시하지 말고 출판사가 자율발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안 마련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다룬 주요 쟁점은 1)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확대 방안, 2)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방안, 3) 교사용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4)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방안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논리를 검토한 다음, 연구진의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각 쟁점별로 연구진의 기본입장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검정 확대에 대한 반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최소한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5개 교과는 국정으로 구분하되,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개 교과는 검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진은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등의 검정 경험의 부족, 인정심의 실행상의 준비 부족 문제 등 때문에 중등학교의 기본교과의 인정화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로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우선적으로 인정화하고, 이들 교과의 인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두 번째 단계로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도 인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연구진은 지도서의 경우 1)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용 자료라는 점, 2) 지도서의 주요 내용인 교과서가 이미 심사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 3) 지도서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 4) 교과서가 인정화됨에 따라 인정심사 대상 도서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도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사회 등 일부 교과와 교과서가 검정으로 구분되더라도 지도서는 모두 인정(중학교)으로 구분하거나 아예 구분하지 않는 방안(고등학교)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연구진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천명한 대로 진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수를 출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일된 교과서에 익숙한 우리교육 현실, 합책/분책이라는 외형체제의 자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이번 구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합책/분책 수를 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앞에서의 조사와 논의를 토대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과 시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지면상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만을 제시한다.

- 1) 초등학교의 검정도서를 확대한다.
 - 초등학교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검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이는 현행 검정도서를 초등학교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중등학교의 인정도서를 확대한다.
 - 국가 정체성과 이념 편향성의 논란 우려가 있는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를 제외한 모든 기본교과를 인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이는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지닌다.
- 3)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서를 구분고시한다.
 - 초등학교 지도서는 교과서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고시하고, 중학교의 지도서는 인정도서로 구분고시하며, 고등학교의 지도서는 고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을 도입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한다
 - 국가 차원에서 합책/분책의 수를 결정하여 구분고시한다.

5)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일부 선택과목은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 고교 선택과목 중 교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과(예컨대, 과제연구, 기타 실습 또는 실기 과목 등)는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VI장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시안 개발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1) 국·검·인정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 인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구분고시로 인하여 중등학교에서 기본교과의 상당수가 인정도서화될 것이기 때문에 인정도서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전의 인정도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여 공부하는 이른바 ‘주변 교과’나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보충 자료’ 성격의 교재를 가리켰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하여 인정도서는 해당 학년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주요 교과’의 교과서를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평등한 도서로 느껴질 수 있는 방식(예컨대, “학교장은 국정, 검정, 인정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등학교의 주요 교과가 인정화 됨에 따라 인정심의체제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1) 인정 신청 자격을 현재 학교장에서 출판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으며, 2) 인정도서의 심의, 홍보, 채택, 인쇄, 공급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정 신청 접수를 6개월 이상으로 앞당기거나 심의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3) 인정도서 확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행 인정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도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정심의보다는 좀 더 엄격한 인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심의를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4) 인정 도서에 대해서도 검정도서처럼 선정 절차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1)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2) 이번 정부 들어 실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학교 자율화 정책,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여러 교육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교과서의 새로운 구분고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에서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다음 교육과정기에는 이번 교육과정기의 다양한 교과서 활용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희망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국정인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을 검정으로 전환하고, 현재 검정인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를 인정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검정인 국어와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를 인정으로 전환하고, 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구분고시 하지 않아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검정인 국어와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를 인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모든 교과에 대해서는 구분고시 하지 않아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9
II. 교과용도서 구분의 개관	10
1.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제도	10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역사 개관	13
3. 우리나라 각 교육과정기별 검인정도서 관련 주요 내용	44
III.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위한 의견 조사	64
1. 설문조사	64
2. 전문가 협의회	71
3. 심층면접	86
4. 토론회	94
IV.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주요 쟁점	115
1.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확대 방안	115
2.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방안	118
3. 교사용 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122
4.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수 구분 문제	126
5. 기타 쟁점 사항	130

V.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과 시안	135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	135
2.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140
가. 초등학교 구분고시안	140
나. 중학교 구분고시안	141
다. 고등학교 구분고시안	143
VI. 정책 제언	147
1. 국·검·인정제에 관한 재정의 및 규정 수정	147
2. 인정심의 제도의 개선	149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	154
참고문헌	156
【부 록】	161
【부록 1】 교과서 선진화 방안 관련 보도 자료	161
【부록 2】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185
【부록 3】 설문지	216
【부록 4】 1차 토론회 자료집	219
【부록 5】 2차 토론회 자료집	255

표 차 례

〈표 II-1〉 각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교과용도서 종수	12
〈표 II-2〉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2종 교과 구분	20
〈표 II-3〉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초등학교)	23
〈표 II-4〉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중학교)	24
〈표 II-5〉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고등학교)	25
〈표 II-6〉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초등학교)	30
〈표 II-7〉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중학교)	31
〈표 II-8〉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고등학교)	32
〈표 II-9〉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초등학교)	37
〈표 II-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중학교)	38
〈표 II-11〉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고등학교)	39
〈표 II-12〉 교과용도서 구분의 역사 요약	42
〈표 II-13〉 제1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 연도별 종책 수	45
〈표 II-14〉 제3차 교육과정기 중고 검정 교과서 단일화 추진 현황	49
〈표 II-15〉 제7차 및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 수(비율)	55
〈표 II-16〉 2007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 수(2009년 검정분)	56
〈표 II-17〉 인정도서의 의미 변천 과정 요약	61
〈표 III-1〉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65
〈표 III-2〉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교과용도서에 대한 교사 의견	66
〈표 III-3〉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교과용도서의 나아진 점	67
〈표 III-4〉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각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	68
〈표 III-5〉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교과서 관련 초등교사들의 경험	68
〈표 III-6〉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	69
〈표 III-7〉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행유지 또는 확대 방안	70
〈표 III-8〉 전문가 협의회 참석자 현황	71
〈표 III-9〉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87

〈표 III-10〉 현재 도입된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대한 의견	88
〈표 III-11〉 검정 교과서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88
〈표 III-12〉 인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89
〈표 III-13〉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인정도서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90
〈표 III-14〉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를 심의없는 인정도서나 자유발행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91
〈표 III-15〉 학교급별 교과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92
〈표 III-16〉 학교급별 교사용 지도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93
〈표 III-17〉 연구관(사)의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관련한 기타 의견	93
〈표 III-18〉 토론회 주요 현황	94
〈표 V-1〉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국정도서】	140
〈표 V-2〉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141
〈표 V-3〉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141
〈표 V-4〉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인정도서】	142
〈표 V-5〉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143
〈표 V-6〉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인정도서】	143
〈표 VI-1〉 현행 검정심사와 인정심사의 비교	151

그림 차례

[그림 II-1] 교육과정기별 검정도서의 책 수 변화 경향	60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용도서를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교과(군)별, 학년(군)별 교과용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 중 어느 것으로 발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과용도서의 구분’은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용도서가 개발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취하는 중요한 교과용도서 관련 정책 행위이다. 교과용도서가 구분이 되어야 해당 교과(군)별, 학년(군)별 교과용도서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하고 사용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과용도서 구분’의 근거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검·인정도서가 복수로 개발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각 유형별 교과용도서의 사용 순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조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는 국정도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정도서가 없을 경우에 검정도서를, 그리고 국·검정도서가 없거나 특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사와 저자들이 교과서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판사와 저자들이 교과서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각 교과(군)별, 학년(군)별 교과용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 등으로 구분고시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이 이미 고시되었고, 2011년 8월에 이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고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 곧바로 각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도 2011년 8월 중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검·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어떻게 결정해 왔는

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인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부터 국·검·인정제를 병행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물론 국·검·인정제는 1종, 2종, 인정제로 바뀌기도 하고, 검정 합격 종수를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국·검·인정 교과용도서 종수간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교과(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은 초·중·고의 보통교과)를 국정과 검정도서로 구분하는 ‘전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만 수요가 적은 일부 선택 교과나 전문교과를 인정도서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국정이나 검정으로 구분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주요 교과의 도서에 대해서는 국검정제를 유지하고, 일부 선택교과나 전문교과에 대해서만 인정제를 도입하는 일종의 ‘사소한’ 변화를 가져오는 교과용도서의 구분은 그 동안 교과부의 교과서 담당 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 왔다. 달리 말하면, 교과용도서의 구분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MB)정부 들어와 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학년별, 교과별’ 교육 체제가 ‘학년군별, 교과(군)별’ 교육체제로 바뀌었다. 둘째, 2010년 1월에 발표된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정책 방안’에 따라 1차 교육과정기 이래로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이른바 ‘주요 교과’의 교과서에 대한 인정화 방안이 ‘인정도서 확대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타당성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 관련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의 정책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연유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관련된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특히 MB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교과서 정책에 대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경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교과서 정책에서 국가 개입의 축소와 민간 자율의 존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교육 민주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민간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국정도서의 수는 차츰 줄이고, 검인정도서의 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도 잘 나타난다.

둘째, 2010년 1월 정부는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 중의 하나로 인정도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보급을 위한 국·검정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정 도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셋째, MB 정부 들어 교과용도서의 종수 차원에서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가 이미 확립되었다. 정부의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정도서가 종수 차원에서 주된 교과서 발행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10년 기준)까지의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정도서의 비중은 80%에서 39%로 감소하고, 검정도서의 비중은 12%에서 16%로 증가하였으며, 인정도서의 비중은 8%에서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6차, 제7차,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국정도서의 종수가 가장 많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10년 기준)에는 인정도서의 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맥락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 교과서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구분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교과용도서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준거를 탐색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준거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새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시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새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시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용도서 구분의 개관

- 교과용도서 구분의 의미와 특징
-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의 역사
- 외국의 교과용도서 구분/발행 제도 분석

나. 검·인정도서 확대 방안 검토

-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인정도서 확대 방안 검토
- 중등학교 보통교과의 인정도서 확대 방안 검토
- 교사용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검토
- 교과용도서의 학년군별 구분 방안 검토
-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의 구분 기준 및 근거 탐색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시안 개발

- 교과용도서 구분의 기본원칙 개발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 시안 개발
-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 시안 개발
-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 시안 개발

라. 인정도서 확대에 따른 정책 제언

- 국·검·인정제 (개선)에 대한 제언
-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언
- 기타 제언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용한 연구 방법은 1) 문헌 수집 및 분석, 2) 전문가 협의회, 3) 심층면접, 4) 토론회 등이다. 각 연구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수집 및 분석

- 교과서 구분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과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 대상
 - 발행사
 - 교육과정/교과서 전문가, 교육행정가
 - 교과전문가(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 협의 내용

1. 국·검·인정 구분의 원칙/근거/논리 제시

- 1-1. 국정 :
- 1-2. 검정 :
- 1-3. 인정 :
 - 1-3-1 : 심의있는 인정도서:
 - 1-3-2 : 심의없는 인정도서:

2. 학년군에 따른 교과서 통권/분권 개발 방안

- 2-1. 초등학교 (학년군: 1-2학년, 3-4학년, 5-6학년)
 - 2-1-1 : 통권 개발이 필요한 교과:
 - 2-1-2. 분권 개발이 필요한 교과:
- 2-2 중학교 (학년군: 1-3학년)
 - 2-2-1 : 통권 개발이 필요한 교과:
 - 2-2-2 : 분권 개발이 필요한 교과:

3. 교사용 지도서 심사 여부

- 3-1 : 교과서와 동일한 형태의 심사 실시 지도서:
- 3-2 : 심의있는 인정심사 지도서:
- 3-3 : 심의없는 인정심사 지도서:
- 3-4 : 심사없이 자유활용 지도서:

4. 초등학교 국정의 검정 전환에 대한 의견

5. 중학교 검정의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6. 고등학교 검정의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7. 기타 의견

다. 심층 면접 실시

- 대상
 - 발행사 대표, 임원
 - 교과서 집필자
 - 교육과정/교과서 전문가
 - 학교급별, 교과별 교사
 - 교육행정가
- 면담 내용

1. 초등학교

교과서 : 검정전환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지도서 : 검정/심의있는 인정/심의없는 인정/구분고시 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근거 · 논리(설문조사 결과 참조/전문가 협의회 회의록/토론회자료 참조)

2. 중학교

교과서 : (특히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체육미등에 대한 심의없는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지도서 : 심의없는 인정전환/구분고시 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근거 · 논리

3. 고등학교

교과서 : (특히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인정 전환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체육미 등에 대한 심의없는 인정전환/구분고시 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찬반 근거 · 논리
지도서 : 심의없는 인정전환/구분고시 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근거 · 논리

4. 기타 관련 관심 사항

라. 토론회 개최

- 제1차 토론회

- 주제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년 5월 31일(화) 14:30~17: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 참석자 : 출판사 관계자, 교과서 집필자,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등 14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30 - 15:00	등록	
15:00 - 15:40	[주제발표] ○ 김재춘 (영남대 교수, 연구책임자)	사회 : 박상철 (서울교대 교수)
15:40 - 16:40	[지정토론] ○ 토론1 : 강미애 (전주 아중초등학교 교감) ○ 토론2 : 김혜원 (서울 성재중학교 교사) ○ 토론3 : 박홍권 (부산 금정고등학교 교장) ○ 토론4 : 홍연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토론5 : 조성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실 실장) ○ 토론6 : 김범기 (한국교원대 물리교육학과 교수)	
16:40 - 17:30	종합토론	사회: 김만곤 (한국교과연구재단 수석연구위원)

- 제2차 토론회

- 주제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 일시 : 2011년 7월 7일(목) 13:30~17:2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 참석자 : 출판사 관계자, 교과서 집필자,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등 11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 - 14:00	등 록	
14:00 - 14:50	[주제발표] ○ 김 재 춘(영남대 교수, 연구책임자)	사회 : 박소영 (대구대 교수)
14:50 - 16:30	[지정토론] ○ 토론1 : 조석환 (경기 송운초등학교 교사) ○ 토론2 : 최은정 (인천 공향중학교 교사) ○ 토론3 : 임홍수 (강원대학교사대부속고 교사) ○ 토론4 : 김풍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5 : 윤광원 (미래엔컬처그룹 상무) ○ 토론6 : 정순영 (서강대 수학과 교수)	
16:30 - 17:20	종 합 토 론	사회 : 김 만 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수석연구위원)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의 지속 추진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준거 개발로 합리적인 국·검·인정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용도서의 구분안 개발이 가능하다.

넷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의 국·검·인정 구분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의 흐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용도서 구분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는 현장 교사와 교과서 집필자 및 발행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교과용도서 제도를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용도서 구분과 관련한 쟁점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구분 제도를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교과용도서 구분의 개관

1.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제도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교육과정기별로 약간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대체로 국가가 교과서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검정제를 유지해 왔다. 국·검정제 중심의 교과용도서 정책의 기본 정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드러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정책은 국·검정 중심 체제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도서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 동안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국·검정 중심 체제였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인정도서의 사용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국·검·인정의 혼용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검·인정제는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교과용도서를 제작, 발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는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는 저작 → 심의 → 발행의 과정을 거친다. 교과용도서의 연구·개발 즉 저작은 공모를 거친 위탁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과용도서로서의 승인과 채택에 있어서 국가가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다. 국정제는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검정제는 민간이 먼저 교과용도서를 개발한 후에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심사를

받고 합격하면 교과용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민간 주도로 선 개발한 후에 국가 차원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국정제와 다르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정 심사를 받아 합격해야 교과용도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국가가 교과용도서 발행에 개입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주도적으로 교과용도서를 먼저 제작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동일하지만 검정제는 인정제보다 엄격한 검정 기준과 절차 등을 통해 합격한 도서만 교과용도서로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지닌 인정제와 다르다. 검정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는 검정 기준 발표 → 민간(저작자 또는 출판사) 저작 → 검정 → 발행의 절차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검정 교과용도서의 검정·승인 주체는 국가가 위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 과학)이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의 채택권은 학교에 있으며,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은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인정제는 민간 주도로 제작하여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과용도서로 인정한 후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정제 교과용도서의 발행자는 민간(또는 저작자)이며, 교과용도서는 저작 → 발행 → 인정의 절차를 따른다. 인정제 교과용도서의 승인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다. 주요 교과 중심으로 시행되는 외국의 인정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인정제는 오랫동안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심사 제도를 가리키는 제도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검·인정도서의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과서의 도서는 국·검정이며, 이른바 주변 교과서의 도서만이 인정이기는 하지만, 국정도서의 종수는 줄어들고 검·인정 도서의 종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정도서를 검·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강조하여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80%를 차지하던 국정도서는 2010년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로 줄어들었고, 8%에 불과하였던 인정도서는 45%로 급격히 늘어났다. 2010년 교과서 종수 기준으로 볼 때 인정도서가 45%를 차지하고, 국정도서가 39%, 검정도서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교과서 구분고시에

따른 국정, 검정, 인정별 교과서 종 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II-1> 각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교과용도서 종수¹⁾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계
제6차 교육과정	827 (80%)	123 (12%)	85 (8%)	1,035
제7차 교육과정	721 (69%)	187 (18%)	134 (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기준)	537 (56%)	181 (19%)	239 (25%)	957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년 기준)	334 (39%)	138 (16%)	392 (45%)	86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그 동안 한편으로는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한국의 교과서 발행 정책은 적어도 종수에 있어서는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되기 전에, 교과용도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구분안을 고시한 이후에도 일부 교과에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필요에 따라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하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재춘 외(2011)의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자료집에서 발췌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역사 개관²⁾

이 절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교과용도서 구분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광복 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 이전(1945. 8~1954. 3)

광복이후 곧바로 미군정기가 시작되면서 일제 강점기의 출판법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과 검정 교과용도서의 발행이 늘어났으며, 민간인의 자유로운 교재 개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초등의 모든 교과용도서와 중등의 국어 교과용도서는 국정으로, 국어를 제외한 모든 중등 교과용도서는 검정으로 발행되었다. 교과용도서의 편찬 및 공급은 ‘시간 배당 기준’, ‘교수요목’,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검·인정제도는 8·15 광복 후 수시 검·인정제(유효기간 1년)에서 1950년 6월부터 일괄 제출 검·인정제도로 전환되었다.

2)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4. 4~1963. 2)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국·검정 중심의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를 유지하였다. 국정도서로는 초등학교 전 교과와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와 국가이념을 반영한 교과목이 있었다. 중·고등학교의 나머지 모든 교과서는 검정도서였다.

국정 교과서 편찬은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1950. 4)’에 따라 이루어졌다.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은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1950. 4), ‘교과용도서 검·인정 형식 사열 기준’(1955. 10)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었다. 검정 신청 자격은 저작자 또는 출판사였으며, 검정합격 중수는 제한 없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 도서 모두로 결정되었다. 당시 검정

2)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종합한 것임을 밝혀둔다. 윤현진 외(2010)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허강(2004)의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유학영 외(2009)의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등.

체제의 경우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용도서를 수시로 심사하고 허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출판업계의 교과용도서 개발의 붐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용도서의 치열한 판매 경쟁과 채택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는 정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인정 교과서는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도서로서 보조 교재로 사용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검정 교과서는 최초로 일괄 편찬, 일괄 검·인정 업무체계가 이루어져 교과서 개발을 체계화, 종합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 2~1973. 2)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제1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게 국·검정 중심의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를 유지하였다. 다만 당시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검정 교과용도서를 줄이고 국정 교과용도서를 확대하는 국정 중심의 교과용도서 체제가 형성되었다. 초등학교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제를 전면 폐지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전 검정제의 무제한(종수) 인가 방침에서 1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교과용도서 판매 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고 교과용도서 가격을 낮추어 학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다.

국정교과서는 초등학교 전 교과, 중학교의 국어, 실업, 반공·도덕 관련 교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교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어, 사회 등과 발행 부수가 적은 전문교과 대부분에 적용되었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1967년 폐지),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다. 검정대상 교과목은 중학교 9개 교과 13개 과목 28종, 고등학교 13개 교과 38개 과목 45종이었다. 검정업무에 대해 도서 제작 기간 부족, 검정기준과 방법의 비합리성, 과다 합격 등의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정도서는 교과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교과서 이외에 학생에게 필요한 도서나 교사용 도서를 의미하였다.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 2~1981. 12)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제도는 국정도서를 강화하였던 시기였다. 당시 국민정신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검정이었던 국사와 중학교의 전 교과가 국정화되고, 사회 교과용도서가 단일본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교과용도서를 검정화할 경우 국가의 지도 이념을 교육에 강력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정치 논리와 일선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단일본으로 사용할 경우 수험 준비에 편리하다는 현실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977년 3월에 있었던 ‘검정 교과용도서 파동(검정 교과용도서 탈세 사건)’으로 인해 제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제도는 전반기(1973~1977)와 후반기(1977~1981)로 구분된다. 이 사건은 기존 교과서 제도의 대안으로 새 규정에 의한 교과서의 저작·검정·발행·공급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하여 전반기의 국정, 검정, 인정 제도가 후반기에는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 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국정 교과용도서의 저작권은 문교부가 가지되,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전문기관이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용도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문교부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연구 기관에 맡겨 편찬, 개발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979년부터는 국정도서를 1종도서(연구개발형)로, 검정도서를 2종도서(자유경쟁형)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당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규정된 1종도서의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실업계고등학교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국사와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등이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검정신청이 없는 것에 1종도서가 적용되었다.

2종도서는 자유경쟁형 교과서로서 출원 자격은 저작자로 제한되었으며, 합격 종수는 1교과목당 5종으로 제한되었다. 인정도서는 제2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한 형태로 교과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교과서 이외에 학생에게 필요한 도서나 교사용 도서를 의미하였다.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 12~1987. 3)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문교부 편수관들에 의해 주도된 ‘행정적’ 개정 모형에서 ‘연구개발형’ 개정 모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개발의 주도권 또한 문교부 편수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기관과 대학 등으로 본격적으로 이전되었다.

이 시기의 교과용도서는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의 세 종류였다. 획일적인 교과용도서 제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1982년 3월 11일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종도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도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1종도서의 대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 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사 등에 제한하고 나머지는 2종 도서로 구분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교과용도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종도서의 범위가 축소되고 2종도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82년에 중학교의 체육 등 6교과, 고등학교의 현대문학 등 22교과, ‘84년에 고등학교의 중국어 등 12교과, ‘87년에 중학교의 수학, 영어, 과학 등 3교과를 2종도서로 확대하였다.

당시 국정이었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하였고, 중등학교 검정도서의 합격 종수는 1교과목당 5종으로 종전과 동일하였다. 문교부는 검정 대상 교과목의 확대와 함께 검정도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검정도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종래 최근 3년간 5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10종류 이상의 도서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로 개정하였다. 2종도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정도서는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보충으로 사용하는 도서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 주체였다.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자유선택과목인 철학, 교육학 교과용도서 등을 인정도서로 개발하였다.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 3~1992. 6)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교육과정 개정 방침 중의 하나인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강조됨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2종화’, ‘교과 단원의 지역화’, ‘교재 활용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용도서의 1종도서화’를 지양하고 ‘1교과 다교과용도서’ 정책이 최초로 도입되어 교과용도서 이외에 읽기 자료, 연습 자료, 보충·심화 학습 자료 등 별도의 보충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산수는 산수/ 익힘책 등 각 교과마다 2~3종의 교과용도서들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용도서에 처음으로 시·도별로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지역별 교과용도서가 인정도서로 개발되었다.

1종도서의 범위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 그리고 중·고 교과목 중 국어, 도덕(국민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였다. 2종도서는 자유경쟁형 교과서로서 자율학습의 도입과 외형적 체제 및 내용 편집 등이 강조되었다. 검정업무는 1987년, 1988년 2회 실시되었다. 중학교 도서 검정에서는 합격 종수를 5종 이내로, 고등학교 도서 검정에서는 합격 종수를 8종 이내로 확대하였다. 2종도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외적 체제와 내용 편집 등을 창의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적이다.

인정도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였지만, 종래보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공급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인정도서는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할 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에 따라 적용될 수 있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서, 고등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 그리고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 등이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인정도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었다. 첫째, 학과 신설 및 교과목 개설로 인하여 교과용도서가 전혀 없는 경우, 둘째,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셋째, 중·고등학교 교양 선택 교재(종교, 교육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기타), 넷째, 재량활동,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교

재, 다섯째, 일반 교과서 또는 지도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예를 들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용 교재) 등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출판, 공급에 관한 행정 업무는 문교부의 편수관실에서 관장하였다. 1종도서의 경우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출판과 공급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2종도서의 경우는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출판을,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공급 업무를 대행하였다.

7) 제6차 교육과정기 (1992. 6~1997. 12)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의 종류는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의 세 종류였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교과서란 학생의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저작물 등을 의미했다. 이 시기에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교과용도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도 1종도서 중심에서 2종도서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1종도서의 범위는 초·중·고 교과목 중 ‘국어’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였다. 1종도서는 교육부가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 편찬하였다. 이 시기 1종도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전 교과(총 9개 교과),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국사 포함), 컴퓨터, 환경의 5개 교과,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 14개 과목, 전문교과 378과목에 해당하였다.

2종도서는 1종도서 이외의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과서와 지도서였으며,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 종전의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절대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합격 종수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 결과 교과별로 합격 종수가 달라졌으며, 특정 교과의 경우 최대 18종의 교과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검정심사에서 불합격한 도서의 검정 재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1차 검정에 불합격한 2종도서의 경우 불합격의 이유를 출판사나 저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정하여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종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용도서 검정 과정 자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도서는 제5차 교육과정기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인정도서의 승인권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시행 94.1.1 대통령령 14028호) 다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다(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시행 95.7.20, 14740호).

이 시기의 편찬체제의 특징으로는 1종도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1종도서 편찬계획서와 ‘교과용도서의 체제기준’에 따르고, 2종도서는 ‘집필상의 유의점’과 ‘교과용도서의 체제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의 체제기준’과 ‘부교재의 가격 사정 기준’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검정기준이 공개 논의 후 개방되었으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검정화되었다. 그리고 ‘집필상의 유의점’의 제시 내용이 정선되어 단순화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체제기준’(교육부고시 제1992-13호)을 고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체제의 범위를 판면 구성, 여백 처리, 글자(활자) 크기, 판형, 자간, 어간, 행장, 행간·행수, 지질 및 색도, 제본, 판면 활용 등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은 1995년 1월 19일에 폐지 고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2종 교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1·2종 교과 구분

학교급별	1종도서	2종도서
초등학교	도덕, 국어, 수학, 사회(사회과부도),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개 교과, 222책>	영어(3-6학년) <1개 교과, 8종>
중 학교	도덕, 국어, <u>사회</u> (국사포함), <u>컴퓨터</u> , <u>환경</u> <5개 교과, 32책>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서예포함), 가정, 기술·산업, 영어, 한문, 사회(사회과부도) <10개 교과, 88종>
고등학교	387개 과목 431책	55개 과목 605종
○ 보통교과	윤리, 국어, 문법, <u>실용수학</u> , <u>공통사회</u> (일반사회), 국사, <u>정치</u> , <u>경제</u> , 교련, 수산업, 진로·직업 * 체육Ⅱ, 음악Ⅱ, 미술Ⅱ <14개 과목, 21책>	화법, 독서, 작문, 문학, 한문Ⅰ·Ⅱ, 공통수학, 수학Ⅰ·Ⅱ, 공통사회(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사(역사부도포함), 세계지리(지리부도포함), 공통과학,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체육Ⅰ, 음악Ⅰ, 미술(서예포함),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정보산업, 공통영어, 영어Ⅰ·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에스파냐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어Ⅰ·Ⅱ <50개 과목, 555종>
○ 전문교과	373개 과목 410책	5개 과목 50종
- 농업계	○ 농업발전 등 43개 과목 <61책>	
- 공업계	○ <u>공업입문</u> , 제도 등 101개 과목 <155책>	
- 상업계	○ <u>경영대요</u> , <u>세무회계</u> , <u>상업영어</u> , <u>전자계산실무</u> , <u>프로그래밍Ⅱ</u> , <u>원가회계</u> , 상업실습 등 25개 과목 <29책>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문서실무 <5개 과목, 50종>
- 수산·해운계	○ 수산일반 등 28개 과목 <43책>	
- 가사실업계	○ 자영사업일반 등 22개 과목 <34책>	
- 과학계	○ 물리실험 등 18개 과목 <14책>	
- 체육계	○ 체육개론 등 25개 과목 <11책>	
- 예술계	○ 음악이론 등 27개 과목	
- 외국어계	○ 영어독해Ⅰ·Ⅱ 등 84개 과목 <63책>	
합계	401개 교과(과목) 685책	66개 교과(과목) 701종

※ 특수학교(108책) 및 유치원(10책)은 모두 1종도서임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 12~2007. 2)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의 개념은 기존의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의 구분을 따르다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시행 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에 따라 ‘교과서 및 지도서’를 칭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1종도서, 2종도서, 인정도서의 구분 또한 2002년 6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재정립되었다.

2종도서의 검정에서는 집필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괄검정보다는 학년별/연차별 검정을 시도하였다. 종전의 검정방식은 중학교 1, 2, 3학년을 한 해에, 그리고 고등학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다음 해에 동시 검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검정을 실시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일반·전문 과정과 심화선택과목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검정하였다. 교과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교육과정 개정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주기적 검정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종전의 검정도서였던 영어를 국정도서로 구분함으로써 전 교과에 국정이 적용되었고, 중학교에서는 종전의 국정도서였던 사회(국사 제외), 컴퓨터와 환경이 검정도서로 구분되고, 생활외국어과가 국정도서로 신설 구분되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에서는 종전의 국정도서였던 실용수학, 공통사회(일반사회), 정치, 경제가 검정도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생활과 과학, 아랍어 I, II가 국정도서로 신설 내지 변경되었다. 전문교과에서는 종전의 국정도서였던 공업입문, 경영대요, 세무회계, 상업영어, 전자계산실무, 프로그래밍 II, 원가회계가 검정도서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외의 교과들은 국정도서로 유지되거나 신설되었다.

국정, 검정, 인정 도서의 구분 및 편찬에 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하며,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도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검정도서는 민간이 개발하는 도서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합격 결정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교과목별 검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며, 검정심사는 절대 평가제를 채택하여 교과목별 합

격 종수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검정도서 업무의 쇄신으로 질 높은 교과서 발행을 위해 검정 심사과정의 전문화, 연차별 검정, 외형체제의 대폭적인 개선,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가 지향되었다.

인정도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관할 구역 안의 학교(당해 학교)에 국정·검정 도서가 없다든지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학교장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합격 결정을 받은 도서이다.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고등학교 교과목 중 변화 속도가 빠른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 예술, 국제에 관한 78개의 전문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는 과거에 비해 내용조직이나 외적 체제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판형이 모두 4·6배판으로 바뀌고 색 도화와 지질의 상향 개선 등으로 그 질이 높아졌다. 특히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나 삽화 게재,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에 맞는 선택 학습, 실생활 사례를 학습 소재로 도입,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학습, 참신한 외형 체제, 창의적인 편집 등이 강조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구분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고시 제 1998-5호, 1998.4.16).

<표 II-3>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초등학교)

교과	국정도서	인정도서
우리들은 1학년		○ 교과서 : 우리들은 1학년 (시도별) ○ 지도서 : 우리들은 1학년 (시도별) 【32책】
바른 생활	○ 교과서 : 바른생활 1-1, 2/2-1, 2 생활의 길잡이 1-1, 2/2-1, 2 ○ 지도서 : 바른생활 1-1, 2/21, 2 【12책】	
슬기로운 생활	○ 교과서 : 슬기로운생활 1-1, 2/2-1, 2 ○ 지도서 : 슬기로운생활 1-1, 2/2-1, 2 【8책】	
즐거워 생활	○ 교과서 : 즐거운생활 1-1, 2/2-1, 2 ○ 지도서 : 즐거운생활 1-1, 2/2-1, 2 ○ 보완교재 : 음악테이프(교사용), 1-1, 2/2-1, 2 【12책】	
국어	○ 교과서 : 말하기-듣기 1-1, 2/2-1, 2/3-1, 2 읽기 1-1, 2/2-1, 2/3-1, 2/4-1, 2/5-1, 2/6-1, 2 쓰기 1-1, 2/2-1, 2/3-1, 2 말하기-듣기-쓰기 4-1, 2/5-1, 2/6-1, 2 ○ 지도서 : 국어 1-1, 2/2-1, 2/3-1, 2/4-1, 2/5-1, 2/6-1, 2 ○ 보완교재 : 녹음테이프(교사용) 1-1, 2/2-1, 2/3-1, 2/4-1, 2/5-1, 2/6-1, 2 【54책】	
도덕	○ 교과서 : 도덕 3-1, 2/4-1, 2/, 5/, 6, 생활의길잡이 3-1, 2/4-1, 2/, 5/, 6 ○ 지도서 : 도덕 3-1, 2/4-1, 2/, 5/, 6,	
사회	○ 교과서 : 사회 3-1, 2/4-1, 2/5-1, 2/6-1, 2 사회과탐구 4-2/5-1, 2/6-1, 2, 사회과부도 4-6 ○ 지도서 : 사회 3-1, 2/4-1, 2/5-1, 2/6-1, 2	○ 교과서 : 사회과 탐구 (지역별) 【16책】
수학	○ 교과서 : 수학 1-가, 나/2-가, 나/3-가, 나/4-가, 나/5-가, 나/6-가, 나 수학의힘책 1-가, 나/2-가, 나/3-가, 나/4-가, 나/5-가, 나/6-가, 나 ○ 지도서 : 수학 1-가, 나/2-가, 나/3-가, 나/4-가, 나/5-가, 나/6-가, 나 【36책】	
과학	○ 교과서 : 과학 3-1, 2/4-1, 2/5-1, 2/6-1, 2 실험관찰 3-1, 2/4-1, 2/5-1, 2/6-1, 2 ○ 지도서 : 과학 3-1, 2/4-1, 2/5-1, 2/6-1, 2 【24책】	
실과	○ 교과서 : 실과 5, 6 ○ 지도서 : 실과 5, 6 【4책】	
체육	○ 교과서 : 체육 3, 4, 5, 6 ○ 지도서 : 체육 3, 4, 5, 6 【8책】	
음악	○ 교과서 : 음악 3, 4, 5, 6 ○ 지도서 : 음악 3, 4, 5, 6 ○ 보완교재 : 전통음악 테이프(교사용) 3, 4, 5, 6 【12책】	
미술	○ 교과서 : 미술 3, 4, 5, 6 ○ 지도서 : 미술 3, 4, 5, 6 【8책】	
외국어	○ 교과서 : 초등영어 3, 4, 5, 6 ○ 지도서 : 초등영어 3, 4, 5, 6 ○ 보완교재 : CD-ROM(교사용) 3, 4, 5, 6 녹음테이프(학생용) 3, 4, 5, 6 【16책】	
특별활동	○ 지도서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5책】	
계	○ 교과서 : 130책 ○ 지도서 : 81책	○ 교과서 : 32책 ○ 지도서 : 16책

<표 11-4>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중학교)

교과	구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국어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국어 1-1, 2 / 2-1, 2 3-1, 2 지도서 : 국어 1-1, 2 / 2-1, 2 3-1, 2 【1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생활국어 1-1, 2 2-1, 2 / 3-1, 2 【6책】 	
도덕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도덕 1, 2, 3 지도서 : 도덕 1, 2, 3 【6책】 	
사회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국사 지도서 : 국사 【2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사회과부도, 사회1,2, 3 지도서 : 사회1, 2, 3 【7책】
수학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수학7-가, 나/8-가, 나 9-가, 나 지도서 : 수학7-가, 나/8-가, 나 9-가, 나 【12책】
과학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과학1, 2, 3 지도서 : 과학1, 2, 3 【6책】
가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기술·가정1, 2, 3 지도서 : 기술·가정1,2,3 【6책】
체육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체육1, 2, 3 지도서 : 체육1, 2, 3 【6책】
음악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음악1, 2, 3 지도서 : 음악1, 2, 3 【6책】
미술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미술1, 2, 3 지도서 : 미술1, 2, 3 【6책】
영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중학영어1, 2, 3 지도서 : 중학영어1, 2, 3 【6책】
한문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한문1, 2, 3 지도서 : 한문1, 2, 3 【6책】
컴퓨터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컴퓨터 지도서 : 컴퓨터 【2책】
환경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환경 지도서 : 환경 【2책】
생활 외국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스페인어,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생활러시아어, 생활아랍어 지도서 :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스페인어,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생활러시아어, 생활아랍어(보완교재 : CD-ROM 7종) 【14책】 	
특별 활동	신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서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5책】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23책 지도서 : 22책 【45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33 책 지도서 : 32 책 【65책】

<표 II-5>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구분(고등학교)

【 보통교과 】

교과	구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국어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국어(상),(하), 문법 지도서 : 국어(상),(하), 문법 【6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화법, 독서, 작문, 문학(상), (하) 지도서 : 화법, 독서, 작문, 문학(상), (하) 【10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국어생활 지도서 : 국어생활 【2책】
도덕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도덕 지도서 : 도덕 【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지도서 :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6책】 	
사회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국사 지도서 : 국사 【2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사회, 지리부도, 세계사, 역사부도, 사회문화, 세계지리, 정치, 경제 지도서 : 사회, 사회·문화, 정치, 경제 【1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한국근·현대사,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지도서 :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8책】
수학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실용수학, 수학Ⅰ,Ⅱ, 수학10-가, 나 지도서 : 실용수학, 수학Ⅰ,Ⅱ, 수학10-가, 나 【10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지도서 :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4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미분과 적분 지도서 : 미분과 적분 【2책】
과학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과학,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지도서 : 과학 【10책】
	신설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생활과 과학 지도서 : 생활과 과학 【2책】 	
기술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해양과학 【1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가정과학 지도서 : 기술, 가정 【7책】
체육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체육 지도서 : 체육 【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체육과 건강 지도서 : 체육과 건강 【2책】
음악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음악 지도서 : 음악 【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음악과 생활 지도서 : 음악과 생활 【2책】
미술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미술 지도서 : 미술 【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미술과 생활 지도서 : 미술과 생활 【2책】
외국어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고등 영어, 영어Ⅰ,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어Ⅰ,Ⅱ 지도서 : 고등 영어, 영어Ⅰ,Ⅱ, 영어회화, 영어독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어Ⅰ,Ⅱ 【34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아랍어Ⅰ,Ⅱ 지도서 : 아랍어Ⅰ,Ⅱ (보조자료 : CD-ROM 2종) 【4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영어작문 지도서 : 영어작문 【2책】
한문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한문 지도서 : 한문 【2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한문고전 지도서 : 한문고전 【2책】
교련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교련 지도서 : 교련 【2책】 	
특별 활동	신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5책】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15책 지도서 : 19책 【34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66책 지도서 : 47책 【113책】

【 전문교과 】

학교급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농업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농업경영, 생물공학기초, 작물생산기술, 숲과 인간, 산림자원 기술, 원예, 생활원예, 생산자재, 원예기술Ⅰ,Ⅱ, 축산, 사육기술Ⅰ,Ⅱ, 농업기계, 농업기계공학, 농업기계기술Ⅰ,Ⅱ, 농업과 물, 농업토목기술Ⅰ,Ⅱ, 식품과학, 식품위생, 식품가공기술Ⅰ,Ⅱ, 환경보전, 조경, 조경기술Ⅰ,Ⅱ, 농산물유통, 유통관리Ⅰ,Ⅱ <p>【31책】</p>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재배, 누에와 비단, 농촌과 농지개발, 환경관리Ⅰ,Ⅱ <p>【8책】</p>	
공업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기초제도, 기계제도, 토목제도, 건축설계제도, 디자인제도, 선박제도, 기계일반, 전기일반, 공업영어, 기계설계, 기계공학법, 원동기, 유체기기, 공기조화설비, 기계기초공학, 공작기계Ⅰ,Ⅱ, 산업설비(상), (하), 금형제작(상), (하), 전자기계이론, 전자기계회로, 금속재료, 금속제조, 소성가공, 주조, 금속처리(상), (하), 자원개발, 화악·발파, 석재 가공, 시추·지하수, 자원개발조성, 자원개발기계, 전기응용, 전기회로, 전기기기, 전력설비Ⅰ,Ⅱ, 전기·전자측정,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전자·전산응용, 전자회로, 계측제어, 통신일반, 통신시스템, 역학, 토목설계, 토목일반, 측량, 토목재료·시공, 수리·토질, 건축구조, 건축계획일반, 디자인일반, 색채관리, 조형, 공예, 공업화학, 단위조작, 제조화학, 화공계측제어, 뉴세라믹, 소결세라믹, 고온세라믹, 응결·경화세라믹, 용융세라믹, 발효공업, 식품제조기계, 식품공업Ⅰ,Ⅱ, 섬유재료, 방직·방사,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일반, 인쇄재료, 평판인쇄, 특수인쇄,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기관, 자동차채시, 자동차전기, 건설기계구조·정비, 선박이론, 선박구조, 선박의장, 선박건조, 항공기일반, 항공기기체, 항공기기관, 항공기장비, 항공기전자장치, 정보통신 <p>【96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공업입문 <p>【1책】</p>
	신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정보기술기초, 전자기계공학, 전자기계제어, 디지털논리회로, 지적전산, 지적실무, 건축시공Ⅰ,Ⅱ,Ⅲ, 제품디자인, 사진·전자제판, 사진기술, 환경공업일반, 대기·소음방지,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p>【16책】</p>	
상업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상업법규, 기업회계, 그래픽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비서일반, 비서실무, 유통관리일반, 사무자동화일반, 마케팅, 경영실무, 회계실무, 국제경영, 국제상무, 시각디자인일반, 시각디자인실무, 관광경영실무 <p>【16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상업경제, 상업계산실무, 경영대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무역영어, 회계원리, 컴퓨터일반【8책】
	신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사진, 광고일반, 유통정보실무 <p>【3책】</p>	

학교급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수산·해운계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수산일반, 수산생물, 어업(상),(하), 수산양식(상),(하), 양식생물 질병, 수산가공(상), (하), 냉동설비·설계, 선박보조기계, 선박전기·전자, 기계설비·공작, 선박운용, 해사법규, 해시영어, 선화운송, 전자통신기기, 전자통신운용, 해사일반, 해양일반, 수산경영일반, 냉동일반, 냉동기계, 열기관, 항해, 전자통신공학 【27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수산가공기계, 수산물유통, 수산물판매관리,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양토목, 해양구조물설계·시공, 잠수기술, 수산·해운정보처리 【9책】	
가사·실업계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급식관리, 의복재료·관리, 복식디자인, 자수, 주거, 실내디자인, 유아교육원리, 유아생활교육, 관광일반, 호텔업무, 관광영어, 관광일본어, 한국조리, 외국조리, 한국의복구성, 서양의복구성, 홈패션, 편물, 한국무늬, 가구디자인, 유아놀이·표현지도, 여행업무, 노인생활지원, (보완교재) 교사용(보조자료) CD-ROM 2종 (관광영어, 관광일본어) 【25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제과제빵, 디스플레이, 관광조리, 헤어미용, 피부관리, 공중보건 【6책】	
과학계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과학사, 전자과학, 컴퓨터과학Ⅰ, Ⅱ, 고급수학,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13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환경과학, 현대과학과 기술 【2책】	
외국어계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영어독해Ⅰ, Ⅱ, 영어회화Ⅰ, Ⅱ, 영어작문Ⅰ, Ⅱ, 영어청해, 독일어독해Ⅰ, Ⅱ, 독일어회화Ⅰ, Ⅱ, 독일어작문Ⅰ, Ⅱ, 독일어청해, 실무독일어, 프랑스어독해Ⅰ, Ⅱ, 프랑스어회화Ⅰ, Ⅱ, 프랑스어작문Ⅰ, Ⅱ, 프랑스어청해, 실무프랑스어, 스페인어독해Ⅰ, Ⅱ, 스페인어회화Ⅰ, Ⅱ, 스페인어작문Ⅰ, Ⅱ, 스페인어청해, 실무스페인어, 중국어독해Ⅰ, Ⅱ, 중국어회화Ⅰ, Ⅱ, 중국어작문Ⅰ, Ⅱ, 중국어청해, 실무중국어, 일본어독해Ⅰ, Ⅱ, 일본어회화Ⅰ, Ⅱ, 일본어작문Ⅰ, Ⅱ, 일본어청해, 실무일본어, 러시아어독해Ⅰ, Ⅱ, 러시아어회화Ⅰ, Ⅱ, 러시아어작문Ⅰ, Ⅱ, 러시아어청해, 실무러시아어, 영어문법, 영어권문화, 실무영어, 독일어문법, 독일어문화, 프랑스어문법, 프랑스문화,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문법, 중국문화, 일본어문법, 일본문화, 러시아어문법, 러시아문화 교사용(보조자료) : CD-ROM 22종(영어회화Ⅰ, Ⅱ, 영어청해, 독일어회화Ⅰ, Ⅱ, 독일어청해, 프랑스어회화Ⅰ, Ⅱ, 프랑스어청해, 스페인어회화Ⅰ, Ⅱ, 스페인어청해, 중국어회화Ⅰ, Ⅱ, 중국어청해, 일본어회화Ⅰ, Ⅱ, 일본어청해, 러시아어회화Ⅰ, Ⅱ, 러시아어청해, 실무영어) 【70책】	
	신 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아랍어독해Ⅰ, Ⅱ, 아랍어회화Ⅰ, Ⅱ, 아랍어작문Ⅰ, Ⅱ, 아랍어청해, 아랍어문법, 아랍문화, 실무아랍어 교사용(보조자료) : CD-ROM 3종(아랍어회화Ⅰ, Ⅱ, 아랍어청해) 【10책】	
체육계	기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체육개론, 스포츠 과학, 육상, 체조, 수영 【5책】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337책 【337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9 책 【9책】

9)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2~2009.12)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7-79호, 2007.2.28)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제2007-81호, 2007.6.22)는 수정 고시의 과정을 거듭하여(제2007-82호, 2007.8.7; 제2008호-147호, 2007.8.28), 제2009-4호(2009.1.21)로 수정되어 총 4회 고시되었다.

제2007-81호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실과, 체육, 음악, 미술(5, 6학년), 영어(3-6학년) 교과서의 검정 전환과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 도덕, 사회(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 전환 등이다.

제2007-82호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중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를 인정으로 수정 고시하고 전문교과 국정도서 중 일부를 검·인정으로 전환하였다.

제2008-147호의 고시에서는 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도서’로, 이들을 제외한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였다.

제2009-4호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서는 중·고등학교 보건과목을 검정도서로 고시하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의 전문교과 국정도서의 일부를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였다. 이 고시로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에 따라 신설된 보건과목의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고시안에 따라 개발되는 보건 교과서는 2010년 검정심사를 거쳐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제2009-4호의 고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문교과 중 과학계열 15책, 예술계열 9책, 외국어계열 32책 등이 인정도서로 새로이 전환됨으로써 과학계열, 예술계열, 국제계열의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도서가 되고, 외국어계열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의 전문교과인 경우, 학생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전문계열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최

소화하였다. 인정도서로의 전환 대상은 특성화된 전문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필요하거나, 기술 변화가 심하여 산업 현장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2009-4호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6>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초등학교)
(※ '08.8.28 고시와 내용 동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 도서
교 과 과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 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즐거로운 생활 ○ 교과서 즐거로운 생활 1-1,1-2/2-1,2-2 ○ 지도서 즐거로운 생활 1-1,1-2/2-1,2-2 【8책】	
	즐거운 생활 ○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 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 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국어 ○ 교과서 듣기·말하기 1-1,1-2/2-1,2-2/3-1,3-2 읽기 1-1,1-2/2-1,2-2/3-1,3-2/4-1,4-2/5-1,5-2/6-1,6-2 쓰기 1-1,1-2/2-1,2-2/3-1,3-2 듣기·말하기·쓰기 4-1,4-2/5-1,5-2/6-1,6-2 ○ 지도서 국어1-1,1-2/2-1,2-2/3-1,3-2/4-1,4-2/5-1,5-2/6-1,6-2 【42책】 ○ 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도덕 ○ 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 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사회 ○ 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 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5-2/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1,5-2/6-1,6-2 ○ 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1,5-2/6-1,6-2 【36책】	
	과학 ○ 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 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24책】 ○ 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실과 ○ 교과서 실과 5/6 ○ 지도서 실과 5/6 【4책】	
	체육 ○ 교과서 체육 3/4 ○ 지도서 체육 3/4 【4책】	○ 교과서 체육 5/6 ○ 지도서 체육 5/6 【4책】
	음악 ○ 교과서 음악 3/4 ○ 지도서 음악 3/4 【4책】 ○ 교사용 음원자료 2종	○ 교과서 음악 5/6 ○ 지도서(음원자료 포함) 음악 5/6 【4책】
	미술 ○ 교과서 미술 3~4(합본) ○ 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 교과서 미술 5~6(합본) ○ 지도서 미술 5~6(합본) 【2책】
	외국어(영어) ○ 교과서 영어 3/4/5/6 【4책】 ○ 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 지도서 영어 3/4/5/6 【4책】	
특별활동	○ 지도서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5책】 ○ 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총 계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교과서 11책,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하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라 함)임.

<표 II-7>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중학교)

구분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교과	국어	○ 교과서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3-2 【12책】	
	도덕	○ 교과서 도덕 1,2,3 【3책】	
	사회	○ 교과서 사회 1,3 / 사회과 부도 역사(상),(하) / 역사 부도 【6책】	
	수학	○ 교과서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책】	○ 지도서 수학 1,2,3 【3책】
	과학	○ 교과서 과학 1,2,3 【3책】	○ 지도서 과학 1,2,3 【3책】
	기술·가 정	○ 교과서 기술·가정 1,2,3 【3책】	○ 지도서 기술·가정 1,2,3 【3책】
	체육	○ 교과서 체육 1,2,3 【3책】	○ 지도서 체육 1,2,3 【3책】
	음악	○ 교과서 음악 1,2,3 【3책】	○ 지도서 음악 1,2,3 【3책】 ○ 교사용 음원자료 3종
	미술	○ 교과서 미술 【1책】	○ 지도서 미술 【1책】
재량 활동	외국어 (영어)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책】	○ 지도서 영어 1,2,3 【3책】
	한문	○ 교과서 한문 1,2,3 【3책】	○ 지도서 한문 1,2,3 【3책】
	정보	○ 교과서 정보 1,2,3 【3책】	○ 지도서 정보 1,2,3 【3책】
	환경	○ 교과서 환경 【1책】	○ 지도서 환경 【1책】
	보건	○ 교과서 보건 【1책】	
	생활 외국어	○ 교과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책】 ○ 학생용 듣기자료(CD) 5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2책】
특별활동			○ 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책】
총 계	교과서 5책, 듣기자료 5종	교과서 56책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표 II-8>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내용(고등학교)

【 보통교과 】

구분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교과	국어	○교과서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 매체 언어 【9책】	
	도덕	○교과서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4책】	
	사회	○교과서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정치/경제/ 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수학	○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 수학Ⅰ/ 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 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지도서 수학 【1책】
	과학	○교과서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지도서 과학 【1책】
	기술· 가정	○교과서 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지도서 기술·가정 【1책】
	체육	○교과서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4책】	○지도서 체육 【1책】
	음악	○교과서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지도서 음악 【1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미술	○교과서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4책】	○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Ⅰ/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 어Ⅰ/프랑스 어Ⅱ/스페인 어Ⅰ/스페인 어Ⅱ/ 중국어Ⅰ/중국어Ⅱ/일본어Ⅰ/일본어Ⅱ 【18책】	○교과서 아랍 어Ⅱ/러시아 어Ⅱ 【2책】 ○지도서 영어 【1책】
	한문	○교과서 한문Ⅰ / 한문Ⅱ 【2책】	
	교양	○교과서 안전과 건강 【1책】	○교과서 보건 【1책】
특별활동			
총 계	교과서 3책 듣기자료 2종	교과서 89책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문교과 】

교과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농업 경영/생물 공학 기초/ 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 원에 및 생활 원예 /생산 자재/ 원에 기술 I·II /동물 자원/사육 기술 I /사육 기술 II/누에와 비단/조경/ 조경 기술 I·II /농업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 I /농업 토목 기술 II/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과학/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II /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 I /농산물 유통 관리 II/환경 보전/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농업과 관광 【34책】		
공업	○교과서 : 기계 제도/ 토목 제도 및 설계 /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II /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 I /전력 설비 II/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 통신 일반 및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일반/토목 재료·시공/수리·토질/ 지적 전산 및 실무 /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 건축 시공 I·II /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위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성 세라믹/세라믹 원리·공정/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직·방사·제포·봉제/염색·가공/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차·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배기/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장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소음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104책】	○교과서 : 공업 입문/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 【3책】	○교과서 :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 정보 통신/특수 인쇄/사진/컴퓨터 그래픽/애니메이션 제작 【8책】
상업· 정보	○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4책】	○교과서 :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 【11책】	○교과서 : 전산회계/자료처리/프로그래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물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팅/ 기업 회계/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션 실무 【15책】
수산· 해운	○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해운 정보 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수산물 유통/ 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 /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전자/기계 설계·공작/잠수 기술/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해양 레저·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4책】		○교과서 : 생선회 실무 【1책】

※ 진한 색으로 표기된 과목 : 국정도서는 통합 개발 도서, 인정도서는 기존의 국정도서에서 인정 전환한 도서임.

교과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 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 동·서양 조리 /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 한국서양 의복 구성 /자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원리/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일반/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 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 /기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노인 생활 지원/공중 보건 【28책】		○ 교과서 :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 【5책】
과학			○ 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 I/정보 과학 II/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책】
체육	○ 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책】		○ 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예술			○ 교과서 : 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 이론/음악 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책】
외국 어	○ 교과서 : 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중국어 회화 /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책】		○ 교과서 :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32책】
국제			○ 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 I/국제 정치 II/국제 경제 I/국제 경제 II/세계 문제/비교 문화 I/비교 문화 II/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과제 연구 I/과제 연구 II/예능 실습 【25책】
총 계	교과서 249책	교과서 14책	교과서 154책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10)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09. 12~)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의 확대와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하였고, 이에 적합한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2010.1.12), 이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국정과 검정도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을 인정도서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체·음·미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검정도서의 인정도서로의 전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고교 과학의 경우, 융합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는 데 인정도서 체제가 보다 유리하다. 체육, 음악, 미술 등 고교 보통교과의 경우 현장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특목고 및 전문계고를 위한 고교 전문교과의 경우 산업현장 및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매년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어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로써 광복 이후 10개 기본교과에 대해서는 국·검정 체제를 유지해 왔던 우리 교과서 체제에 고등학교 과학과 체·음·미 교과를 인정도서화 함으로써 주요 교과에도 인정도서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교과서 선진화 정책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수·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형수업이 용이해질 수 있는 인정도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각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를 국정으로 하되, 일부 교과(실과, 체육, 음악, 미술은

5-6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영어는 3-6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고, 영어의 전자저작물(학생용과 교사용)은 (심의없는) 인정으로 전환하였다.

중학교에서는 검·인정 도서가 대폭 확대되었다. 10개 기본교과와 교과서는 모두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10개 기본교과와 지도서는 인정으로 전환되었다. 10개 기본교과와 지도서 중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도서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었다. 단 선택과목의 일부 과목은 국정(생활독일어/생활프랑스어/생활스페인어/생활러시아어/생활아랍어 교과서)과 (심의있는) 인정(진로와직업 교과서)으로 분류하였다.

고등학교에서도 검·인정 도서가 대폭 확대되었다. 국어/영어/수학/사회 보통교과는 모두 검정으로 전환·유지되었으며, 체육/음악/미술/한문 I/보건의 기본교과 1개는 검정 유지, 나머지는 선택 과목들은 모두 인정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과학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되고, 지도서 또한 모두 인정으로 전환되었다. 안전과건강, 제2외국어 일부 과목(러시아어 I 과 아랍어 I)만 국정으로 유지되었다. 각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4호, 2011.02.2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9>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초등학교)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 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종】		
슬기로운 생활	○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 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종】		
즐거운 생활	○ 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 지도서(전자저작물 CD 포함) 즐거운 생활 1-1/1-2/2-1/2-2 【8종】		
국어	○ 교과서(e-교과서 포함) 듣기·말하기 1-1/1-2/2-1/2-2 읽기 1-1/1-2/2-1/2-2/3-1/3-2/4-1/4-2/5-1/ 5-2/6-1/6-2 쓰기 1-1/1-2/2-1/2-2 듣기·말하기·쓰기 3-1/3-2/4-1/4-2/5-1/5-2/6-1/ 6-2 ○ 지도서(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어 1-1/1-2/2-1/2-2/3-1/3-2/4-1/4-2/5-1/ 5-2/6-1/6-2 【40종】		
사회/도덕	○ 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과 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 지도서 사회 3-1/3-2/4-1/4-2/5-1/5-2/ 6-1/6-2 【22종】		
	○ 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 지도서 도덕 3-1/3-2/4-1/4-2/5/6 【18종】		
수학	○ 교과서(e-교과서 포함) 수학 1-1/1-2/2-1/2-2/3-1/3-2/4-1/4-2/5-1/ 5-2/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1/ 5-2/6-1/6-2 ○ 지도서 수학 1-1/1-2/2-1/2-2/3-1/3-2/4-1/4-2/5-1/ 5-2/6-1/6-2 【36종】		
과학/실험	○ 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 지도서(전자저작물 CD 포함) 과학 3-1/3-2/4-1/4-2/5-1/5-2/6-1/6-2 【24종】		
		○ 교과서 실험 5/6 ○ 지도서 실험 5/6 【4종】	
체육	○ 교과서 체육 3/4 ○ 지도서 체육 3/4 【4종】	○ 교과서 체육 5/6 ○ 지도서 체육 5/6 【4종】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3/4 ○ 지도서(음원 자료 CD 포함) 음악 3/4 【4종】	○ 교과서 음악 5/6 ○ 지도서(음원자료 CD 포함) 음악 5/6 【4종】	
	○ 교과서 미술 3~4(합본) ○ 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 교과서 미술 5~6(합본) ○ 지도서 미술 5~6(합본) 【2종】	
영어		○ 교과서(e-교과서 포함) 영어 3/4/5/6 ○ 지도서 영어 3/4/5/6 【8종】	○ 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 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8종】
총 계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전자저작물 8종

-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있는 도서는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는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2)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예안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표 II-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중학교)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 교과서(e-교과서 포함) 국어 1-1/1-2/2-1/2-2/3-1/ 3-2 생활국어 1-1/1-2/2-1/2-2/ 3-1/3-2 【12종】	○ 지도서 국어* 1/2/3 【3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 교과서 도덕 1/2/3 【3종】	○ 지도서 도덕* 1/2/3 【3종】
		○ 교과서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종】	○ 지도서 사회* 1/3, 역사* 【3종】
수학		○ 교과서(e-교과서 포함)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종】	○ 지도서 수학 1/2/3 【3종】
과학/ 기술·가정		○ 교과서 과학 1/2/3 【3종】	○ 지도서 과학 1/2/3 【3종】
		○ 교과서 기술·가정 1/2/3 【3종】	○ 지도서 기술·가정 1/2/3 【3종】
체육		○ 교과서 체육 1/2/3 【3종】	○ 지도서 체육 1/2/3 【3종】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1/2/3 【3종】	○ 지도서(음원자료 CD 포함) 음악 1/2/3 【3종】
		○ 교과서 미술 【1종】	○ 지도서 미술 【1종】
영어		○ 교과서(e-교과서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종】	○ 지도서 영어 1/2/3 【3종】
선택		○ 교과서 한문 1/2/3 【3종】	○ 지도서 한문 1/2/3 【3종】
		○ 교과서 정보 1/2/3 【3종】	○ 지도서 정보 1/2/3 【3종】
		○ 교과서 환경 【1종】	○ 지도서 환경 【1종】
	○ 교과서(CD 포함)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 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 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 교과서 보건 【1종】	
			○ 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총 계	교과서 5종	교과서 56종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표 II-11>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고등학교)

【 보통교과 】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교과서(e-교과서 포함) 국어(상)/국어(하)/화법과 작문 I / 화법과 작문 II/독서와 문법 I / 독서와 문법 II/문학 I /문학 II 【8종】	○지도서 국어*/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문학 I /문학 II 【7종】
수학		○교과서 (e-교과서 포함)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 I /수학 I 익힘책/미적 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 힘책/수학 II /수학 II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 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종】	○지도서 수학/수학의 활용/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7종】
영어		○교과서(e-교과서 포함)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 ○교과서 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지도서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교과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종】	○지도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 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12종】
과학			○교과서 과학*/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 과학 I */ 지구 과학 II */ ○지도서 과학 【10종】
체육		○교과서 체육 【1종】	○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지도서 체육 【4종】
예술 (음악/미술)		○교과서 음악 【1종】	○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지도서(음원자료 CD 포함) 음악 【3종】
		○교과서 미술 【1종】	○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지도서 미술 【4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서 기술·가정 【1종】	○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지도서 기술·가정 【7종】
	○교과서 (CD 포함) 러시아 어 I/ 아랍 어 I 【2종】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독일어 I/프랑스 어 I/중국어 I/ 일본어 I 【4종】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스페인 어 I /독일어 II*/프랑스 어 II*/ 스페인 어 II*/중국어 II*/일본어 II*/ 러시아 어 II*/아랍어 II* 【8종】
		○교과서 한문 I 【1종】	○교과서 한문 II* 【1종】
	○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교과서 보건 【1종】	○교과서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생활 경제/진로와 직업/ 환경과 녹색성장* 【8종】
총 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4종	교과서 40종, 지도서 39종

【 전문교과 】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 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생물 공학 기초/재 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원 예 및 생활 원예/동물 자원/조경/농업 과 물/식품 과학/농산물 유통/환경 보 전/농업과 관광 【14종】		○ 교과서 : 농업 경영/산림 자원 기술/생산 자재/원예 기술 I·II/사육 기술 I/사육 기술 II/누에와 비단/조경 기술 I·II/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 I/농업 토목 기술 II/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 업 기계 기술 II/농업 기계 공작/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II/농산물 유통 관리 I/농산물 유통 관리 II/환경 관리 I/환 경 관리 II 【20종】
공업	○ 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 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 I·II/전자 기 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로봇 기초 /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전기 회 로/전기 기기/전력 설비 I/전자 회 로/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지털 논 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재료/시공/ 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디자인 일 반/색채 관리/조형/공예/공업 화학/ 기능성 세라믹/구조 세라믹/세라믹 디 자인/발효 공업/섬유 재료/방직·방사 /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 /사진·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자동차 배기/선박 이론/ 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전 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 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니 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61종】	○ 교과서 : 공업 입문/ 기 초 제도/정보 기술 기 초 【3종】	○ 교과서 : 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 비/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로봇 제작/재료 일반/금 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 력 설비 II/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 자 기기/전자·전산 응용/계측 제어/정보 통신/컴퓨터구조/프로그래밍*/시스템 프로 그래밍/토목 일반/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목공/건축 시공 I·II/제품 디자인/시각 디자인/컴퓨터그래픽/단위 조 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세라믹 원리·공정/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제조·봉제/염색·가공/특수 인쇄/사진/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구조/선 박 건조/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대기· 소음 방지/폐기물 처리/애니메이션 제작 【51종】
상업· 정보	○ 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 【2종】	○ 교과서 : 상업 경제/회 계 원리/컴퓨터 일반 【3종】	○ 교과서 : 기업과 경영/마케팅과 광고/경영 정 보 시스템/기업 자원 관리/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가 회계/기업 회계/전산화계/세무 회 계/무역 영어/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 통 정보 및 물류 관리/자료처리/프로그래 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 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전자 상거래 일반/ 인터넷 쇼핑물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 터넷 마케팅/창업 일반 【25종】
수산· 해운	○ 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해운 정보처리/수산 생 물/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열기관/잠수 기술/해양 레저 ·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12종】		○ 교과서 : 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 (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 산 가공(하)/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전 자/기계 설계·공작/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 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생 선회 실무 【23종】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 관광 영어 ○ 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의복 재료·관리/패션 디 자인/자수와 편물/주거/영·유아 교육 원 리/관광 일반/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 기초 복지 서비스/공중 보건 【14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 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 ○ 교과서 : 동서양 조리/제과 제빵/한국서양 의복 구성/실 내 디자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프로 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경영 실 무/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기초 간호 임상 실 무/노인 생활 지원/헤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 【19종】
과학			○ 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 /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 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15종】
체육	○ 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종】		○ 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 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 영·행정 전공 실기 【16종】
예술			○ 교과서 : 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 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 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 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 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 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 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 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 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 해/사진의 이해 【35종】
외국어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심화 영어/영어 청해/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 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기초 아 랍 어/아랍 어 청해 ○ 교과서 영어 회화Ⅰ/영어 독해/영어권 문화Ⅰ/독 일어 회화Ⅰ/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Ⅰ/프랑 스 어 회화Ⅰ/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Ⅰ/스페인 어 회화Ⅰ/스페인 어 독해/ 스페인 어권 문화Ⅰ/중국어 회화/중국어 독해/중국 문화Ⅰ/일본어 회화Ⅰ/일본어 독해/일본 문화Ⅰ/러시아 어 회화Ⅰ/러시 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Ⅰ/아랍 어 회 화Ⅰ/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Ⅰ 【40종】		○ 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기초 베트남어/베트남어 청해 ○ 교과서 : 영어 회화Ⅱ/영어 작문/영어권 문화Ⅱ/영어 문법/독일어 회화Ⅱ/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Ⅱ/ 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Ⅱ/프랑스 어 작문/프랑 스 어권 문화Ⅱ/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Ⅱ/스 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Ⅱ/스페인 어 문법/ 중국어 회화Ⅱ/중국어 작문/중국 문화Ⅱ/중국어 문 법/일본어 회화Ⅱ/일본어 작문/일본 문화Ⅱ/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Ⅱ/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Ⅱ/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Ⅱ/아랍 어 작문/아 랍 문화Ⅱ/아랍 어 문법/베트남어 회화Ⅰ/베트남어 회화Ⅱ/베트남어 독해/베트남어 작문/베트남 문화 Ⅰ/베트남 문화Ⅱ/베트남어 문법 【41종】
국제			○ 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 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제 경제Ⅱ/세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 /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 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 【22종】
총 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67종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교과용도서 구분의 역사 요약

시기	교과용도서 제도	학교	국정도서 범위	검정도서 합격총수	특징
광복이후~제1차 이전	국·검·자·유·발·행 가능	초 중등	전 교과 국어		교육법 제정
제1차 (‘54.4~’63.2)	국·검정제 중심(인정도서는 교과서 이외의 자료에만 적용)	초 중등	전 교과 국어, 국민윤리, 국가이념을 반영한 교과목	무제한	국·검정 교과서 개발의 체계화, 종합화 기반 마련
제2차 (‘63.2~’73.2)	국·검정제 중심(인정도서는 교과서 이외의 자료에만 적용)	초 중 인문고 실업고	전 교과 국어, 실업, 반공·도덕 국어, 국민윤리 국어, 사회 등	7종	국정 확대, 검정 축소
제3차 (’73.2~’81.12)	전반기(’73~’77): 국정, 검정, 인정제 후반기(’77~’81): 1종, 2종, 인정도서	초·중·실업계고 인문고	전 교과 국어(독본), 국민윤리, 국사 등	5종	1, 2종 도서로 명명, 1종도서 확대
제4차 (’81.12~’87.3)	1종, 2종, 인정도서	초 중등	전 교과 국어, 도덕(국민윤리), 국사	5종	2종도서 확대
제5차 (’87.3~’92.6)	1종, 2종, 인정도서	초 중등	전 교과 국어, 도덕(국민윤리), 국사	중학교 5종 고교 8종	1교과 다교과서제 2종도서 범위 확대 인정도서 다양화
제6차 (’92.6~’97.12)	1종, 2종, 인정도서	초 중 고	영어를 제외한 9개 교과 222책 국어, 도덕, 사회(국사포함), 컴퓨터, 환경 5개 교과, 32책 국어, 도덕, 사회(국사)포함한 보통교과 14개 과목 21책, 전문교과 373과목 410책	8종 무제한	초등 검정 도입 검정 채신정제 도입 인정도서의 승인 주제 변화
제7차 (’97.12~’07.2)	국·검·인정제 교과용도서: 교과서 및 지도서 교과서: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02.6.25)	초 중 고	전 교과 211책 국어, 도덕, 국사 포함한 45책 국어, 도덕, 국사 포함한 보통교과 34책 전문교과(교과서 337책)	무제한 무제한	연차별 검정 및 교과서, 지도서 분리 검정 인정도서가 교과서 개념에 포함 ‘심의없는 인정도서’제 도입
2007 개정 (’07.2~’09.12)	국·검·인정제	초 중 고 전문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포함한 185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생활외국어 5책, 듣기자료 5종 아람어 I, 러시아어 I, 안전과건강 3책, 듣기자료 2종 249책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초등 검정도서 확대 중등 인정도서 확대 전자저작물 및 음원자료 개발 확대 상시 검정제 도입 주기적 정기 검정 실시(5년)
2009 개정 (’11. 2. 23 기준)	국·검·인정제	초 중 고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포함한 178종 생활외국어 5종 아람어 I, 러시아어 I, 안전과건강 보통교과 3종 전문교과 148종	무제한 무제한	· 10개 기본교과인 고교 과학, 체·음·미에 인정도서 도입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구분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에 대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국·검·인정제라는 명칭은 광복 이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그러나 1977년 교과서 검인정 파동 후 즉 제3차 교육과정 후반기부터 국정과 검정이 각각 1종도서와 2종도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종도서는 연구개발형 도서로, 2종도서는 자유경쟁형 도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1종도서 및 2종도서라는 명칭은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2년 6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각각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라는 명칭으로 환원되었다.

둘째, 국·검·인정도서에 대한 정책적 강조점과 비중이 변화되어 왔다.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국정도서를 확대하다가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정도서의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검정도서의 종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검정도서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인정도서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고등학교 검정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이 폐지되고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검정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이는 검정도서의 심사시 미리 합격 종수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합격 종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과서의 개념이 학생용의 교재를 의미하던 것에서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교재를 의미하다가,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학생의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저작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처럼 교과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서 구분고시에서도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에 대한 발행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CD 형태의 전자저작물이 다수 개발되었다.

넷째, 인정도서의 개념과 중요성이 변화되었다. 광복 이후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인정도서가 교과서나 지도서를 대신하거나 보충으로 사용하는 도서로서 교과서 이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2년 6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인정도서가 교과서의 범주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인정도서는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별 교과용도서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서, 고등학교 교양선택과목을 대상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인정도서가 교과서의 개념에 포함된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심의없는 인정도서’가 도입됨으로써 인정도서의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가 중등학교의 보통교과의 교사용지도서와 전문교과에 확대 적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10개 기본교과에 속하는 고등학교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인정도서가 적용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1년 2월 교과용도서 중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정도서가 392종으로 전체 도서의 45%를 차지하며, 국정이 334종으로 39%, 검정이 138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부터 인정도서가 적어도 중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주요 발행 제도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각 교육과정기별 검인정도서 관련 주요 내용³⁾

가. 각 교육과정기별 검인정도서 관련 주요 사항

1) 광복 후부터 정부 수립 시기 : 자유 발행제, 수시검정제(1956년 검인정 심사 이전까지)

가) 출판사 수 : 152개

나) 국·검·인정 교과서 발생사: 약 30개

다) 문교부 검·인정 신청(1984.8.)

· 신청 책 수 : 334책

· 합격 책 수 : 174책

3)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종합한 것임을 밝혀둔다. 교육부(2000)의 ‘교과서 백서’, 광병선 외(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등 참조. 특히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내용은 ‘교과서 백서’에서 주로 발췌하였다.

라)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식회사 창립(1952. 11. 11.)

- 이사 : 15명
- 주주 : 27개사
- 대표 : 민장식
- 교과서 종 수 : 420책
- 운영 : 생산은 각 출판사에서 하고 회사는 위탁판매하며, 선전은 공동으로 한다.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창립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가) 검인정 교과서 연도별 종·책 수⁴⁾

〈표 II-13〉 제1차 교육과정기 연도별 검인정 교과서 종·책 수

학교별	1954년		1956년		1958년	
	종류 수	권 수	종류 수	권 수	종류 수	권 수
초등학교	14	53	19	91	23(인정)	102
중학교	172	300	222	497	237	538
고등학교	81	116	216	350	267	426
계	267	469	457	938	527	1,066

나) 한국검인정교과서(주) 설립(1957. 7.)

- 신규 검·인정 교과서의 2년간의 판매 실적에 비추어 주식 수를 결정하여 생산까지 일원화하고, 고정된 주식 수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는 공동 생산·공급하는

4) 허강 외(2002)의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트러스트 형태의 기구로 발족.

- 주주 : 72개 출판사
- 사장 : 최영애
- 교과서 종 수 : 925종
- 공급인 : 225명
- 선정 양상 : 채택 경쟁

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창립(1958. 1. 7.)

- 중·고등학교용 검·인정 교과서의 적기에 원활한 공급 즉, 계획 발행과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전국 중·고등학교용 검·인정 교과서 발행인들의 모임.
- 문교부 설립 인가 : 1958. 3. 27.
- 초대 회장 : 이대의
- 운영 : 공동 생산, 공동 판매
- 저자 쟁탈(당시 검·인정 사열을 위해 일선 교육자, 학자 등 약 350명이 동원되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저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라)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허가 상황(1958. 12. 31. 현재)

- 초등학교 : 23종 102권
- 중 학 교 : 237종 538권
- 고등학교 : 267종 426권
- 총계 : 527종 1,066권

마) 한국교과서(주) 개칭(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 1962. 5.)

- 검·인정 교과서가 5~6년 되었기에 한국교과서(주)로 개칭하고 회사 자체를 정리.
- 주주 : 96개 출판사
- 주식 수 : 100,000주

바) 한국실업교과서(주) 설립(1962. 5.)

- 부수는 많지 않았지만 종수도 많고, 앞으로 인문계 교과서도 바뀔 것이니 별도로 회사를 설립.
- 농업, 상업, 공업, 수산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서를 생산·공급
- 대표이사 : 이대의
- 주주 : 67개 출판사
- 주식 수 : 20,000주
- 실업고 교과서 종 수 : 90종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가)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 실시 공고(1963. 2. 15.)

- 1교과목 당 7종으로 제한
- 초등학교 교과서 모두 국정으로 전환
- 중학교 9교과 13과목 28종
- 고등학교 13교과 38과목 45종
- 실업고 : 농, 공, 상, 수산, 가정

나) 1963년도 검·인정 교과서 발행 실적

- 중 학 교 : 507종
- 고등학교 : 426종
- 총계 : 1,033종

다) 중학교 검정 출원 접수 및 합격

- 접수(1964. 10.) : 82개 사 324종 742권
- 1차 발표(1965. 6. 6.) : 43개 사 91종 203권
- 2차(추가) 발표(1966. 6. 2.) : 14개 사 200권

라) 중등교과서(주) 설립(1965. 12. 2) : 후에 한국검인정교과서(주)로 개칭 (2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국정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검인정은 중등교과서에 적용)

- 문교부에서 63년 2월에 중학교 검정 실시를 공포하고 64년 10월에 중학교 검정 출원 접수
- 1차 발표시 43개 출판사 203책이 합격했으나, 행정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자 2차(추가로) 검정을 받아 14개 출판사 200책이 합격되어 77년까지 계속되었다.
- 대표이사 : 이대의
- 주주 : 58개 출판사
- 주식 주 : 500,000주
- 운영 : 과목별 1:1 배당 조건

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1966. 8. 31.)

- 중학교 검정 실시는 63. 2. 15일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검정 실시는 3년 후인 66. 8.31일 이루어졌다.

바) 고등학교 검정 출원 접수 및 합격

- 접수(1967. 6. 10.) : 986책
- 합격 발표(1967. 9. 4.) : 38과목 418종 498책

사) 한국고등교과서(주) 설립(1967. 12. 29.)

- 1966년 8월 31일에 공고를 하고 1967년 6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986책 중에 498책이 합격되었다.
- 대표 : 주인용
- 주주 : 86개 출판사
- 주식 주 : 246,000주

아)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에스파냐 과목 검정 실시(1969. 12)

- 접수 : 6책
- 합격 : 3책

자) 1970. 3. 1. 신학기 검·인정 교과서 발행 실태

- 중 학 교 : 29책
- 고등 인문: 46책
- 고등 실업: 35책
- 총계 : 110책

4)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가) 문교부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 대폭 정비

- 국적 있는 교육, 주체성 교육, 유신이념 교육 추진,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수험 준비 교육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중·고 검정 교과서의 단일화가 추진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됨

<표 II-14> 제3차 교육과정기 중·고 검정 교과서 단일화 추진 현황

학 교		교 과 서 명	단일화 이전	단일화 이후	비단일본
중 학 교		한문, 사회, 영어, 과학, 체육, 사회과부도(7)	98종 215책	7종 16책	6과목 184종
고등 학교	인문	한문, 정치, 경제, 영어 I, II, 영작문법, 일본어(6)	78종 135책	6종 10책	10과목 376종
	실업	한문(선택)		1종 1책	285종
합 계		14교과목	176종 350책	14종 27책	845종

나) 검·인정 사건(1977. 3. 18)

- 국세청이 검·인정 교과서 사건 관련 업자 117주주(4개 법인체)에게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 각종 탈루액 127억 원을 추징한다고 발표
-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국정으로 전환(예체능계 제외)
- 출판 문화의 후퇴 : 117개 출판사 중 96개 출판사는 교과서 업계를 떠남.
- 199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승소 판결이 남으로 납부한 세금 환급

다) 문교부 교과서 제도 개선책 발표(1977. 7. 9.)

- 1종(연구개발형)과 2종(자유경쟁형)으로 분류 1979학년도부터 사용
- 공급체계(국정교과서회사가 업무 대행)
- 합격 종 수는 5종류 이내

라) 중학교 실업계 교과서 모두 국정화(1977. 7. 29.)

마) 교과서 검정 1차 합격 공고(1978. 7. 26.)

- 신청 : 23과목 332책
- 합격 : 23과목 94책
-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창립(1978. 9. 1.)
 - 문교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인가될 때까지 발행 조합을 위·수탁으로 개편하고 과목별(22개) 협동 생산 체제로 운영-39개 사

5)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78)

가) 2종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1982. 4. 1.)

- 중 학 교 : 6과목
- 고등학교 : 23과목
- 지 도 서 : 1차 합격 후 제출
- 합격 후 공동 생산에 따른 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신청

나) 검정 합격 공고(1983. 7. 29.)

- 중 학 교 : 6교과목 65책
- 고등학교 : 22교과목 169책
- 고등학교 : 과학 교과서 크라운판으로 변경
- 교과별 공동 사업체(14조합 구성) : 중-4개, 고-10개

다)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 창립(1982. 8. 1) : 문교부 설립 허가(1982. 7. 26.)

- 민법 32조와 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
- 관련 규정 :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 29조(발행권 양도의 제한 등)

② 문교부 장관은 2종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 발행권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2종도서를 인쇄·발행하게 할 수 있다.

- 목적 :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종 교과서 공동 발행의 지원 및 관리
- 과목별 공동 사업체의 업무 대행 및 운영 감독
- 생산 자금의 조달 및 대여
- 2종 교과서 대금의 수납 대행
- 관계 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공동 이익의 증진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운영 : 협회의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협회의 회원은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로 구성
- 협회는 회원의 회비와 발행 조합의 업무 대행 수수료를 운영
-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 발행 조합 결성
- 발행 조합은 공동 생산, 비용 부담, 이익 분배

- 교과서는 협회가 시·군 교육청 주재원에게 일괄 공급
- 대금 수납은 대한교과서(주)[구 국정교과서(주)]로부터 수령

6)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가) 중학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1987. 4. 6.)

- 9과목(수학, 영어, 과학 교과목이 1종에서 2종으로 됨.)

나) 고등학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1988. 4. 20.)

- 교과목 수 : 40교과목
- 합격 종 수 : 5종류 이내

다) 중학교 검정 합격 발표(1988. 7. 28.)

- 신청 : 9교과목 264책
- 합격 : 9교과목 45책
- 중학교 2종 교과서 발행 조합 설립(1988. 9. 10.)
 - 대표공동사업자 : (주)교학사 양철우
 - 출판사 수 : 20개 사. 고등학교 검정 합격 발표(1989. 3. 14)
- 신청 : 40교과목 513책
- 합격 : 40교과목 273책
- 고등학교 2종 교과서 발행조합 설립(1989. 9. 10.)
 - 대표 공동 사업자 : (주)동아출판사 김현식
 - 출판사 수 : 51개 사

7)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9)

가) 중학교 검정 공고(1992. 8. 31.)

- 교과목 수 : 11교과목
- 검정 신청일 : 1994. 1. 31.

나) 고등학교 검정 공고(1992. 12. 21.)

- 교과목 수 : 58교과목(보통교과: 54, 전문교과 : 5)
- 검정 신청일 : 1995. 1. 20.~2. 4. \Rightarrow 6. 28.~7. 5.로 변경

다) 중학교 검정 합격 발표(1994. 8. 8.)

- 신청 : 70개 사 681책
- 합격 : 37개 사 교과서 232책, 지도서 224책
- 중학교2종교과서발행조합 설립(1988. 9. 10.)
 - 대표공동사업자:(주)교학사 양철우
 - 출판사 수 : 37개 사

라) 고등학교 검정 합격 발표

- 검정 신청 : 69개 사 786책
- 1차 합격 발표(1995. 8. 5.)
 - 59교과목, 487책, 53개 사
- 최종 합격 발표(1995. 9. 30.)
 - 59교과목, 483책, 53개
- 재 검정 합격 발표(1996. 6. 11.)
 - 접수 : 157책(46교과목)
 - 합격 : 122책
- 고등학교 2종 교과서 발행 조합 설립(1989. 9. 10.)
 - 대표 공동 사업자 : (주)교학사 양철우
 - 출판사 수 : 57개 사

마)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도서 검정 공고(1995. 11. 23.)

바)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 3학년 : 1996. 7. 2.~7. 5.
- 3학년 재 검정 : 1997. 2. 12

- 4학년 : 1997. 7. 2.
- 4학년 재검정 : 1997. 11.
- 5~6학년 : 1998. 8. 3.

사)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도서 최종 합격 발표

- 3학년 : 8개 사 48책(1996. 10. 15.)
- 3학년 재검정 : 3개 사 16책(1997. 4. 4.)
- 4학년 : 11개 사 60책(1997. 10. 15.)
- 4학년 재검정 : 1개 사 4책(1997. 11. 29.)
- 5~6학년 : 10개 사 128책(1998. 12. 4.)
- 초등학교 영어 2종 교과서 발행 조합 설립(1997. 1. 1.)
 - 대표공동사업자 : (주)두산 최태정
 - 출판사 수 : 10개 사

8)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가) 검정제의 특징

- 검정 관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
- 연차별 검정 및 교과서, 지도서 분리 검정

나) 학교급별 검정도서 구분고시

- 초등학교 교과서 32책, 지도서 16책
- 중학교 교과서 33책, 지도서 32책
-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서 66책, 지도서 47책, 전문교과 교과서 9책

다) 출원종수 : 최대 36종

라) 합격종수 : 최대 16종

마) 평가 : 절대평가

바) 유효기간 : 당해 도서를 최초로 사용하는 학년도부터 도서의 편찬 기준이 되는
다음 교육과정의 적용시까지. 다만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부분 개
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유효 기간은 종료(1998.12.31 공고)

9) 2007 개정 교육과정기(2007~2009)

가) 검정제의 특징

- 초등 5-6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와 중등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 도서로 전환
- 서책 외에 CD 검정 추가

나) 학교급별 검정도서 구분고시(2011. 2. 23 기준)

- 초등학교: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 중학교: 교과서 56종
-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서 54종, 전문교과 교과서 6종

다)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수(비율)

<표 II-15> 제7차 및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 수(비율)

합격률 교과		제7차 교육과정 (2000년 검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8년 검정)	출원 종수 증가율
		출원종수/합격종수(합격률)	출원종수/합격종수(합격률)	
수학	중1	35/16 (45.7%)	42/27(64.3%)	20.0%
	고1	30/16 (53.3%)	38/18(47.4%)	26.7%
	소계	65/32(49.2%)	80/45(56.3%)	23.1%
영어	중1	36/15(41.7%)	42/25(59.5%)	16.7%
	고1	26/15(57.7%)	30/17(56.7%)	15.4%
	소계	62/30(48.4%)	72/42(58.3%)	16.1%
총계		127/62(48.8%)	152/87(57.2%)	19.7%

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의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수(2009년 검정분)

<표 II-16> 2007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 수(2009년 검정분)

구분	과목명	출원종수/합격종수(합격률)	비고
중학교	국어1	34/23(67.6%)	4책
	도덕1	21/7(33.3%)	
	사회1	21/15(71.4%)	
	사회과부도	14/8(57.1%)	
	과학1	28/16(57.1%)	
	수학2	27/17(63.0%)	2책
	영어2	23/19(82.6%)	2책
	기술·가정1	21/9(42.9%)	
	체육1	24/9(37.5%)	
	음악1	28/15(53.6%)	
	미술	20/9(45.0%)	
	한문1	36/15(41.7%)	
	정보1	18/8(44.4%)	
	정보2	18/8(44.4%)	
	정보3	18/8(44.4%)	
	환경	8/4(50.0%)	
	생활일본어	14/8(57.1%)	
	생활중국어	21/13(61.9%)	
	소계	394/211(53.6%)	
고등학교	수학의 활용	4/2(50.0%)	2책
	수학 I	17/15(88.2%)	2책
	미적분과 통계기본	17/13(76.5%)	2책
	수학Ⅱ	13/11(84.6%)	2책
	적분과 통계	12/10(83.3%)	2책
	기하와 벡터	12/10(83.3%)	2책
	영어 I	12/10(83.3%)	
	영어Ⅱ	12/10(83.3%)	
	실용영어회화	6/4(66.7%)	
	심화영어회화	5/4(80.0%)	
	영어독해와 작문	6/4(66.7%)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4/3(75.0%)	
	소계	120/96(80.0%)	
합계		514/307(59.7%)	총741책

나. 각 교육과정기별 검인정도서의 변천 경향

1) 각 교육과정기별 검정도서 현황

이 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교육과정기별 검정도서현황⁵⁾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사회생활, 공민, 역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체육, 생물, 물상, 음악, 미술, 서예, 영어, 가정(14)
고등학교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란서어,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원리, 교육방법, 철학, 논리, 국어Ⅱ(한문), 일반사회, 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수학, 해석, 기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서예,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32)

☐ 제2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영어(8)
고등학교	일반사회, 정치·경제, 세계사, 지리 I,Ⅱ, 공통수학, 수학 I, Ⅱ, 화학 I,Ⅱ, 물리 I,Ⅱ, 생물 I,Ⅱ, 지학, 체육, 음악 I,Ⅱ, 미술 I,Ⅱ, 농업일반, 공업일반, 상업일반, 가정일반, 영어 I,Ⅱ,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29)

☐ 제3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국정으로 전환)
고등학교	작문, 고전문법, 사회과부도, 수학 I·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I·Ⅱ, 영어 I·Ⅱ, 독일어(상·하), 프랑스어(상·하), 가정, 중국어(상·하)(19)

5) '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의 검정정보 참조(www.ktbook.com/info/info_02_02_4.asp)

□ 제4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서예, 사회과부도(6)
고등학교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문, 지리 I·II, 세계사, 사회 과부도, 수학 I, II- 1, II- 2,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과학 I,II,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I,II, 영어 I, II, II- 1, 독어 I,II, 불어 I·II, 일본어(상·하), 산업기술, 가정(28)

□ 제5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사회과부도(9)
고등학교	문학, 한국지리, 지리부도, 작문, 세계지리, 세계사, 역사부도, 일반수학, 수학 I, II, 과학 I, II,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기술, 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한글타자(38)

□ 제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서예, 가정, 기술·산업, 영어, 한문, 사회과부도(11)
고등학교	문학(상·하), 작문, 화법, 독서, 한문 I, II, 공통 수학, 수학 I, II, 공통사회(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역사부도, 지리부도, 공통과학, 물리 I, II, 화학 I, II, 생물 I, II, 지구과학 I,II, 체육 I, 음악 I, 미술 I, 일본어, 기술가정, 농·공·상업, 가사, 상업부기, 상업대요, 전자계산 일반, 상업계산, 타자(38), 서예, 기술, 가정, 농업, 상업, 가사, 정보산업, 공통영어, 영어 I, 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에스파냐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상업경제, 상업부기, 전자계산일반, 상업계산, 문서실무(59)

□ 제7차 교육과정(6)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사회과부도,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학영어, 한문, 컴퓨터, 환경 (교과서33책, 지도서32책)
고등학교	화법, 독서, 작문, 문학, 국어생활, 사회, 지리부도, 세계사, 역사부도, 사회·문화, 세계지리, 정치, 경제, 한국근·현대사,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실용수학, 수학 I,II, 수학10-가, 나, 미분과 적분, 과학,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과학 I,II,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가정과학, 체육, 체육과 건강, 음악, 음악과 생활, 미술, 미술과 생활, 고등 영어, 영어 I,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스페인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영어작문, 한문, 한문고전(보통교과 교과서 66책, 지도서 47책) 공업입문, 상업경제, 상업계산실무, 경영대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무역영어,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전문교과 교과서 9책)

6) 제7차 교과용도서 1종 및 2종 구분(교육부고시 제 1998-17호, 98.12.12)

□ 2007 개정 교육과정⁷⁾

초등학교	실과 5/6, 체육 5/6, 음악 5/6, 음악(음원자료 포함) 미술 5~6, 영어 3/4/5/6(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교과서 11책, 지도서11책) 전자저작물 4종
중학교	국어 1-1,2/2-1,2/3-1,2 생활국어 1-1,2/2-1,2/3-1,2 도덕 1/2/3, 사회과부도/사회 1/3, 역사부도/ 역사(상)/(하), 수학 1/2/3, 수학익힘책1/2/3, 과학1/2/3, 기술·가정 1/2/3, 체육 1/2/3, 음악 1/2/3, 미술, 영어 1/2/3, 영어학습활동책1/2/3(듣기자료 CD 포함), 한문 1/2/3, 정보 1/2/3, 환경, 보건, 생활 중국어/(듣기자료CD 포함), 생활일본어(듣기자료CD포함) (교과서 56책)
고등학교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매체 언어/ 도덕/현대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 I/수학 I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과학/물리 I/화학 I/생명 과학 I/지구 과학 I/물리Ⅱ/화학Ⅱ/ 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영어/영어 학습활동 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독일어 II/프랑스 어 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스페인 어 II/중국어 I/중국어 II/일본어 I/일본어 II/한문 I /한문 II/보건 (보통교과 교과서 89책)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 미디어 일반 (전문교과 14책)

□ 2009 개정 교육과정기(2011. 2. 2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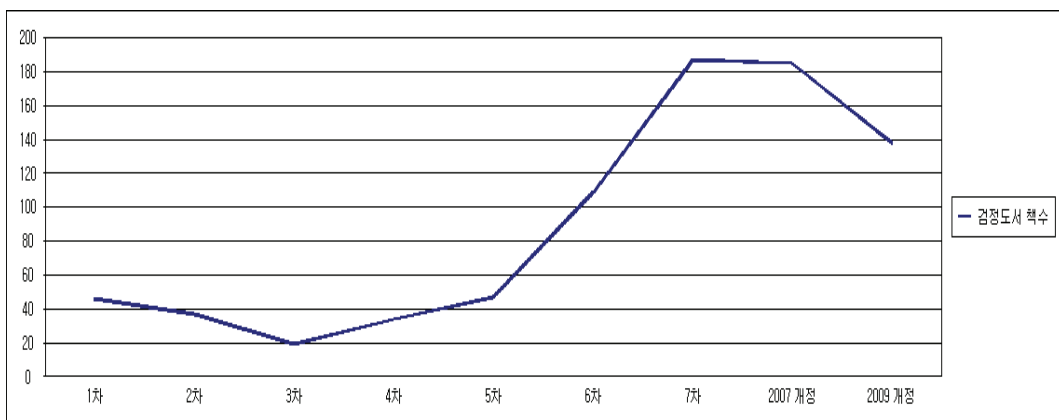
초등학교	실과 5/6, 체육 5/6, 음악 5/6, 음악(음원자료 포함) 미술 5~6, 영어 3/4/5/6(e-교과서 포함) (교과서 11종, 지도서11종)
중학교	국어 1-1,2/2-1,2/3-1,2 생활국어 1-1,2/2-1,2/3-1,2 도덕 1/2/3, 사회과부도/사회 1/3, 역사부도/ 역사(상)/(하), 수학 1/2/3, 수학익힘책1/2/3, 과학1/2/3, 기술·가정1/2/3, 체육 1/2/3, 음악 1/2/3, 미술, 영어 1/2/3, 영어학습활동책1/2/3(e-교과서 포함), 한문 1/2/3, 정보 1/2/3, 환경, 생활 중국어/(듣기자료CD 포함), 생활일본어(듣기자료CD포함), 보건 (교과서 56종)
고등학교	(e-교과서 포함)국어(상)/국어(하)/화법과 작문 I/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 I/독서와 문법Ⅱ/문학 I/문학Ⅱ, (e-교과서 포함)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 I/수학 I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e-교과서포함)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지리 부도/역사 부도,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듣기자료 DC 포함)독일어 I/프랑스 어 I/중국어 I/일본어 I, 한문 I, 보건 (보통교과 교과서 54종) 공업 입문/기초제도/정보 기술 기초,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 (전문교과 교과서 6종)

7)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04호, 2009. 1. 21)에 따름

2) 각 교육과정기별 검정도서의 책 수 변화 경향

검정도서의 책 수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 가장 적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 확대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감소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정도서 책 수가 감소한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정도서로 발행되었던 교과서 중 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II-1] 교육과정기별 검정도서의 책 수 변화 경향



3) 각 교육과정기별 인정도서 정책 개관

인정도서가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기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국정, 검정, 자유발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인정도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정도서는 보조 교과서 개념으로 규정되면서 오랫동안 교과서 개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즉 그동안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의미함으로써 인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의 개념과 별개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교과용도서의 범주에는 포함되었으나 교과서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2년에 와서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됨으로써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의 범주에도 포함되고, 교과서의 범주에도 포함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

정도서는 교과용도서의 범주에도 포함되고, 교과서의 범주에도 포함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정도서의 개념은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자유발행체의 성격을 지닌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교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 기본교과와 도서를 인정으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각 교육과정기별 인정도서의 의미와 변천 과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7> 인정도서의 의미 변천 과정 요약

시기	인정도서의 의미	비고
광복이후~제1차 이전	(국·검·자유발행체제 유지)	
제1차 (‘54.4~‘63.2)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생용 도서로 보조 교과서 개념	
제2차 (‘63.2~‘73.2)	교과서 이외 학생에게 필요한 도서나 교사용도서	
제3차 (‘73.2~‘81.1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 또는 지도서로 대용하도록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77)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의미(‘77)
제4차 (‘81.12~‘87.3)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서(‘86)	
제5차 (‘87.3~‘92.6)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서(‘91)	인정도서 다양화 시도
제6차 (‘92.6~‘97.12)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도서(‘94)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95.7.20)	인정도서의 승인 주체 변화
제7차 (‘97.12~‘07.2)	교과서·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97)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02)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함(‘02) ‘심의없는 인정도서’제 도입
2007개정 (‘07.2~‘09.12)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08)	
2009 개정 (11. 2. 23 기준)	상동	· 고교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 기본교과를 인정으로 구분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서 인정도서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요한 교과서 발행 유형으로 간주되게 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의 인정도서 구분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7차 교육과정기 인정도서⁸⁾

초등학교	우리들은 1학년(시도별) 32책, 사회과 탐구(지역별) 32책 계 [교과서 32책, 지도서 16책]
고등학교 보통교과	철학 8책, 논리학 5책, 심리학 3책, 교육학 3책, 생활경제 9책, 종교 19책, 생 태와 환경 4책, 진로와 직업 8책 계 [59책]
특수목적고 국악고등학교	대금정악, 해금정악, 현금정악, 가야금 정악, 단소율보, 대마루, 정가집 계 [7책]
방송통신고등학교	[11책]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컴퓨터구조 등 공업 4과목 자료처리 등 상업 5과목 축구 등 체육 22과목 음악이론 등 예술계 25과목 영어강독 등 국제계 21과목 잠사기술 농업계 1과목 계 [78과목]

□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인정도서('09.1.21)

초등학교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양과목 교과서,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중학교	지도서 수학 1,2,3, 지도서 과학 1,2,3, 지도서 기술·가정 1,2,3, 지 도서 체육 1,2,3, 지도서 음악 1,2,3, 교사용 음원자료 3종, 지도서 미술, 지도서 영어 1,2,3, 지도서 한문 1,2,3, 지도서 정보 1,2,3, 지도 서 환경, 지도서 생활 중국어/지도서 생활 일본어 계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고등학교 보통교과	지도서 수학, 지도서 과학, 지도서 기술·가정, 지도서 체육, 지도서 음악, 교사용 음원자료, 지도서 미술, 교과서 아랍어Ⅱ, 교과서 러시 아 어Ⅱ, 지도서 영어 계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고등학교 전문교과	공업 교과 교과서 8책, 상업·정보 교과서 15책, 수산·해운 교과 서 1책, 가사·실업 교과서 5책, 과학 교과서 15책, 체육 교과서 18 책, 예술 교과서 35책, 외국어 교과서 32책, 국제 교과서 25책 계 [교과서 154책]

*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
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8) 광병선 외(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 참조

□ 2009 개정 교육과정기 인정도서(2011. 02. 23)

중학교	지도서 국어 1/2/3 지도서 도덕 1/2/3 지도서 사회 1/3, 역사, 교과서 진로와 직업 계 [교과서 1종, 지도서 9종]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 지도서: 국어 사회 지도서: 사회, 한국사, 도덕 과학 교과서: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체육 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교과서: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Ⅱ, 프랑스 어Ⅱ, 스페인 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 어Ⅱ, 아랍어Ⅱ, 한문Ⅱ, 환경과 녹색 성장 계 [교과서 32종, 지도서 4종]	
고등학교 전문교과	공업 교과서: 프로그래밍 계 [교과서 1종]	
인정도서심 의회 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초등 학교	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계 [전자저작물 8종]
	중 학교	지도서 수학 1/2/3/ 과학 1/2/3/ 기술·가정 1/2/3/ 체육 1/2/3 지도서(음원자료 CD 포함) 음악 1/2/3, 지도서 미술 지도서 영어 1/2/3, 지도서 한문 1/2/3, 지도서 정보 1/2/3, 지도서 환경, 지도서 생활 중국어/ 지도서 생활 일본어 계 [지도서 28종]
	고등 학교 보통 교과	국어 지도서: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학 지도서: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지도서: 영어, 영어 학습활동책,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 지도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학 지도서: 과학 체육 지도서: 체육 예술 지도서: 음악(음원자료CD 포함), 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지도서 기술·가정, 교과서 스페인 어Ⅰ, 교과서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진로와 직업 계 [교과서 8종, 지도서 35종]
	고등 학교 전문 교과	농생명산업 교과서 20종 공업 교과서 50종 상업·정보 교과서 25종 수산·해운 교과서 23종 가사·실업 교과서 19종 과학 교과서 15종 체육 교과서 16종 예술 교과서 35종 외국어 교과서 41종 국제 교과서 22종 계 [266종]

* 허강 외(2002).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02-03.

Ⅲ.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위한 의견 조사

이 장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안 관련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첫째, 설문조사, 둘째, 전문가 협의회, 셋째, 심층면접, 넷째,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각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2011년 1학기에 초등학교에서 처음 도입된 검정도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집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사 약 300명이었다.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담당학년을 5, 6학년으로 제한한 것은 2011년부터 5,6학년에서 처음으로 검정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정도서와 국정도서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표 III-1>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 수(명)	구성비(%)
담당학년	5학년	131	46.8
	6학년	149	53.2
	소계	280	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06	36.3
	6-10년	54	18.5
	11-20년	75	25.7
	21년 이상	57	19.5
	소계	292	100.0
성별	여자	239	85.7
	남자	40	14.3
	소계	279	100.0
계		302	100.0

이 설문조사에서 교과용도서 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5개였다. 첫째, 검정도서를 국정도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문항, 둘째,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 셋째,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를 묻는 문항, 넷째,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학교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 다섯째,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일반적 의견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등이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도입된 검정도서를 이전의 국정도서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2>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교과용도서에 대한 교사 의견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전혀 나아지지 않음	② 별로 나아지지 않음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나아짐	⑤ 많이 나아짐	계
학 년	5학년	9 (6.9%)	34 (26.0%)	29 (22.1%)	49 (37.4%)	10 (7.6%)	131 (100.0%)
	6학년	7 (4.7%)	38 (25.5%)	46 (30.9%)	47 (31.5%)	11 (7.4%)	149 (100.0%)
경 력	5년 이하	7 (6.6%)	17 (16.0%)	28 (26.4%)	49 (46.2%)	5 (4.7%)	106 (100.0%)
	6-10년	1 (1.9%)	14 (25.9%)	21 (38.9%)	17 (31.5%)	1 (1.9%)	54 (100.0%)
	11-20 년	7 (9.3%)	22 (29.3%)	16 (21.3%)	21 (28.0%)	9 (12.0%)	75 (100.0%)
	21년 이상	2 (3.5%)	20 (35.1%)	14 (24.6%)	15 (26.3%)	6 (10.5%)	57 (100.0%)
성 별	여자	13 (5.4%)	60 (25.1%)	64 (26.8%)	85 (35.6%)	17 (7.1%)	239 (100.0%)
	남자	1 (2.5%)	9 (22.5%)	13 (32.5%)	13 (32.5%)	4 (10.0%)	40 (100.0%)
전체		18 (6.0%)	75 (24.8%)	81 (26.8%)	106 (35.1%)	22 (7.3%)	302 (100.0%)

새로 도입된 검정도서를 이전의 국정도서와 비교했을 때 검정도서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직경력 5년 이하의 교사들의 5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교직경력 21년 이상인 교사들은 다른 경력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이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나아진 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3>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교과용도서의 나아진 점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외형체제 (편집/디자인)	② 교과서 내용선정/구성	③ 교사용지도서 (내용/체제)	④ 교수학습자료 (CD/부수자료)	⑤ 기타	계
학 년	5학년	32 (47.8%)	20 (29.9%)	7 (10.4%)	7 (10.4%)	1 (1.5%)	67 (100.0%)
	6학년	38 (52.8%)	11 (15.3%)	6 (8.3%)	16 (22.2%)	1 (1.4%)	72 (100.0%)
경 력	5년 이하	32 (52.5%)	11 (18.0%)	6 (9.8%)	12 (19.7%)	0 (.0%)	61 (100.0%)
	6-10년	9 (42.9%)	6 (28.5%)	2 (9.5%)	4 (19.0%)	0 (.0%)	21 (100.0%)
	11-20 년	18 (48.6%)	8 (21.6%)	6 (16.2%)	5 (13.5%)	0 (.0%)	37 (100.0%)
	21년 이상	15 (55.6%)	6 (22.2%)	1 (3.7%)	3 (11.1%)	2 (7.4%)	27 (100.0%)
성 별	여자	65 (52.8%)	23 (18.7%)	15 (12.2%)	19 (15.4%)	1 (.8%)	123 (100.0%)
	남자	7 (41.2%)	5 (29.4%)	0 (.0%)	4 (23.5%)	1 (5.9%)	17 (100.0%)
전체		76 (50.0%)	32 (21.1%)	16 (10.5%)	26 (17.1%)	2 (.7%)	152 (100.0%)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나아진 점에 대해 교사들은 외형체제(편집/디자인)라고 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서 내용선정/구성 면에서 나아졌다는 답변이 21.1%이며, 교수·학습자료 면에서 나아졌다는 답변이 17.1%,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이나 체제라는 답변이 10.5%로 나타났다.

셋째,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각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4>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각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전혀 나아지지 않음	② 별로 나아지지 않음	③ 그저 그렇	④ 약간 나아짐	⑤ 많이 나아짐	계
영어	7 (2.8%)	46 (18.2%)	106 (41.9%)	78 (30.8%)	16 (6.3%)	253 (100.0%)
체육	9 (3.3%)	43 (16.0%)	93 (34.6%)	91 (33.8%)	33 (12.3%)	269 (100.0%)
음악	16 (6.2%)	52 (20.2%)	102 (39.5%)	71 (27.5%)	17 (6.6%)	258 (100.0%)
미술	23 (8.6%)	60 (22.3%)	74 (27.5%)	84 (31.2%)	28 (10.4%)	269 (100.0%)
실과	18 (6.8%)	51 (19.4%)	113 (43.0%)	72 (27.4%)	9 (3.4%)	263 (100.0%)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각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영어, 체육, 음악, 실과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5, 6학년 교과서를 한권으로 합본하여 발행한 미술에서만 ‘약간 나아졌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5단계 척도의 반응을 ‘나아지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나아졌다’라는 3단계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하면, 영어, 음악, 실과는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체육과 미술은 ‘나아졌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교과서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5>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교과서 관련 초등교사들의 경험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그저 그렇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계
교과서 선정 및 채택	18 (6.3%)	80 (27.8%)	114 (39.6%)	65 (22.6%)	11 (3.8%)	288 (100.0%)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 및 제공	55 (19.2%)	111 (38.8%)	83 (29.0%)	30 (10.5%)	7 (2.4%)	286 (100.0%)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 및 내용간의 불일치	96 (33.3%)	114 (39.6%)	65 (22.6%)	12 (4.2%)	1 (.3%)	288 (100.0%)
검정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양과 수준의 증가	38 (13.1%)	94 (32.5%)	120 (41.5%)	33 (11.4%)	4 (1.4%)	289 (100.0%)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 후 교과서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 및 내용간의 불일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72.9%로 가장 많았으며,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 및 제공’이 58.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검정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양과 수준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도 45.6%나 되었다. 검정 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선정 및 채택’의 경험은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6>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계
학년	5학년	43 (33.3%)	67 (51.9%)	10 (7.8%)	6 (4.7%)	3 (2.3%)	129 (100.0%)
	6학년	44 (29.7%)	67 (45.3%)	27 (18.2%)	9 (6.1%)	1 (.7%)	148 (100.0%)
경력	5년 이하	28 (26.4%)	55 (51.9%)	16 (15.1%)	6 (5.7%)	1 (.9%)	106 (100.0%)
	6-10년	19 (35.2%)	24 (44.4%)	8 (14.8%)	1 (1.9%)	2 (3.7%)	54 (100.0%)
	11-20년	29 (38.7%)	31 (41.3%)	7 (9.3%)	8 (10.7%)	0 (.0%)	75 (100.0%)
	21년 이상	14 (26.4%)	30 (56.6%)	6 (11.3%)	2 (3.8%)	1 (1.9%)	53 (100.0%)
성별	여자	75 (31.8%)	120 (50.8%)	26 (11.0%)	13 (5.5%)	2 (.8%)	236 (100.0%)
	남자	10 (25.6%)	15 (38.5%)	10 (25.6%)	2 (5.1%)	2 (5.1%)	39 (100.0%)
전체		92 (30.9%)	144 (48.3%)	39 (12.9%)	19 (6.4%)	4 (1.3%)	298 (100.0%)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배경 변인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0.9%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초등학교에서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9.2%인데 반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행유지와 확대 방안들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표 III-7>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행유지 또는 확대 방안

(단위: 명, 괄호 안은 %)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	계
현행유지	25 (9.5%)	33 (12.6%)	68 (26.0%)	74 (28.2%)	62 (23.7%)	262 (100.0%)
3, 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	84 (35.0%)	49 (20.4%)	58 (24.2%)	42 (17.5%)	7 (2.9%)	240 (100.0%)
5, 6학년 국어, 수학, 사 회, 과학, 도덕으로 확대	144 (60.3%)	49 (20.5%)	27 (11.3%)	18 (7.5%)	1 (.4%)	239 (100.0%)
3~6학년 전교과로 확대	156 (65.8%)	44 (18.6%)	24 (10.1%)	13 (5.5%)	0 (.0%)	237 (100.0%)
초등 전교과로 확대	164 (68.0%)	43 (17.8%)	20 (8.3%)	12 (5.0%)	2 (.8%)	241 (100.0%)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현행유지(확대 반대)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51.9%인데 반하여, 반대(확대 찬성)하는 의견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확대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 전교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5.8%의 교사가 반대했으며, ‘3~6학년 전교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4.4%의 교사가 반대했다. 또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0.8%의 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3, 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방안은 55.4%

의 교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확대 방안 중에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초등 전교과로 확대’, ‘3~6학년 전교과로 확대’,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으로 확대’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사가 8.0%에 미치지 않았으며, 오로지 ‘3, 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찬성하는 교사가 20.4%로 나타났다.

2. 전문가 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과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 출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1) 초등학교에서 검·인정도서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2) 중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3) 중학교에서 국어, 도덕, 사회(역사)의 인정으로의 전환 여부, 4) 고등학교 보통교과(일반교과)의 인정으로 전환 여부, 5) 보통교과 중 심화교과와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구분고시 방안, 6) 교사용지도서의 구분고시 방안, 7) 학년군 개념의 구분고시 적용 방안, 8) 교과(군)별로 학년군 내에서의 교과서 분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하 전문가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8> 전문가 협의회 참석자 현황

교과전문가	교육청 업무 담당자	출판사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과 전공 교수 1명 - 수학과 전공 교수 1명 - 영어과 전공 고등학교 교장 1명 - 과학과 전공 고등학교 교사 1명 - 사회과 전공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관 1명 - 장학사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출판사 11명

가. 교과전문가

교과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인정제의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각 교과별 구분고시 방안과 현행 검·인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과에 따라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내었다. 주요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안

다수의 교과전문가는 초등학교 교과서 발행 정책을 국정 내지는 검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등학교 기간은 의무교육기간이며 통일된 국민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정제 하의 교과서가 획일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나 심사를 엄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국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1, 2학년의 교과서는 국정으로, 3-6학년의 음악, 미술, 체육은 인정으로, 3-6학년의 나머지 모든 교과는 검정으로 구분고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과별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국어과의 경우 교과서 개발 인력이 분산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국정제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어과에서 초등단계는 문자입문기 이기에 세심한 문제까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수용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과를 검인정으로 전환할 경우 교과서 개발 인력이 분산되어 양질의 교과서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중등학교 검정교과서가 30여종이 개발되었고, 권당 약 15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였다고 하자. 대부분의 교과전문가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다보니, 정작 검인정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심사의 질 역시 보장할 수 없다. 몇 백명의 교과전문가들이 교과서 집필에 몰려서 참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만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국어과에서는 교과서 개발 인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국정공모제’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의 경우 검인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 않다면 현행 국정제를 유지하면서 개발 인력을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2) 중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안

중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안에 대해 교과전문가들의 의견은 1) 현행 검정제 유지, 2) 검정체제 개선을 전제한 검정제 유지, 3) 인정제 확대 등으로 나누어졌다.

사회과 전문가는 체육, 음악, 미술, 선택교과와 같은 인정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교과에서는 검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한 관점을 포괄할 정도로 열린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념에 관련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은 국정제를 유지하여 사회분열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개발 인력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인정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국어과 전문가는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심사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정심사 시 그 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창의적인 내용, 다양한 접근 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의견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인 단원을 만들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검정심사 기준에 출판사와 교과서 개발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한 교과서가 심사에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개발자 자신의 자기검열이 상당히 강화된다. 교과서 개발자는 검정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험적인 시도를 피하게 되고 이로써 천편일률적인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느슨한 검정심사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권이 불합격하면 동일종의 나머지 교과서도 불합격 되는 점, 편집 체제 등에 무리한 제재를 가하는 점, 완성본을 심사하는 것 등 비합리적 심사 체제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검정제가 바람직하다.

수학과 전문가와 과학과 전문가, 영어과 전문가는 인정제로의 전환을 적극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검정제의 불합리성과 교과서의 획일화의 문제를 꼽았다. 그 의견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정제의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 교과전문가들 사이에는 검정심사 제도의 불합리성과 폐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으며, 심사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교과서 집필을 꺼리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는 검정제 내에서는 개발될 수 없기 때문에 검정제를 인정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정교과서는 정밀함이 다소 떨어지므로, 교과서 질 유지를 위한 시스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어교과는 영어과의 특성상 인정제가 적합하다. 영어는 내용상의 위계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고, 학생들 역시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 엄밀성보다는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고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문가들은 역사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인력풀이 확대되어 있어 인정제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국어과의 경우 이념 문제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개발차원에서 문학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있는 제재는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념문제는 크게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수학의 경우 인정제로 전환하면 수능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수능은 공통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인정제로의 전환이 수능과 관련하여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과 전문가는 사회과는 검정제, 한국사는 국정제로 두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사 같은 경우에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있으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역량이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내용이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의 질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인정제로 전환하면 이해관계 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사는 국정으로, 그리고 사회는 검정제를 유지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교육 내용을 미리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전문가들은 고등학교 교양과목은 첫째, 인정제로 전환하거나 둘째, 교양과목을 구분고시에서 제외하여 완전히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였다. 다만 시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인정제로 전환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바, 시장성을 고려하여 인정제 및 자유발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구분고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등학교 전문교과와 같이 수요가 부족하여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거나 자원 동원이나 기술적 역량이 없는 교과는 국정제의 폐해와 관계없이 정부가 맡아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4)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 여부

교사용 지도서를 어떻게 구분고시 할 것인지에 대해 교과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교사용 지도서를 구분고시를 하지 말고 자유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용 지도서까지 교과용도서로 구분하여 구분고시 하게 되면 지도서 역시 규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교사를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셋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인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으로 구분고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지니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교과전문가들은 교사용 지도서의 검·인정도서로의 구분고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여 의미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서 인정 심사에서 수정 요구한 사안들 가운데는 중요한 오류들도 다

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도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심사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해당교과의 비전공자 교사 즉 상치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지도서는 필수적이다. 교사 전문성이 확보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비전공자가 해당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상황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5) 기본교과를 인정도서로 전환할 때의 인정심사 체제의 문제

국·영·수 등 10개 기본교과에 속하는 보통교과를 인정제로 전환할 때 현행의 인정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교과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행 인정심의 시스템에서는 6개월 내에 심의와 교과서 선택 및 공급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치게 촉박하다. 기본교과 성격의 보통교과가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뀌게 되면 인정교과서의 심의, 채택, 공급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인정제 하에서는 교과서 자율화를 도모해야 하는 동시에 질 유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책적 가치가 상충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정제의 근본 취지는 다양한 교과서를 전제하고 기본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수용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인정제에서는 성취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느냐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정제에서는 연성심사 즉 느슨한 심사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청 교과서 업무 담당자

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정제의 확대를 통해 교과서의 다양화와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찬성하였다. 그러나 현 인정 체제에서 인정도서의 무리한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육청의 교과서 업무 담당자들의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정제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정도서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그들은 자율화와 다양성이라는 교과서 구분고시의 기본 정신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현 인정체제에서 인정제를 확대하면 행정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정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첫째, 검정이 가능한 교과들은 검정심사를 통해 도서의 질을 관리하는 검정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정도서는 주로 전문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인정도서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수준이 낮아 교과서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교과서 개발에 교과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정도서에 대한 심의기준도 애매모호해서 해당 교과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과서 질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검정이 가능한 교과에서는 가급적 검정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과서 기획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팀이 구성되거나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과서 담당 업무를 기피한다.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1) 지역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2) 재량활동 교과서도 만들고 있고, 3) 그 외에도 초·중등학교의 인정도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관련 업무처리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정책의 기본 방향조차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홍보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정제 확대를 위해서는 인정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된다면 현재의 업무추진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필요

한 물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과거에는 교과부에 교과서 편수팀이 있었고, 현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는 교과서 관련 행정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제를 대폭 확대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인정제의 확대는 시도 교육청의 인정 업무 시스템의 확보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인정제 확대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경전처럼 완전무결한 책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교과서를 경전처럼 여기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정제의 확대는 후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최근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독일어과와 아랍어과 교과서에 한 쪽 이미지컷으로 작은 지도가 5개 들어가 있다. 이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오류가 수업시간에 지적돼서 모 신문사로 넘어가는 등의 에피소드가 있었다. 또 다른 예로 2010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한 도서가 500종이다. 책 한 권당 몇 백 페이지에 달하고 2, 3번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만 해도 상당수가 요구된다. 현재 영어과와 국어과의 경우 교과서로 활용되는 종수가 590종 가량이 되고 전체는 1,000종 정도가 된다. 이 중 60%만 서울시 교육청에 인정심의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도 서울시 교육청은 600종을 3-6개월 사이에 심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더불어 지도서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서 또한 인정 물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감수 과정에서 아무리 세심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오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류가 하나 지적되면 교육청도 문책을 받고 수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교과서의 다양화를 요구하면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교과서가 오류 하나 없이 완전무결해야한다고 여기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인정제 확대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국·검·인정제의 구분은 개념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정제 또한 ‘심의있는 인정제’와 ‘심의없는 인정제’로 나누어져 있다. ‘심의없는 인정도서’의 경우 심의 절차는 없으나 교육청의 내용 검토 절차는 있다. 심의없는 인정도서도 교육청에서 내용 검토를 거친 후에 ‘○○시 교육청 인정’이라는 번호가 부여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의 심의없는 인정도서는 자유발행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심의없는 인정도서 역시 국가의 관리 하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국·검·인정 자체의 개념구분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고, 회소 교과 등 국가의 개입이 필요없는 도서에 관해서는 과감히 자유발행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인정심사에서는 교과서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인정심의 기간은 약 3, 4개월 정도로서, 이 기간 내 심사의뢰, 심사위촉, 1·2차 심사,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에 충실한 심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심사수당 역시 매우 빈약하다. 출판사가 심사비를 내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심사수당을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청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심사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 때문에, 인정도서의 확대는 교과서 질 제고에 기여하기보다 모든 교과를 통과시켜 주는 형식적인 장치로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도서 확대 이전에 인정심의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에 관한 문제

교육청 장학사들은 지도서의 구분고시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사용 지도서를 구분고시 하지 말자는 의견과 해당 교과서의 구분고시 방식과 동일하게 구분고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용 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말자는 입장으로는, 첫째, 지도서를 구분고시 하지 않고 교육과정 해설서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자는 의견과, 둘째, 지도서를 시장 원리에 맡겨 개발 여부조차 사용자(교사)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교과서도 교수·학습자료로 지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교과서에 대한 설명서에 해당하는 지도서를 구분고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를 반대하였다.

지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해당 교과서의 구분고시 방식과 동일하게 구분고시 하자는 입장으로는, 첫째, 지도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교사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

결과 둘째,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경우 지도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잘못 만들어진 지도서 때문에 수업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텍스트북 외에도 파워포인트 자료나 문항 등을 풍부히 제공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서도 일정 부분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더불어 검정 교과서는 지도서도 검정제로, 인정 교과서는 지도서도 인정제로 구분고시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 학년군별 교과서의 합책·분책의 문제

교육청 관계자들은 집중이수 대상과목은 합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음악, 미술이 학년군별로 합책이 가능하고, 사회·도덕·역사도 두 학기나 세 학기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년군별 합책이나 상하 분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합책할 경우 교과서가 무거워 휴대가 불편하다는 점, 합본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다는 점, 전·입학이나 학년군에 따른 시수 변동 등에 의해서 비체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4) 전문교과 교과서를 인정제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문교과 교과서를 인정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정제로 전환할 때 교과서 질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인정도서의 근본적 취지는 어느 학교든 원하는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제는 당해 학교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문교과와 같이 수요가 적은 교과는 이를 개발하려는 출판사가 거의 없을 것이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교과서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교과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심사기간의 부족과 심사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한 학년

에 과목당 종수가 10종 이상이기 때문에 집필진을 제외할 경우 심사위원회 자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기본교과를 인정도서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심사절차를 줄이는 방안(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사전 감수를 거치는 방안 등)과 심사위원을 충원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출판사 관계자

출판사 관계자들은 검인정제 확대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국·검정 혼용의 구분고시를, 중·고등학교의 경우 역사과를 제외한 전 교과에 인정제 확대에 찬성하였다.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협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인정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

가) 검·인정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

교과서 검·인정제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출판사 관계자들의 찬성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국정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국정제는 군국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이념을 주입하거나 후발산업국가에서 적은 투자로 산업을 키울 필요성에서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다양화와 자율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현 시대정신과 맞지 않으며, 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으로 개선하려는 현장의 교육 정신과는 배치된다.

둘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검·인정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검·인정제는 국정에 비하여 학교 입장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의 구분고시 제도는 다양한 교재나 교구 등을 요구하는 현장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검·인정제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검정 심사체제의 불합리성 때문에 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검정심사의 문제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심사에서 합격하기 위해 수요자 요구에 충실한 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하기보다는 검정심사 기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과서를 양산해 낸다는 데에 있다. 또한 출판사 입장에서는 검정심사에서의 탈락을 우려해 동일 교과에서도 다종의 교과서를 출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와 내부 경쟁이 가중되고 있다.

나) 학교급별 교과서 구분고시 방안

출판사 관계자들은 초등학교의 구분고시 방안으로는 국정제와 검정제의 혼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시기는 기본·기초 교육시기이므로 공통적인 국민의식을 이 시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 국정제가 필요하다.

둘째, 올해부터 검정제로 전환된 교과서가 국정으로 개발된 교과서에 비해 현저히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작정 검정도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셋째, 향후 집중이수제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인정제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검·인정도서가 확대되면 출판사에서는 이에 따른 인력과 개발비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 국정을 검·인정제로 전환할 때 교과서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데, 초등학교에서의 비싼 교과서는 아직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의 5, 6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부 교과목의 검정제를 3, 4학년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국정제로 두는, 국정제와 검정제의 혼용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중·고등학교의 구분고시 방안으로는 검정심사 개선과 인정제의 제도보완을 전제로 인정제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인정제 확대시 이념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념교과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국어 교과목의 경우, 이때까지 이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이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교과를 검정제로 두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검정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동일한 교과를 여러 종 만들게 됨으로써 내부 경쟁이나 부담이 가중되며, 따라서 이념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교과서의 경우 인정화하여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단, 이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역사 교과의 경우 인정제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중인 우리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념적 대립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역사 교과의 경우 인정으로의 전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사 교과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교과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인정도서 확대시 고려할 문제

출판사 관계자들은 인정도서의 확대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정도서의 확대시 인정도서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정제에서 질 관리 시스템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고 낙후되어 있다. 인정심사의 낙후성으로 인해 인정심사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지적 사항이 거의 없으며, 그 결과 사후에 오류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기본교과가 인정제로 전환된다면 무엇보다도 인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과서의 질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정제 하에서의 교과서의 질 관리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인정제 기본 정신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해 인정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하게 된 주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정제도 개선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정책 전체의 방향과 합치하도록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정제의 심사는 검정제에서의 공통기준과 같은 최저 심사기준으로만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정심사의 기준이나 관리 절차는 인정제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

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외형체제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도서에 CD를 첨부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하면 ‘경쟁사들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 실질적인 인정 절차가 인정제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인정제의 정신에 걸맞게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절차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현재의 인정제는 절차상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접수 및 심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정심사 접수는 학교장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일괄 접수를 받고 있고 있다. 인정교과서가 확대된다면 교육청의 처리 도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출원자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불편한 절차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판사 역시 인정심사 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정도서로 전환시 교과서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교과서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정제로 전환되면 교과서의 가격이 국정에 비해 약 2.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인정제 교과서의 주요 타겟이 될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교과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학년이 낮을수록 비싸도 양질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양질의 교과서라도 비싼 교과서는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직접 수요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정으로 전환할 교과는 시장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채택규모가 큰 교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장규모가 큰 교과는 검정제로 붙잡아두고 규모가 작은 것을 인정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정제가 확대되면 출판사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인정제가 확대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나 영업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출판사와 학교간의 음성적 거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밀하게 영업을 더 잘하는 출판사가 성장하면서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화의 대의명분만을 주장하여 무조건 인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자율과 통제를 결합시킬 것인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3)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 문제

출판사 관계자들은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로 포함시켜 구분고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구분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자유발행될 수 있도록 구분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우선 지도서 역시 구분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출판사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음원이나 자료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도서 역시 구분고시를 해야 한다.

둘째, 만일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지도서를 다 원하기 때문에 제작될 수밖에 없는 바, 미고시는 음성적인 제작으로 연결되어 출판사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불용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 측에서는 수업 관련 자료 및 지도서를 실제로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지도서를 구분고시 하지 않게 되면 음성적으로 제작 유통되는 자료가 많아질 것이고 출판사로서도 음성화된 경쟁이 심해져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지도서를 구분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출판사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가 인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 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도서에는 자율을 더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따라서 인정제가 확대되는 고등학교부터 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초·중학교로도 확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둘째,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지도서를 원한다기보다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서 미고시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교과서 합책·분책의 문제

출판사 관계자들은 교과서 합책은 교과서 외형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출판사 관계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군 개념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합책한다면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2년, 중·고등학교에서 3년간 한 권의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외형이 견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를 이처럼 합책할 경우 교과서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학년군별 합책이 가능한 교과는 기준 쪽수가 적고 집중이수제 대상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등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교과서는 기존처럼 학년당 또는 학기당 분책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좋다.

둘째, 불가피하게 기준 쪽수가 많은 교과의 교과서를 합책해야 한다면 휴대할 수 있는 활동책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워크북을 마련해야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별로 합·분책을 지정하지 않고 출판사에게 자율권을 주어 합책, 분권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심층면접

이 절에서는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와 시도 교육청 연구관(사)/전 교과부 교과서 담당 연구관(사)과의 심층면접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학교급별 교사 3명씩, 그리고 연구관(사) 3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였다.

<표 III-9>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심층면접 대상자
- 초등학교 교사: 3명 (5, 6학년 담임 교사)
- 중학교 교사: 3명(국어, 도덕, 역사 교사 각 1명씩)
- 고등학교 교사: 3명(국어, 수학, 가정 교사 각 1명씩)
- 연구관(사): 3명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주로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면담하였고,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주로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연구관(사)에게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국·검정도서를 검·인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면담하였다.

면담은 각 면담 대상자별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미리 피면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후 연구진이 이들을 방문하여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다.

가. 초등학교 교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중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첫째, 현재 도입된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영어,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의견, 둘째, 검정 교과서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셋째, 초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인정 교과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것이었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도입된 검정도서에 대한 의견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 도입된 검정 교과서(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3명의 응답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0> 현재 도입된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대한 의견

구분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초등학교 교사 1	좋아진 것이 거의 없음				
초등학교 교사 2	큰 차이가 없음	자료를 확보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	차이가 없음	활동이 좋아짐	차이가 없음
초등학교 교사 3	교사가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음은 좋으나 국정이나 검정이냐는 중요하지 않음				

이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도입된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아 국정 교과서에 비해서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국정이나 검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정도서 확대에 대한 의견

검정 교과서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3명의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 검정 교과서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찬반	이유
초등학교 교사 1	반대	다양성과 창의성은 교과서 문제가 아님. 국정교과서를 가지고도 일선 교사는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음. 출판사의 의도나 저자 성향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초등교육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기임.
초등학교 교사 2	반대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음. 교과서는 하나의 수업 자료일 뿐임.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고 교육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초등학교 교사 3	반대	교과서는 이윤추구와 분리되어 교육적 관심에서 집필되어야 함.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검정 교과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정도서 도입에 대한 의견

체육,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초등학교에 인정 교과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3명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2> 인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구분	찬반	이유
초등학교 교사 1	부분 찬성	기본교과에서 인정도서 도입은 반대함. 재량시간에 사용할 교재를 개발할 때 필요함.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채워 줄 교과서가 필요함.
초등학교 교사 2	부분 반대	학교와 교사의 동의와 요구가 있을 때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인정도서를 도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초등학교 교사 3	반대	시장경제 논리에 편승될 수 있음. 국정 교과서를 두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체육, 음악, 미술 등 기본교과에 인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재량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중등학교 교사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중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첫째,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인정 교과서 전환에 대한 의견, 둘째, 체육, 음악, 미술의 인정도서 전환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것이었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검정으로 전환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3명의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3>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인정도서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구분	찬반	이유
중학교 교사 1	찬성 (역사는 반대)	다양한 가치와 변화를 수용하고, 자유로운 교재를 통해 창의인성 교육의 발판 마련 가능. 역사 교과서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특수상황 하에서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여 객관적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음.
중학교 교사 2	반대	창의성보다는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검정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인정 도서의 경우, 상업성 위주로 흐름 가능성이 많음.
중학교 교사 3	찬성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반이 마련될 것임. 교과전문가로서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임.
고등학교 교사 1	찬성	교과서 개발 기간 충분히 확보 가능. 이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고등학교 교사 2	반대	다양한 교과서 선택의 부담, 심의 인정 부담 가중. 인정시 매년 개발 필요 발생하고 개발 시간이 부족함.
고등학교 교사 3	반대	집필 기준과 심의 필요. 책임 있는 집필 필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를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거나 국·검·인정 구분을 아
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3명의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4>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를 심의없는 인정도서나 자유발행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구분	찬반	이유
중학교 교사 1	찬성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단, 교과서의 질과 가격,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중학교 교사 2	반대 (심의있는 인정도서 찬성)	창의성만 강조하다 기본적인 교육적 목표와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 있음.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짐.
중학교 교사 3	찬성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지성보다 심미를 추구하는 교과이므로 교사의 주관적, 자율적 판단이 보장되어야 함.
고등학교 교사 1	찬성	수능과 무관하므로 자유롭게 해도 좋음. 학부모들의 교과서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등학교 교사 2	찬성	활용되지 않는 교과서 불필요함. 교사들의 재량과 다양성이 중요함. 자유발행제 찬성.
고등학교 교사 3	반대 (심의있는 인정도서 찬성)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만 심의 없다면 질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의
심의없는 인정도서나 자유발행제(미구분교시)로의 전환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지만, 반

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다. 편수 담당 연구관(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작과 발행의 실질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과서 관련 업무를 이전에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사) 3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중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첫째, 각급 학교 교과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둘째, 각급 학교 교사용 지도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셋째, 각급 학교의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관련한 기타 의견에 대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 교과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학교급별 교과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연구관(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II-15> 학교급별 교과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구관(사) 1	모두 검인정으로 전환, 예술교과는 검정으로 전환 (이념과 관련된 소재를 넣을 수 있으므로)	.	.
연구관(사) 2	모두 검정으로 전환	역사는 검정도서, 다른 교과는 모두 인정 도서로 전환	전문계고와 특목고는 자유발행, 인문계고는 예체능, 기술가정, 교양 교과부터 인정도서로 전환
연구관(사) 3	국어, 도덕은 국정도서, 나머지는 검정도서로 전환	국어, 도덕은 국정도서, 나머지는 모두 검정도서로 전환	일반교과는 국어, 도덕 빼고 모두 검정 도서,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 도서로 전환

2) 각급 학교의 교과용 지도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학교급별 교과용 지도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연구관(사)의 의견은 다음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학교급별 교과용 지도서의 국·검·인정에 대한 의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구관(사) 1	교과서와 동일한 발행제도 적용	.	.
연구관(사) 2	교과서와 함께 동일한 발행 제도 적용(검정)	자유발행	자유발행
연구관(사) 3	통합교과, 국어, 도덕은 국정, 나머지는 검정	국어, 도덕은 국정도서 나머지는 검정 도서	일반교과는 국어, 도덕 빼고 모두 검정 도서,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 도서, 선택과목은 자유발행

3) 각급 학교의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관련한 기타 의견

연구관(사)의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관련한 기타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I-17> 연구관(사)의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관련한 기타 의견

구분	기타 의견
연구관(사) 1	교과서 채택에 관한 연수와 행정을 강화할 필요 있음. 지방의 교과서 출판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연구관(사) 2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의식 전환이 필요함(맞춤형 교과서, 지도 자료). 교과서 심사 대행 및 교과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시도 간 공동개발, 교과서 포럼 개최 등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조성해야 함.
연구관(사) 3	초등 통합교과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다양한 버전이 필요함 (국정으로 개발하더라도 위탁기관을 달리하여 2종 이상 개발 필요)

4. 토론회

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향을 탐색하고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연구자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 교과전문가, 출판사 관계자 등 토론자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요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8> 토론회 주요 현황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지정 토론자
1차 토론회	2011. 5. 31. 서울교육대학교	150여명	초등학교 교감 1명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장 1명 교육청 장학사 1명 출판사 관계자 1명 대학 교수 1명
2차 토론회	2011. 7. 7. 서울교육대학교	120여명	초등학교 교사 1명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교육청 장학사 1명 출판사 관계자 1명 대학 교수 1명

가. 1차 토론회

1) 주제발표 내용

1차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첫째, 교과서 구분고시의 의의, 둘째, 각 학교급별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 셋째, 교과서 합권·분책 개발 문제, 넷째,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는 1)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전 학년으로 검정을 확대하

는 방안, 2) 5-6학년의 전 교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는 1)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2)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는 1)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과 심화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2)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3) 고등학교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 4) 전문교과는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1) 초·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2) 중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3)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도입에 따른 합책·분책 개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과용도서 합책·분책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3-4학년군, 5-6학년군에서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하도록 하고, 1-2학년군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하는 방안이다. 중학교의 경우 1-3학년군에서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해서 국·검·인정 도서간의 위계적 서열 체계 해체,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의 내실화,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 개발 등의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다.

2) 지정토론자의 토론 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와 출판사 관계자, 교과전문가가 주제발표에 대

한 지정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발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한 찬, 반 의사를 밝히거나 교과서 개선 및 검인정제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교원

외국 교과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보다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하고, 둘째, 교과서의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되어야 하며, 셋째,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가 반영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넷째, 제시 방식 역시 구체화되어 학생과 교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지정토론자는 한국 교과서의 이 같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초등학교에서 검정 도서로의 대폭적인 확대’ 및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였다. 더불어 교과서 구분고시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첫째,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서도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교사용 지도서 역시 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의지하기보다는 사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지도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지도서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인정으로 전환한다면 다양한 지도방법과 풍부한 자료가 공유, 활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확대할 때는 국가 정체성과 내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남북한 분단 상황,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이성 등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다양성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도 동시에 도모해야한다.

셋째, 합책 및 분책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완전히 자율에 맡기게 되면 학년간 교과내용의 연계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교과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과서 심사 요건의 탄력화, 교과서 연구 인프라 구축,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요구된다.

나) 중학교 교원

‘산 지식’, ‘창의적인 교육’ 등을 근거로 교과서 선진화, 검인정 확대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과서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교과서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요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정교과서의 확대가 창의적 교육이나 산 지식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검정 심사를 정부의 간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인정제가 창의적 교육을 필연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여기기보다 학교급의 성격에 맞는 교과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교과서의 다양화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외 잡무가 과중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교과서를 탐색하여 지도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잡무 경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교사에게 지나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별학교나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 현장 교사에게 2차적인 업무부담(교과서 채택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책임)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교과서의 선진화 측면에서 볼 때 선진화의 기준을 하드웨어에 둘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보급된 ‘e-교과서’의 경우도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시키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개 학생들에게 CD를 배포하는 것보다 각 출판사가 운영하는 교과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합책·분책의 문제는 교과서를 늘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구체

적으로 실감하는 문제이다. 교과서 내용과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좀 더 유연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다) 고등학교 교원

고등학교에서 인정도서의 확대는 자율성 보장, 절차의 간소화, 교과서 자체 제작의 촉진, 교육환경의 다양화 더 나아가 학생의 창의력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 방향으로선 발표문 3안의 ‘고등학교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4안의 ‘전문교과는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교과서 구분고시 정책이 현장에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인정도서 제작에 있어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양·확보해야하며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행 인정 절차는 교과서 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인정도서가 확대될 경우 검정 시 적용된 규정 역시 변경되어 인정심사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정제 자체 문제를 고려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인정으로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둘째, 인정심사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인정심사기관이 16개 시·도 교육청임을 감안할 때 각 기관간의 심사의 형평성 유지, 기관 간 정보교환 및 협조 유지 등 심사기관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교과용도서 마련과 질 관리를 위하여 가격, 페이지, 지질 등 효과적인 규정 마련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은 단순히 심사체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많은 교사와 전문가의 교과서 개발에 관한 관심, 참여와 함께 전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질 높은 교과서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인정제로의 전환 시 교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바, 교과서 구입 경비 지원, 또는 교과서 대여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학교는 도덕성, 청렴(금품수수 등 부당행위 금지) 준수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넷째,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딱딱하고 압축된 교과서로부터 풍성한 스토리 중심의 교과서로 변모되었으면 한다.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개편된 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참고서와 비교하여 'best seller'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특히 대입선발과 연관이 높은 과목은 양질의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서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교과서가 더 많이 산출될 필요가 있다.

라) 교육청 관계자

초등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는 5-6학년 전 교과를 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하며, 더 나아가 3-6학년 교과서를 모두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구분고시와 관련해서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등학교 일반교과는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 전문교과는 각 교과군 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할 교과를 선정하여 국정으로 관리하고 기타 과목은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교사용 지도서는 초, 중, 고 모두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적합하다.

교과용도서의 합책·분책 개발 측면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학년군별로 합책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중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정, 검정, 인정 순으로 도서들이 위계적 서열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교과서 사용이 아니라 교과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관련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단 검정이나 인정으로 전환했을 경우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들을 국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정도서의 존재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검정도서의 필요성을 재고해보아야 한다. 검정도서를 폐지하고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대신, 인정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수’를 의무화하여 인정도서의 질 관리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인정도서 중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교과서가 많은데 이것을 과연 인정도서로 볼 것인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정 심사를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 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인정 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교과서,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며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과서는 일차적으로 질 담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자유발행제’가 아닌 ‘자유선택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유선택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과서를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출판사 관계자

교과서 구분고시 제도 변경 이전에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첫째, 교과서 구분고시의 목적 및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성공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가 있는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요건은 무엇이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 구분고시가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정제 확대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인정심의 시 교육과정 적용 기준을 검정 교과서 정도로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느슨하게 확인할 것인지 등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셋째, 수용자 실태와 요구 분석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올해 검정으로 전환된 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의 초등 검정 교과서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또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선정 및 유통 상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검정 교과서는 학교 전시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정 교과서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교과서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주문 면에 있어서도 검정 교과서는 전수 NEIS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정 교과서는 NEIS, 출판사 총판, 교과서 공급소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3원화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 밖에 교과서 수익금도 주문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불공정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급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인정 교과서의 확대에 따라 큰 혼란이 야기되어 교과서 적기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다섯째, 교과서 시장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과서 시장 규모와 교과서 총 매출액은 출판사의 전문성, 교과서 개발 투자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판사 간의 과잉 경쟁과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독과점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교과서 개발 기간은 충분 또는 적정한지, 교과서 개발, 가격 결정, 외형 체제, 심사자율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인지, 교과서 질 확보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교과서 예산 대폭 증가 및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른 해결책은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방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전 학년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5-6학년의 전 교과로 검정을 확대할 때 학년군간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과서 외형 체제의 학년군별 생경성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

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 역사를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국책교과인 국어, 도덕을 검정으로 전환하였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사회는 검정이므로 본 제도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인정 교과서로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 역사를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도 된다. 다만, 선택 교과서 중 교과서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교과는 국정 또는 각 시·도 개발 인정 교과서로 두어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지도서의 검정화가 필요하고 영어의 학생용·교사용 전자저작물도 현행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도서 의존율이 높아 물량 규모가 큰 상황인데 이를 인정으로 풀게 되면 출판사 과당 경쟁 및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도서 의존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역시 교사용 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책·분책 문제와 관련하여 외형 체제 자율화, 시장 원리를 반영하여 합책·분책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책이 가능한 교과는 교육과정 집중 이수 시 수업이 축소되는 교과나 학년 풀림이 큰 교과 중심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음악, 미술은 학년군 단위로 합책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한문이 합책 대상으로 적합하다. 교과서 합책·분책을 포함하여 외형 체제 역시 자율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외형 체제를 자율화하였다고 무분별한 체제의 교과서가 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출판사에서는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소비자(학생 및 교사)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원하는 모양의 교과서를 펴낼 것이다. 자율화는 교과서에 개념을 변화시켜 교과서를 서책 일변도에서 음반·영상·전자저작물·웹(Web)·앱(App) 등으로 교과서 개념을 확장시킬 것이다.

인정심의 체제에 대하여서는 인정 도서의 취지를 살리려면 느슨한 심의 기준이 요구된다. 다만, 교과서의 질과 창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인정 적격 판정을 전제로 수

정·보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검정 기준에서 공통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과별 기준은 느슨하게 적용하여야만, 창의성 있는 다양한 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자율화 정책에 대하여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 사전 심의’, ‘가격 조정 권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 조치이며, 자유발행제를 향한 제도 개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격 대비 질을 평가하여 선택 사용할 것이므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 교과전문가

첫째, 교과서 구분고시의 방향은 학교급별로 통일된 교과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며, 더 나아가 의무교육기간의 교과서 제도는 같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분고시가 달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만약에 굳이 학교급별로 교과서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 교육의 특성상 의무교육 기간과 의무교육이 아닌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일한 교과서 제도를 적용하고, 교과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 검·인정으로 발간되기 어려운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정제로 발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보다는 검정도서로, 검정도서보다는 인정도서로 교과서 제도가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국정이 대부분이므로 검정제를 통해 더 좋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과거의 국정도서에 비하여 현재의 검인정 도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인정도서로의 전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검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검정도서의 경우는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획일적인 교과서가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획일적인 검정 기준을 가지고 선별, 탈락시키기보다는 수정지시를 통하여 다양한 교과

서를 확보하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등학교 교과서는 예외적인 교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할 수 있다. 동일 학교급에서 교과에 따라 인정도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모두 인정도서로 하되 특별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수정보완 지시를 통하여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의 합책과 분책의 개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교과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학년군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의 위계와 학습량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과 매우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 2차 토론회

1) 주제발표 내용

2차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첫째, 교과서 구분고시 연구의 맥락 및 연구 방법, 둘째, 교과서 구분고시에 대한 주요 쟁점, 셋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넷째,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시안을 학교급별로 제안하였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시안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 검정도서를 확대한다. 이에 초등학교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검정으로 구분고시하며, 이는 검정을 초등학교 3-4학년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등학교의 경우 인정도서를 확대한다.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을 제외한 모

은 보통교과를 인정으로 구분고시 하여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한다.

셋째, 지도서 구분고시를 최소화하여 중등학교의 지도서 구분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지도서는 미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학년군의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 하되 국가 차원에서 권(분책) 수를 지정한다.

다섯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 실기·과제 관련 과목은 구분고시하지 않는 것(미고시)을 원칙으로 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 구분고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국정과 검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하며 기본 생활이나 학습 습관 형성에 있어서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는 국정을 유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으로,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는 검정으로 구분한다. 2)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일하게 구분한다. 3) 수업시수와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한다. 학년군별 권(분책) 수는 교과에 따라 4권, 2권, 1권 등으로 구분한다. 그 밖에, 국어, 수학, 과학은 1교과 다교과서(보조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구분고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검정과 인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국어, 사회(역사), 도덕은 검정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는 인정으로 구분고시 한다. 2)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 도덕은 검정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는 인정으로 구분고시 한다. 지도서의 권(분책) 수는 교과서의 권수와 동일하게 하되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은 예외로 한다. 3) 수업시수, 집중이수 가능성,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한다. 학년군별 권(분책) 수는 교과에 따라 6권, 3권, 2권, 1권 등으로 구분고시 한다. 그 밖에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 구분고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검정과 인정

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국어(일반교과), 사회(역사, 도덕 포함)의 일반교과는 검정으로, 나머지 모든 일반 교과와 심화 교과와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인정으로 구분고시 한다. 2) 지도서는 구분고시를 최소화한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동일하게 국어, 사회·도덕의 일반과목은 검정으로 구분고시 한다. 또한 수학, 영어, 과학에서 과목의 특성상 지도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한하여 지도서를 인정으로 구분고시 한다. 3)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으로 구분한다.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인정도서의 심의 유무 등은 시·도교육감의 결정 권한으로 위임한다. 또한 시장성이 없는 인정도서는 출판사에 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자를 공모하여 개발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 학년군별 권(분책) 수는 1권으로 구분고시 한다. 그 밖에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발표자는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해 인정 신청 자격 완화, 심사·채택·공급 일정 조정, 인정심사의 충실성 확보, 인정 도서의 선정 절차의 명문화 등 인정 체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지정토론자의 토론 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관계자, 출판사 관계자, 교과전문가가 주제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교과서 구분고시 연구의 맥락 및 연구 방법, 교과서 구분고시에 대한 주요 쟁점,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기본 원칙과 구분고시 시안 등에 대해 찬, 반 의사를 밝히거나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교원

교과서 구분고시 시안을 살펴볼 때 교과서, 지도서, 보조교과서, 지도서 보조자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고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도덕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합책하는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와 경우 교과서의 양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도덕교과는 교과와 특성상 교과서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도덕이란 절대로 어느 학년에 몰아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이수제라는 부적절한 틀 안에서 3-4학년용 두 권, 5-6학년용 두 권을 만들어 어느 학년에 몰아서 가르치는 것은 3학년은 도덕을 가르치고 4학년에서는 도덕을 포기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교과목의 경중을 배당 시간수로만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따라서 기존처럼 한 학기에 한 권 씩의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져서 매 학년 매학기 도덕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의 경우 지도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처럼 학기당 한 권씩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사가 일 년 동안 해야 할 수업 시수는 약 1000시간 정도이다. 모두 다른 수업지도안을 1000번이나 짜야 하는 것이다.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한 개의 지도안으로 5반을 수업한다고 하면 실제로 지도안 수는 초등의 1/5 수준이다. 지도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기별로 제공되던 지도서를 학년 당 한 권으로 제한할 경우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질 수 없고,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시안에서는 ‘국어활동’이라는 국어과 보조교과서가 생기고 ‘생활의 길잡이’라는 도덕과의 보조교과서가 사라졌으나,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활의 길잡이는 초·중·고 학교의 수백 종의 교과서들 중에서 도덕적 감동과 깊은 사유, 올바른 판단과 실천 등의 이야깃거리를 담은 유일한 책이다. 삶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할 거리를 담은 책 한 권 주지 못하고 없애버린다면 이에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멀티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에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위해 멀티미디어와 각종 자료가 담겨진 CD 제작은 모든 교과에 필요하다. 그러나 시안에서는 즐거운생활, 국어, 사회, 과학, 음악, 영어 과목에서 보조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타 과목에서 역시 CD자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보조 자료의 유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중학교 교원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학교 교육의 자유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교과서 구분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중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의 인정도서화 방안에 찬성한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도서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어, 사회, 도덕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걱정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의식 성숙, 교과서 집필자의 자정력, 교과서 선택 시 교사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 다양한 수용자(학생, 학부모)의 모니터 등으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다. 단, 검정으로 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느슨한 검정제도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점진적 개선 방안이라고 본다. 역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특수상황 하에서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가치관과 사실을 강요할 여지가 있어 검정 교과서로 객관적인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용 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교과서가 심의 있는(또는 없는) 인정도서이거나 자유발행 교재가 된다면, 교사용 지도서는 그보다 한 단계 제약이 덜 해도 될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도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불필요한 설명 위주여서 오히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답과 풀이, 애매한 내용의 지도방향, 참고 및 추천 자료 목록,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글, 그림, 전자자료, 평가문항 등 포함) 등 요긴한 내용만을 담아 효율적이고 교사가 애지중지하는 지도서가 되는 것이 좋다.

셋째, 학년군별 교과서 권(분책)수 구분고시에는 반대한다. 교과서 권(분책) 수는 해당 교과서의 편집 특성, 학습 내용 구성에 따라 개발자·출판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교과에 다양한 합책, 분책이 출판되어야 각 학교도 당해 교육과정 특성,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책 또는 분책 교과서에 최소 필요 수업시수, 총 권수 등 표기하면 자율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조교과서 개발 방안에 찬성하나 현재 CD형태로 제공되는 e-교과서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하거나 또는 다양한 참고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수록한 e-교과서라야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검정의 인정으로의 전환에 즈음하여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검정 심사와 인정 심사 사이의 간극을 조절하여 접합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 교과서 업무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서 인정 심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서 관련 학교 업무 및 법적(저작권 등) 지원이 가능한 체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시도 교육청의 인정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성 및 인력풀 확보로 인정교과서의 질 제고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도서 선택 시 학교현장의 업무는 간소화시키되 채택과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모니터가 요구된다. 교과서 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낙후 지역 지원 대책,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선택 교과서의 격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창의성을 강조한 교과서, 서책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교과서, 참고서 없이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세련되고 흥미로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단 교육수요자와 현장교사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되,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인적·경제적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과 필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창의성을 강조한 교과서의 내용과 각종 평가, 입시의 내용이 이질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다) 고등학교 교원

첫째, 교과서 구분고시에 대한 시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인정으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획일적 국가통제라는 구시대적 인식의 전환과 교육의 효율성 저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면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은 특정교과의 교과적 특성과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현재에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종류가 많아(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9종)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만일 교과서가 인정으로 전환될 경우 교과서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되어 학교에서 교과서 선택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인정도서에 대한 선정의 업무가 과중되어 졸속적인 교

과서 채택이 벌어질 가능성 있고,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사회(역사포함), 도덕의 인정도서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와 도덕의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국정, 중학교는 검정, 고등학교는 인정으로 통일성 없이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와 도덕 교과서의 특성상 모두 검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검정과정의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정으로 구분고시 되는 교과서의 지도서는 검정으로, 인정으로 구분고시 되는 교과서의 지도서는 인정으로 구분고시 하는 것이 교과서의 논리에 합당하다.

다섯째, 수요가 적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개발을 보조·지원하여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도서(전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와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국정으로 명명하지 않고 인정도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섯째, 현행과 같은 인정심사체제는 심사규정과 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합격률이 100%가 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일반교과가 인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정심사 과정이 교과서의 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 교육청 관계자

인정도서의 확대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에서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검·인정도서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 검정, 인정도서 모두가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되는 만큼, 국정이나 검정이 인정도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과목을 인정도서로 적극 전환하여 발행사들이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 도덕을 인정 도서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현직 교수, 교사 등 교과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인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질 담보는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따른 예산지원과 심사를 강화하여 인정제를 보완하면 인정도서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다. 제2외국어, 전문교과 등 수요가 적은 과목의 인정도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학년군별 교과서 권(분책)수 구분에 있어서는 과목별로 권수가 다를 경우 아직 교과서의 다양성이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의 과제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더불어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용 보조자료이므로 초·중등 모두 교과용도서에서 제외하여 자유발행으로 자유롭게 출판되어야 한다.

셋째, 인정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심의 유무에 의한 인정도서 구분의 폐지 방안에 찬성한다. 인정도서를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의의 유무가 교과서 질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목록에 심의번호를 기록하는 식의 행정업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인정심사는 현행처럼 6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시도의 인정도서 심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개발된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수정·보완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정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정도서란 학교의 교육과정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교과용도서인 만큼 발행사에서 출원한다면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인정도서 심사비는 대부분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심사비를 청구할 경우 학교 요청과 발행사 요청을 구분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마) 출판사 관계자

초등학교에서 검정 도서 확대에는 동의하나, 이념 논쟁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의 인정 도서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역사과에 대해서는 국정도서로 전환하되, 1종이 아니라 다종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종류의 국정도서를 탈피하여 편찬기관 공모를 통한 복수의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검·인정 교과서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교사용 지도서는 구분고시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과서로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교과의 현장 전문가이고 교사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축적된 자료만으로도 훌륭히 지도할 수 있다. 특성화고 및 전문교과의 인정제 전환은 적합하지 않다. 현행 교부금으로 발행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계 인정도서가 매우 허술하고 조잡한 것이 그 이유이다.

검·인정제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 출판의 과정(연구·집필 → 편집 → 생산 → 공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내용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쟁점화하여 인정도서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 수요자(학생,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교과서 전문 발행사 육성 정책이 반영되는지, 인정도서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화보다는 다중화로 변모할 가능성, 현재와 같이 한 출판사에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발행(한 교과목에 2-4종씩 개발하는 실정임)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바) 교과전문가

검·인정 교과서의 확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검·인정제 확대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 추세인 정부의 간섭 및 규제 완화라는 흐름에 맞추어 교과서도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바꾸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특히 수학 교과에 있어서 인정제의 확대 도입은 창의적 인재 양성, 수학 경쟁력 향상, 미래형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준, 내용, 소재, 표현, 기술 등에서 다양화되고 인쇄, 지질, 제본, 크기, 부속 자료 등에서 향상된 친근감 있고 소장하고 싶은 교과서의 출현도 기대한다. 인정제로의 전환은 매번 논란이 많았던 검정 심사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 등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현 시안의 문제점은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인정제 교과서의 모습과 학교 현장에서의 인정제 교과서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인정제 교과서의 품질 유지와 초-중-고 급간 계열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인정제 확대 도입을 위한 보다 치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안에 대해 초등은 국·검정의 체제 유지, 중등은 인정제의 대폭 확대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 도덕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의 인정제 확대’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 제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의구심이 간다.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학문적 연구 성과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넷째, 인정제의 강점인 다양성은 복잡성의 증대라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평가와 입시가 크게 문제시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가령, 개인차가 큰 수학 교과와 특성상 공통 내용의 추출 문제, 입시에만 유리한 교과서 등장, 출제의 수준과 범위 등에서 수많은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정제는 입시를 준비할 때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여야 한다는 왜곡된 관점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량 증가와 사교육 증대와 같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인정제로 다양한 교과서가 양산되면 자칫 교과와 위계성을 해칠 수 있다. 내용의 위계가 뚜렷한 수학 교과와 경우 다양한 교과서가 생기면 학교 간 학습 내용의 차이가 누적될 수 있고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성 유지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정제가 확대될 경우 내용의 위계성, 계열성,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연결 트랙’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교과서 선택에 참고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수학 교과와 경우 교과서의 분책은 대체적으로 초등은 학기 당 1권, 중등은 학년 당 1권을 제안하고 있고 이는 비교적 합리적 제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성을 제공하자는 의도라면 교과서의 무게나 분량 또는 제본 형태를 저자·출판사의 재량에 맡겨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일곱째, e-교과서 문제는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추후 고시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수학교과와 경우 e-교과서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교수자가 IT 수단을 통해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대화가 가능한 환경 즉 smart interface가 제공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 이미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online 학습 프로그램이 언어 관련 프로그램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e-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도 실제로는 종이교과서를 병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여덟째, 인정 심사 제도에서는 교과서의 품질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인정 도서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제도를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인정 교과서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교과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인정 방안의 제안이 필요하다. 즉 인정제는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가 다소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의 자율성, 독창성, 수요자 요구 수용 가능성 등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일부 인정교과서의 부실(내용의 부실, 외적 체제의 부실: 외형, 인쇄, 분량, 가격 등)과 인정심사 제도의 부실(책임성, 인정 기준, 인정 절차 등)을 거울삼아 타당한 표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교과서를 상시적 심사-수정-보완-재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제안한다. 또한 교과서 간 내용, 수준과 양의 차이를 얼마나 허용할 지에 대한 교과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수학 교과와 같은 경우는 강화된 인정심사 제도를 제안하며 이후 품질 안정화 수준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아홉째, 교과서의 직접적 개발 당사자인 저자 및 출판사의 윤리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 출판사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속에서는 거대 자본을 투기적 성격으로 투자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반면 인정제 교과서의 경우는 소액의 개발비로 부실한 교과서를 양산해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요 교과목의 교과서가 인정제로 전환되면 인정제 교과서에 대한 개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교과서 발행비의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문제, 시장 논리에 의한 거대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 경제성이 적은 일부 교과목의 출판 기피 현상, 출판사의 부실에 의한 교과서 품질 개선 노력 회피 및 공급 중단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인정제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자 및 출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전문 출판사, 전문 저자 등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장하고 싶은 교과서’의 출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정제 교과서의 다양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단일 교재로의 선택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와 관련한 주요 쟁점

이 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토대로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다룰 주요 쟁점은 첫째,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확대 방안, 둘째,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방안, 셋째, 교사용 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넷째,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방안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견,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 연구진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확대 방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는 오랫동안 국정제를 유지해 왔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 국가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 고시를 통해서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 영어과에서 검정제를 도입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영어과 도서는 다시 국정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일부 교과에 검정제가 도입되었다. 3-6학년의 영어, 5-6학년의 실과,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와 지도서가 검정으로 고시되었다. 그 결과 2011년 3월부터 초등학교 영어(3-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이하 5-6학년)에서 검정도서를 활용하고 있다.

2010년 1월에 발표한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인정도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 동안 모든 교과를 국정으로 유지해오다가 일부 학년, 일부 교과에서만 검정을 도입한 상태여서 초등학교에서 교과용도서의 구분 관련 쟁점은 인정도서를 도입/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검정도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물론 국정제를 곧바로 인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국정제에서 반드시 검정제를 거쳐 인정제로 나아가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전문가 협의회와 심층면접에서도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초등학교의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검정도

서를 사용한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 활용과 관련된 실태조차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인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다소 성급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정도서로 전환이 가능한 과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였지만, 주요 쟁점은 검정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검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집단간에 뚜렷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과 일부 출판사 관계자들은 현행의 발행체제 즉 국정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과, 일부 학년에 한하여 검정제를 적용하는 국·검정 병용체제를 찬성하는 반면에 교과전문가 등 나머지 집단에서는 검정제의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국정제를 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검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찬성 의견/논리

- 국정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을 전면 폐지하고 검·인정도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국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최빈국이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 교과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 및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에게는 교과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반대 의견/논리

- 초등학교는 학교 교육의 초기 단계로 교과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이나 검·인정이나 등의 발행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느냐이다.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교과서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 기 개발된 검정 교과서를 이전의 국정 교과서와 비교할 때 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일부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이 더 부실해졌다.
- 국정을 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데 반하여, 검정제 도입으로 인한 교과서의 채택, 공급 및 관리 관련 업무 등은 과다하게 늘어난다.

□ 연구진의 기본 입장

- 연구진은 초등학교에서 국정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검·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국정제’라는 표현이 지니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국정제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특히 2011년 1학기 현재 초등학교에 처음 도입된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5-6학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과히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검정 전환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외형체제만이 약간 좋아졌을 뿐 나아진 점은 거의 없으면서도 검정 교과서 관련 업무는 매우 많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정이 주류를 이루면서 일부 교과, 일부 학년에 검정제를 적용하는 현행 체제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검정제의 확대에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다만 검정제를 확대할 경우 현재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는 교과에서 3, 4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확대 방안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 중·고등학교에서 국정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개발할 검·인정 도서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더 나아가 중학교 3개 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임에 따라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의 교과서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출판사 관계자의 지적대로 현재의 우리나라 교과전문가나 출판사의 역량을 고려할 때 중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도 과부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가 늘어날 경우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구분고시에 따른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적용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연구 개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2011년 8월 중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가 이루어지면, 2013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새 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2012년 3월까지의 교과서 개발을 마치고 검정심사에 출원해야 한다. 교과서 개발 기간이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정을 통해서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초등학교에서는 검정을 최소한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5개 교과는 국정으로 구분하되,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개 교과는 검정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재 5-6학년에 적용 중인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경우 검정을 3-4학년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영어는 이미 3-6학년에 적용하고 있으며, 실과는 3-4학년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2.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방안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는 오랫동안 국정제와 검정제가 병용되어 왔다. 제3차 교육과정기인 1973년에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국정으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어, 도덕, 국사는 국정으로, 나머지 교과들은 검정으로 구분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부터 사회과가 다시 국정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들어와 국어,

도덕, 사회 등 중등학교의 국정도서가 모두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 현재 중학교의 생활외국어 5종과 고등학교의 보통교과 중에서 아랍어 I, 러시아어 I, 안전과건강 3종이 국정으로 남아 있다. 이들 국정도서는 교과서의 수요가 적어서 시장성이 없어서 정부가 교과서를 개발해 준다는 의미에서 국정도서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등학교의 보통교과가 대부분 이미 검정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구분안 개발 연구에서 주요 쟁점은 중등학교의 보통교과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 보통교과 중 10개 기본교과(공통과목)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개발한 적은 거의 없었다. 2010년 1월에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정 구분한 고시안에서 고등학교 과학이 인정도서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중등학교 기본교과의 인정 심사 경험은 2010년에 인정심사가 이루어진 고등학교 과학이 유일한 것이다.

중등학교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국어, 도덕, 국사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즉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검정의 경험도 충분하지 않은 국어, 도덕, 국사는 검정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교과에 대해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였고,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특별히 우려된다면 국사만 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도서화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중등학교에서 국어, 도덕, 국사 등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찬성 의견/논리

-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해석의 편차가 큰 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도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정도서도 검정심사보다 완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인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교

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인정 확대 정책은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중등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현재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검정제에서는 교과서 출판사나 저작자들은 검정심사에 합격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정제를 인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국어, 사회, 도덕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면 이념 편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이들 교과들을 검정으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지만 국사를 제외하고는 우려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자의 자기 검열 등이 작동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념 편향성 논란에 연루된 교과서는 학교에서 채택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어, 도덕, 사회를 인정으로 구분하더라도 문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 반대 의견/논리

-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 우리는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이념적 갈등을 경험한 바 있는 국사 외에도 국어에서는 문학작품 선정, 사회에서는 경제관련 내용, 도덕에서는 이념관련 내용 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교과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정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중등학교 보통교과(특히 기본교과) 도서의 인정화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현재 고등학교 과학만 인정심의 경험이 있음)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국어, 사회, 도덕까지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정제는 수요가 많은 보통교과 또는 기본교과에 대한 심의제도라기보다는 소수의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보충 교재 등으로 활용할 도서를 심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학교처럼 모든 학생들이 사

용하는 기본교과의 교과서를 심의하는 제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교과의 도서를 심의할 인정제는 이전의 인정제와 달라져야 하며, 새로운 인정제가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심사의 경험조차도 많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까지 인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교과서의 질 관리나 행정의 편의성·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정제의 무모한 확대보다는 검정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예컨대, 엄격한 검정기준과 절차 때문에 교과서가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면 검정기준과 절차를 다소 느슨하게 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이른바 ‘느슨한 검정제’(‘연성 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정제를 인정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곧바로 교과서 질 개선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상의 복잡성과 문제 발생 가능성만을 키울 수도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의 도서를 인정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는 검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연구진의 기본 입장

-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중등학교에서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수요가 많은 기본교과의 교과서에 대한 인정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등학교의 대부분의 교과가 인정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인정심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의 인정제는 소수의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보충 교재 등으로 활용할 도서를 심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과서 사용 6개월 전에 인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정도서를 사용할 학교장이 인정심의 신청을 시·도 교육

감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본교과서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구분할 경우 현재의 인정심의 제도는 더 이상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6개월 전에 인정심의를 신청할 경우 기한 내에 인정심사, 교과서 채택, 인쇄 및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교과서를 시·도 교육감이 인정심의 한다는 것이 적절한 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기본교과에 대한 인정심의 경험도 거의 없고, 이에 적합한 인정체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인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 따라서 연구진은 인정심의 실행상의 문제 때문에 중등학교의 기본교과서의 인정화는 두 단계를 걸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단계로 국어, 도덕,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인정화하고, 이들 교과의 인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두 번째 단계로 국어, 도덕, 사회도 인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교사용 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교과용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하고, 교사용 지도서는 해당 교과서와 같이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로 국정을 검·인정화 함에 따라 검·인정 심사대상 도서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검정 수수료가 대폭 상승하면서 교사용 도서의 검정심사는 교과서 출판사나 검정심사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는 인정도서의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정도서의 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다르게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검정으로 구분하면서 지도서는 인정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0년 1월에 교과서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한 수정 구분고시안에서는 중학교의 10개

기본교과의 교과서는 모두 검정으로 구분하고 지도서는 모두 인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10개 기본교과에서 공통 성격을 지닌 교과서는 과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으로 구분하고, 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도서(국어, 사회, 도덕 등)와 심의없는 인정도서(영어, 수학 등)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지도서를 교과서와 달리 구분하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지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교과서는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학생용 학습자료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도서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만이 사용하는 교사용 교수자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 교과서의 상당수를 인정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도서는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아예 구분고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찬성 의견/논리

-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학생들이 활용하는 이른바 ‘학생용’이지만, 지도서는 교사들에게 배부되어 교사들이 교수용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교사용’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지도서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도서는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는 도서인데, 이미 심사를 받은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는 지도서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 심사에 해당한다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 지도서를 심사할 경우 지도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자료나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지도서가 불합격할 경우 교과서도 자동으로 불합격되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나 저작자는 지도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한다. 그 결과 지도서는 획일화되고 무미건조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 중등학교의 기본교과의 상당수가 인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교사용 지도서까지 인정심의를 수행하기에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인정심의 업무를 줄여주는 행정적인 편의성의 차원에서도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심사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지도서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나 교사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지도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해 보인다.
- 다만 한 교사가 전 교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서 의존도가 큰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일하게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서와 지도서를 서로 다르게 구분할 경우 교과서는 국정인데 지도서는 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교과서는 검정심사를 받는데 지도서는 인정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하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등학교에서는 상당수의 교과의 교과서가 인정으로 구분된다면 지도서는 자유발행 될 수 있도록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반대 의견/논리

- 교사용 지도서도 엄연히 교과용도서인데 (인정) 심사를 폐지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지도서에 반영될 수 있다. 과거의 지도서 심사 경험에 의하면 도 대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지도서에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중등학교의 경우 지도서 활용률이 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도서에 의존하여 수업하는 교사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농어촌에 많은 상치교사들이나 부전공 연수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받은 교사들의 상당수는 지도서의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면서 지도서에 의지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 지도서를 구분하지 않고 출판사가 자유발행하도록 허용하면 교사들이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관련 지원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고, 출판사는 이들 자료 개발비를 궁극적으로 교과서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연구진의 의견

- 연구진은 지도서의 경우 1)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용 자료라는 점, 2) 지도서의 주요 내용인 교과서가 이미 심사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 3) 지도서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 4) 교과서가 인정화됨에 따라 인정심사 대상 도서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도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전 교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서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지도서를 다르게 구분할 경우 교과서와 지도서의 심사기관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문제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일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중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교과목의 교과서가 인정으로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서는 교과서와 동일하게 인정으로 구분하거나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구분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 중등학교에서 모든 지도서를 구분하지 않아 자유발행하게 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안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며, 그렇다고 중등학교의 모든 지도서를 인정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지도서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 외에도 인정심의 도서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채택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방안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의무교육기간이자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지도서는 인정으로 구분하되, 의무교육기간이 아니면서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지도서는 모두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국어와 사회 등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가 검정으로 구분되더라도 지도서는 모두 인정(중학교)이나 구분하지 않는 방안(고등학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지도서에 대한 규제는 교과서보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학교급별로 지도서에 대한 구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지도서는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하고, 중학교 지도서는 인정으로 구분하며, 고등학교 지도서는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수 구분 문제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오랫동안 학년별 수업시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각 교과별로 매 학년마다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되어 있고, 그 결과 각 교과별 교과서는 학년 단위로 개발되어 왔다. 다만 연간 수업시수가 많은 일부 교과의 경우 교과서를 분책하여 학기별로 개발하여 왔다. 예외가 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미술과에서 3-4학년, 5-6학년 2개 학년을 통합한 미술 교과서를 합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는 2개 학년의 교과서를 합책하여 개발함으로써 동일한 교과서 개발 비용으로 교과서의 지질과 색도 등을 높여서 명화 등을 좀더 실감 있게 제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각 교과별로 학년별 수업시수를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수업시수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2개 학년씩 학년군을 설정하여 수업시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7-9학년 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수업시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구분 시 이러한 학년군 개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중학교 국어의 경우 3년간 442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며, 체육의 경우 272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 구분도 원칙적으로 이런 학년군 개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중학교 3개 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이기 때문에 교과서 구분도 중학교 국어, 중학교 체육 등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중학교 국어나 체육을 몇 권으로 분책할 것인가이다. 예컨대 중학교 국어의 경우 합책하여 1권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

면 분책하여 여러 권으로 개발할 것인가? 만약 분책한다면 몇 권으로 분책할 것인가? 학기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6권으로 분책할 것인가 아니면 학년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3권으로 분책할 것인가? 아니면 상/하 두 권으로 분책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4권이나 10권 등으로 분책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등장한다. 첫째, 교과서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여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합책/분책 수의 문제는 출판사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둘째, 만약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여 구분한다면, 각 학교급별 교과별로 분책을 몇 권으로 구분할 것인가?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하는 방안

□ 찬성 의견/논리

-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교육의 통일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합책/분책 수를 출판사 자율로 할 경우 출판사별로 교과서 분책 수가 달라져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채택과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 지금까지 학기별 교과서, 학년별 교과서, 상/하 두 권의 교과서 체제에만 익숙한 학교현장에서는 국가가 합책/분책 수를 구분하더라도 2개 또는 3개 학년의 합책, 상/하 두 권 세트인 교과서, 학년별 1권에 해당하는 2권 또는 3권 세트 교과서, 학기별 1권에 해당하는 4권 또는 6권 세트 교과서 등 충분히 다양하고 복잡한 교과서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학년군, 교과군, 수업이수 20% 자율 증감, 집중이수를 통한 학기당 교과목 8개 이하 편성 등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지닌 학교 현장에

□ 반대 의견/논리

- 합책/분책 수를 출판사 자율에 맡길 경우 진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분책 형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추구하는 진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교과서 합책/분책 수를 구분고시 할 경우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여전히 많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합책/분책은 교과서 내용보다는 외형체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정부가 외형체제의 자율화를 추구한다면 합책/분책 수를 구분고시 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 연구진의 의견

- 연구진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천명한 대로 진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년군별 교과서 합책/분책 수를 출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그 동안 통일된 교과서에 위낙 익숙한 우리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급격한 다양화는 우리 교육현실에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개념들 외에도 초등학교에서의 검정 확대, 중등학교에서의 인정 확대 등은 이미 충분한 변화를 전제한다.
- 학년군별 교과서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합책/분책까지 출판사의 자율에 맡길 경우 교과서의 다양성을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연구진은 합책/분책이라는 외형체제의 자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다소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구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합책/분책 수를 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합책/분책의 구분고시 방안

-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한다고 할 경우 합책/분책의 구분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합책/분책의 구분 기준은 1) 교과별로 학년군별 수업시수 고려, 2) 집중이수 가능성 고려, 3) 수업에서의 교과서 활용률(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고려 등이 있을 수 있다. 수업시수가 많은 교과는 책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업시수가 적거나 교과서 활용률이 낮은 교과는 교과서를 합책하거나 분책하더라도 책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집중이수 가능성이 높은 교과는 책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업에서 교과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악과 미술은 합책으로 구분하고, 도덕, 실과, 체육, 영어는 2권으로 분책하며, 수업시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수업에서 교과서 활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에서는 학기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책할 것을 제안한다. 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어 수업시수를 제시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교과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육, 음악, 미술, 선택과목은 1권으로 합책하고, 집중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에서는 2권으로 분책하며,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매학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학, 과학, 영어는 학년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3권으로 분책하고, 중학교에서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국어는 학기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6책으로 분책할 것을 제안한다.

지도서의 경우 합책/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분책 기준과 동일하게 지도서도 분책할 것인가 아니면 분책된 교과서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 지도서는 합책하여 구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연구진은 한 교사가 모든 교과의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분책 기준과 동일하게 지도서도 분책하되, 한 교사가 한 교과만을 담당하는 중학교에서는 분책된 교과서라도 필요할 경우 지도서는 합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역사, 도덕의 경우 교과서는 2권으로 분책하더라도 지도서는 1권으로 합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쟁점 사항

가. ‘교과군’ 개념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반영하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더불어 교과군도 중요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도덕, 과학/기술·가정, 예술(음악/미술)을 교과군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업시수도 교과군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사회/도덕의 수업시수는 272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5학년과 6학년에서 사회와 도덕 수업을 각각 얼마나 해야 하는가는 원칙적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일부 교과에 교과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과군의 경우 구분고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5-6학년의 사회/도덕 교과군에서 사회와 도덕을 분리하여 구분고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도덕을 통합하여 구분고시 할 것인가 혹은 교과군의 경우 교과서 통합/분리의 문제를 개발자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줄이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군의 통합/분리의 문제를 교과서 개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군으로 편성된 교과 관련 교사들의 교과군 편성 자체에 대한 저항이 큰 상황에서 교과군 소속 교과들의 통합 교과서 개발 방안에 대한 이들의 저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는 통합하여 제시했지만, 교과군 단위의 수업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의지나 별도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 교과군은 교과서 구분고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교과군으로 편성된 각 교과들의 교과서는 분리 개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각 교과별로 분리 구분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을 각각 나누어 분리 구분고시하는 방안을 전제하였다.

나. 교과별 다교과서(보조교과서) 개발 방안

제5차 교육과정에서 1교과 다교과서 체제가 등장한 이래로 몇몇 교과에서는 1교과 다교과서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3권으로, 사회는 4학년부터 사회, 사회과 탐구, 사회과 부도 3권으로, 수학은 수학과 수학익힘책 2권으로, 과학은 과학과 실험관찰 2권으로 개발했다. 중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어만을 국어와 생활국어 2권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국어를 국어와 생활국어 2권으로 개발하는 것 외에도 수학과 영어에서 수준별 보조교과서를 개발한다는 취지로 수학은 수학과 수학익힘책으로, 영어는 영어와 학습활동책으로 개발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구분고시 할 때 어떤 교과에서 다교과서(혹은 보조교과서)를 개발할 것인가? 사실 그 동안 1교과 다교과서나 보조교과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학습량을 늘린다거나 학교수업에서 특정 교과서가 전혀 다루어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진은 가급적 1교과 다교과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보조교과서를 본 교과서에 통합하여 필요할 경우 분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학교에 한하여 일부 다교과서 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는 국어와 국어활동으로, 수학은 수학과 수학익힘책으로, 과학은 과학과 실험관찰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덕의 경우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를 통합하여 개발하되, 학년군별로 2권으로 분책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다교과서나 보조교과서를 개발하지 않도록 한다.

다. 인정심사 유무를 구분하는 인정제 폐지 방안

제7차 교육과정기에 특목고의 전문교과의 교과서 개발과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도서를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심

의없는 인정도서란 시·도 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신에 학교에서 해당 교과전문가 3인 이상이 모여 심의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고등학교 교과목 중 변화 속도가 빠른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 예술, 국제에 관한 78개의 전문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되면서 심의없는 인정도서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처럼 심의없는 인정도서 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였다. 첫째, 인정도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교과서 발행제도인데, 인정도서를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인정도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률로써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셋째, 심의없는 인정도서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상황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심의없는 인정도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심의를 받지 않을 뿐 내용 검토를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없는 인정도서라는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더 나아가 교과서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구분고시하지 않는 도서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개발을 독려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출판사가 자유발행하는 방안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심의없는 인정도서라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연구진은 이번 기회에 인정도서를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는 방식 자체를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 인정도서는 인정도서의 취지에 맞게 모두 심의있는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자체 모순적인 ‘심의없는 인정도서’라는 말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대신에 이전에 정부의 규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분류하던 도서는 국가가 구분고시하지 않음으로서 출판사가 자유발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시장성이 없어 국가가 개발을 지원하는 교과를 국정으로 고시하는 방안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된다. 교과용도서예규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그리고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정도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교과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작동 가능한데도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의미하였고, 다른 하나는 수요가 적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개발을 보조/지원해서 개발하는 교과용도서(예컨대, 전문교과서 등)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두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전자만을 국정으로 명명하고, 후자의 경우 국정으로 명명하지 않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성화고 전문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고시하고, 예상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을 기피할 경우 국가가 출판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자를 공모하여 개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요가 적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특성화고의 전문교과의 교과서는 국가가 개발을 보조/지원해주는 도서이기는 하지만 국정도서로 분류하지 않고 인정도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장원리가 충분히 작동 가능한데도 여러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저작권을 지닌 교과용도서(예컨대, 초등학교 국어 등)만을 국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 각 교과에의 보조자료로서 CD 등을 포함한 전자저작물을 개발하는 방안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의 2항과 3항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교과서’나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전자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과용도서를 구분할 때 전자저작물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2011년 6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의하면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2년간에 걸쳐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디지털교과서란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로, 1인 1태블릿 PC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1월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전자교과서를 모든 학교에서 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11년 1학기부터 e-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2011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e-교과서란 기존의 종이 교과서를 PDF 파일로 CD에 저장한 것으로 학생들이 책은 학교에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음성 언어 활용이 가능한 영어의 e-교과서는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데 반하여, 국어나 수학은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새 교육과정기에는 초·중·고 영어 교과에서만 e-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자저작물 CD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에 지도서에만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저학년 통합교과, 사회, 과학, 음악, 영어 지도서에 전자저작물 CD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중학교의 경우 생활외국어 교과서에 전자저작물 CD를 포함하고, 과학과 영어 지도서에 전자저작물 CD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교과서에 전자저작물 CD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V.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과 시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조사와 논의를 토대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과 시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을 일반 원칙과 학교급별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원칙

가.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일반 원칙

새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는 다음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1) 초등학교의 검정도서를 확대한다.

- 초등학교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검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이는 현행 검정도서를 초등학교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등학교의 인정도서를 확대한다.

- 국가 정체성과 이념 편향성의 논란 우려가 있는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를 제외한 모든 기본교과를 인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이는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지닌다.

3)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서를 구분고시한다.

- 초등학교 지도서는 교과서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고시하고, 중학교의 지도서는 인정도서로 구분고시하며, 고등학교의 지도서는 고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의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한다.
- 국가 차원에서 합책/분책의 수를 결정하여 구분고시한다.

5)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일부 선택과목은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 고교 선택과목 중 교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것(예컨대, 과제연구, 기타 실습 또는 실기 과목 등)으로 판단되는 교과는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학교급별 원칙

1) 초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국정과 검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학생의 기본 생활이나 학습 습관 형성에 있어서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는 국정을 유지한다.
-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일하게 구분한다.
- 수업시수와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를 구분한다.

□ 교과서 구분고시

- 국정: 저학년 통합교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 검정: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 구분고시

- 4권(학기별) 구분고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2권(학년별) 구분고시: 도덕, 실과, 체육, 영어
- 1권(학년군별 통권) 구분고시: 음악, 미술
- 기타: 저학년 통합교과는 주제별 교과서로 16권으로 개발

□ 지도서 구분고시

- 해당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고시 (국정교과서는 지도서도 국정으로, 검정교과서는 지도서도 검정으로)

□ 기타 사항

- 국어, 수학, 과학은 1교과 다교과서(보조교과서) 체제 유지
 - 국어와 국어활동
 - 수학과 수학익힘책
 - 과학과 실험관찰
- e-교과서 : 영어
- 전자저작물(CD) : 저학년 통합교과, 국어, 사회, 과학, 음악, 영어의 지도서

2) 중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검정과 인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

는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 지도서는 모두 인정으로 구분한다.
- 수업시수, 집중이수 가능성,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를 구분한다.

☐ 교과서 구분고시

- 검정: 국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 인정: 나머지 모든 교과

☐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 구분고시

- 6권(학기별) 구분고시: 국어
- 3권(학년별) 구분고시: 수학, 과학, 영어
- 2권(상/하) 구분고시: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 1권(학년군별 통권) 구분고시: 체육, 음악, 미술, 선택과목

☐ 지도서 구분고시

- 지도서는 모두 인정으로 구분한다.
- 지도서의 분책 수는 교과서의 분책 수와 동일하게 하되, 다음 과목만을 예외로 한다.
 - 3권 : 국어1~2, 3~4, 5~6 (교과서는 6권, 지도서는 3권)
 - 1권 : 사회, 역사, 도덕 (교과서는 각 2권, 지도서는 각 1권)

☐ 기타 사항

- e-교과서 : 영어
- 전자저작물(CD) : 생활외국어의 교과서, 과학과 영어의 지도서.

3) 고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검정과 인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는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 지도서는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 교과서 구분고시

- 검정 : 국어(일반교과), 사회(역사, 도덕 포함)의 일반교과
- 인정 : 나머지 모든 일반교과, 심화교과, 전문교과

☐ 학년군별 책 수 구분고시

- 교과서는 각 교과별로 1권으로 구분한다.

☐ 지도서 구분고시

- 지도서는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다. 즉 출판사가 자유발행하도록 한다.

☐ 기타 사항

- e-교과서 : 영어
- 전자저작물(CD) : 제2외국어의 교과서

2.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가. 초등학교 구분고시안

<표 V-1>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주제별 교과서 16종 【16종】	학기별 지도서 4종(전자저작물 CD 포함) 【4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1~2 ①/②/③/④ 국어 3~4 ①/②/③/④ 국어 5~6 ①/②/③/④ 국어활동 1~2 ①/②/③/④ 국어활동 3~4 ①/②/③/④ 국어활동 5~6 ①/②/③/④ 【6종】	국어 1~2(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3종】
사회/도덕	사회 3~4 ①/②/③/④ 사회 5~6 ①/②/③/④ 사회과 부도 【3종】	사회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사회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2종】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2종】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2종】
수학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1~2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3~4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5~6 ①/②/③/④ 【6종】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3종】
과학	과학 3~4 ①/②/③/④ 과학 5~6 ①/②/③/④ 실험관찰 3~4 ①/②/③/④ 실험관찰 5~6 ①/②/③/④ 【4종】	과학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과학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2종】
총계	37종	16종

<표 V-2>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실과	실과 5~6 ①/② 【1종】	실과 5~6 ①/② 【1종】
체육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2종】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2종】
예술 (음악/미술)	음악 3~4 음악 5~6 【2종】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3~4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5~6 【2종】
	미술 3~4 미술 5~6 【2종】	미술 3~4 미술 5~6 【2종】
영어	영어 3~4(e-교과서 포함) ①/② 영어 5~6(e-교과서 포함) ①/② 【2종】	영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영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2종】
총계	9종	9종

나. 중학교 구분고시안

<표 V-3>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국어	국어①/②/③/④/⑤/⑥ 【1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사회 ①/②, 역사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5종】
총계	6종

<표 V-4> 중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국어 ①~②/③~④/⑤~⑥ 【1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사회 역사 도덕 【3종】
수학	수학 ①/②/③ 【1종】	수학 ①/②/③ 【1종】
과학/ 기술·가정	과학 ①/②/③ 【1종】	과학(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1종】
	기술·가정 ①/② 【1종】	기술·가정 ①/② 【1종】
체육	체육 【1종】	체육 【1종】
예술 (음악/미술)	음악 【1종】	음악 【1종】
	미술 【1종】	미술 【1종】
영어	영어(e-교과서 포함) ①/②/③ 【1종】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1종】
선택	한문 【1종】	한문 【1종】
	정보 【1종】	정보 【1종】
	환경과 녹색성장 【1종】	환경과 녹색성장 【1종】
	생활 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8종】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8종】
	보건 【1종】	보건 【1종】
	진로와 직업 【1종】	진로와 직업 【1종】
총계	20종	24종

다. 고등학교 구분고시안

<표 V-5>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국어	국어Ⅰ / 국어Ⅱ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 【6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 지리 / 세계 지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경제 / 법과 정치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12종】
총계	18종

<표 V-6>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수학	기초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 확률과 통계 / 미적분Ⅰ / 미적분Ⅱ / 기하와 벡터 / 고급 수학Ⅰ / 고급 수학Ⅱ 【9종】
영어	기초 영어 / 실용 영어Ⅰ / 실용 영어Ⅱ / 실용 영어 회화 /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Ⅰ / 영어Ⅱ / 영어 회화 / 영어 독해와 작문 / 심화 영어 / 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 (이상 e-교과서 포함) 【15종】
사회 (역사/ 도덕 포함)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 세계 문제 / 비교 문화 / 사회 과학 방법론 / 한국의 사회와 문화 / 국제법 / 지역 이해 / 인류의 미래 사회 【10종】
과학	과학 / 물리Ⅰ / 물리Ⅱ / 화학Ⅰ / 화학Ⅱ / 생명 과학Ⅰ / 생명 과학Ⅱ / 지구 과학Ⅰ / 지구 과학Ⅱ / 고급 물리 / 물리 실험 / 고급 화학 / 화학 실험 / 고급 생명 과학 / 생명 과학 실험 / 고급 지구 과학 / 지구 과학 실험 / 환경 과학 / 과학사 및 과학 철학 / 정보 과학 【20종】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과학 /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 및 대인 운동 / 단체 운동 / 체력 운동 / 투기 운동 / 빙상 및 설상 운동 / 표현 및 창작 운동 /

	스포츠경기 체력 / 스포츠경기 기술 / 코칭론 / 스포츠경영·행정 【18종】
예술 (음악/ 미술 등)	음악과 생활 / 음악과 진로 /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합창·합주 / 음악과 매체 【7종】
	미술 창작 / 미술 문화 / 드로잉 / 미술 이론 / 미술사 / 평면 조형 / 입체 조형 / 디자인·공예 / 영상 미술 【9종】
	무용의 이해 / 기초 한국 무용 / 기초 발레 / 기초 현대 무용 / 무용 음악 / 무용 감상과 비평 【6종】
	문학 개론 / 문장론 / 고전 문학 감상 / 현대 문학 감상 / 시 창작 입문 / 소설 창작 입문 【6종】
	연극의 이해 / 무대 기술 /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영화기술 / 영화 창작과 표현 / 영화 감상과 비평 【7종】
	사진의 이해 / 기초 촬영 / 중급 촬영 / 사진 편집 / 디지털 사진 촬영 /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 사진 감상과 비평 【7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기술 / 가정 과학 / 경영 일반 / 해양 과학 / 정보 【7종】
	독일어 I / 독일어II / 독일어 회화 I / 독일어 회화II / 프랑스어 I / 프랑스어II / 프랑스어 회화 I / 프랑스어 회화II / 스페인어 I / 스페인어II / 스페인어 회화 I / 스페인어 회화II / 중국어 I / 중국어II / 중국어 회화 I / 중국어 회화II / 일본어 I / 일본어II / 일본어 회화 I / 일본어 회화II / 러시아어 I / 러시아어II / 러시아어 회화 I / 러시아어 회화II / 아랍어 I / 아랍어II / 아랍어 회화 I / 아랍어 회화II / 베트남어 I / 베트남어II / 베트남어 회화 I / 베트남어 회화II (이상 전자저작물 CD 포함) 독일어 독해 I / 독일어 독해II / 독일어 작문 / 독일어권 문화 / 프랑스어 독해 I / 프랑스어 독해II / 프랑스어 작문 / 프랑스어권 문화 / 스페인어 독해 I / 스페인어 독해II / 스페인어 작문 / 스페인어권 문화 / 중국어 독해 I / 중국어 독해II / 중국어 작문 / 중국 문화 / 일본어 독해 I / 일본어 독해II / 일본어 작문 / 일본 문화 / 러시아어 독해 I / 러시아어 독해II / 러시아어 작문 / 러시아 문화 / 아랍어 독해 I / 아랍어 독해II / 아랍어 작문 / 아랍 문화 / 베트남어 독해 I / 베트남어 독해II / 베트남어 작문 / 베트남 문화 【64종】
	한문I / 한문II 【2종】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과 녹색성장 【8종】

전문교과	<p>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업 경영 / 생명 공학 기술 /</p> <p>농업 영어(전자저작물 OD 포함) / 친환경 농업 / 재배 / 작물 생산 기술 / 원예 / 생활 원예 /</p> <p>생산 자재 / 원예 기술 / 원예 전문 생산 / 동물 자원 / 중소 가축 관리 /</p> <p>대 가축 관리 / 반려 동물 관리 / 숲과 인간 / 산림 자원 기술 / 조경 / 조경 설계 / 조경 시공 관리 /</p> <p>농업과 물 /</p> <p>농촌과 농지 개발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p> <p>농업 기계 운전·작업 /</p> <p>농업 기계 정비 /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농산 식품 가공 / 축산수산 식품 가공 / 농산물 유통 /</p> <p>농산물 유통 관리 / 농산물 유통 실무 / 환경 보전 / 환경 관리 / 관광 농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p> <p style="text-align: right;">【42종】</p>
	<p>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정보기술과 활용 / 공업 영어(전자저작물 OD 포함) / 기계 제도 / 토목 제도 /</p> <p>건축 설계 제도 /</p> <p>디자인 제도 / 선박 제도 / 기계 일반 / 전기와 생활 / 기계 구조와 기능 / 기계 공작법 /</p> <p>유체 기계 / 공기 조화 설비 /</p> <p>기계 기초 공작 / 공작 기계 / 산업 설비 / 금형 제작 / 전자 기계 이론 /</p> <p>전자 기계 회로 / 전자 기계 공작 /</p> <p>전자 기계 제어 / 로봇 기초 / 로봇 제작 / 재료 일반 / 금속 제조 / 재료 가공 / 주조 /</p> <p>금속 처리 /</p> <p>전기 회로 / 전기 기기 / 전력 설비 / 전기·전자 측정 / 전기 응용 / 자동화 설비 /</p> <p>전자 회로 / 전자 기기 /</p> <p>전자·전산 응용 / 통신 일반 / 정보 통신 / 통신 시스템 / 컴퓨터 구조 /</p> <p>시스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p> <p>디지털 논리 회로 / 측량 / 역학 / 토목 설계 / 토목 재료·시공 / 수리·토질 / 지적 전산 /</p> <p>지적 실무 /</p> <p>공간 정보 / 건축 구조 / 건축 계획 / 건축 목공 / 건축 구조체 시공 / 건축 마감 시공 /</p> <p>디자인 일반 /</p> <p>색채 관리 / 조형 / 제품 디자인 / 공예 / 시각 디자인 / 컴퓨터 그래픽 / 공업 화학 /</p> <p>단위조작·공정제어 /</p> <p>제조 화학 / 분석 화학 / 파인 세라믹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p> <p>스마트 세라믹 / 발효 공업 /</p> <p>식품 분석 / 식품 공업 기술 / 섬유 재료 / 방적·방사 / 제포·봉제 / 염색·가공 /</p> <p>인쇄의 이해 / 인쇄 재료 / 아날로그 인쇄 / 재판 실제 / 사진 / 디지털 인쇄 /</p> <p>자동차 기관 / 자동차 채시 /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p> <p>건설기계 구조·정비 / 자동차 차체 수리 /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p> <p>항공기 기체 / 항공기 기관 / 항공기 장비 / 항공기 전자 장치 / 인간과 환경 /</p> <p>수질 관리 / 대기·소음 방지 / 폐기물 처리 / 컴퓨터 게임 기획 /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p> <p>컴퓨터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 애니메이션 제작 /</p> <p>만화 창작 / 영화·방송 제작 / 촬영·조명 / 방송 시스템</p> <p style="text-align: right;">【113종】</p>
	<p>상업 경제 / 회계 원리 / 마케팅 / 기업과 경영 / 기업 자원 통합 관리 / 재무 회계 /</p> <p>원가 관리 회계 /</p> <p>세무 회계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글로벌 경영 / 비즈니스 영어(전자저작물 OD 포함) / 국제 상무 /</p> <p>자료 구조 / 모바일 콘텐츠 /</p> <p>프로그래밍 실무 / 사무 관리 실무 / 상업 디자인 일반 / 상업 디자인 실무 / 유통 관리 /</p> <p>물류 관리 /</p>

	전자 상거래 일반 / 전자 상거래 실무 / 미디어 콘텐츠 일반 / 미디어 콘텐츠 실무 / 웹 프로그래밍 / 금융 일반 / 금융 실무 / 커뮤니케이션 실무 / 창업 일반 / 컴퓨터 일반 【30종】
	수산 일반 / 해사 일반 / 해양의 이해 / 수산·해운 산업 기초 / 수산 생물 / 수산 경영 일반 / 해양 생산 기술 / 수산 양식 / 양식 생물 질병 / 수산 가공 / 수산물 유통 / 해양 오염·방제 / 냉동 일반 / 냉동 공조 기기 / 냉동 공조 실무 /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 기계 설계·공작 / 잠수 기술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선박 운송 / 전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기기 / 전자 통신 운용 / 생선회 실무 / 해양 레저·관광 / 해양 물류 일반 /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플랜트 일반 【33종】
	인간 발달 /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 한국 조리 / 동양 조리 / 서양 조리 / 제과·제빵 / 의복 재료·관리 / 패션 디자인 / 한국 의복 구성 / 서양 의복 구성 / 자수와 편물 / 주거 / 실내 디자인 / 가구 디자인 / 디스플레이 /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 보육과정 / 놀이 지도 / 아동 생활 지도 / 관광 일반 / 관광 경영 실무 / 관광 서비스 실무 / 관광 외식·조리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 노인 생활 지원 / 헤어 미용 / 피부 미용 / 메이크업 / 공중 보건 【37종】
총계	450종

VI.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새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시안 개발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검·인정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둘째, 인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국·검·인정제에 관한 재정의 및 규정 수정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의 유형으로는 국정, 검정, 인정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의 각 유형에 대한 정의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4-6항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 규정에 제시된 인정도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인정도서의 위상이 국정이나 검정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도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정도서의 이러한 빈약한 위상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진술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서는 인정도서를 국정이나 검정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가능한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정, 검정, 인정 도서의 위계적인 서열을 암시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교과에 대해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학교장은 우선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정과 인정 교과서가 공존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과용도서의 선정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국정, 검정, 인정 도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발행 체제에 따라 개발된 ‘평등한’ 도서라기보다는 국정, 검정, 인정 순으로 도서들이 위계적 서열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정, 검정, 인정도서간의 위계적인 서열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가 공존할 경우 왜 반드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검정과 인정 도서가 공존할 경우에는 왜 반드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도서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아마도 인정도서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오랜 관행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만 해도 인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기만 하더라도 인정도서는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인정도서는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서라는 말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반하여 인정도서는 교과서나 지도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라는 뜻이다. 이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인정도서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

충하기 위한 도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되는 10개 기본교과의 상당수를 인정도서화하는 정책은 인정도서에 대한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구분고시안에 의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와 사회(역사, 도덕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서가 인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10개 기본교과의 교과서의 대부분이 인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인정도서가 대부분 소수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여 공부하는 이른바 ‘주변 교과’의 교과서나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보충 자료 성격의 교재를 가리켰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를 인정도서는 해당 학년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용하는 이른바 ‘주요 교과’의 교과서를 가리키게 되었다.

비록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국정과 검정도서가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인정도서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국정도서가 지배적이고 검정도서가 보조적이며, 인정도서가 예외적으로 사용되던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과 제3조 1항의 내용은 인정 확대를 통한 인정도서가 지배적인 교과서 체제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은 4항과 5항과 유사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으며(예컨대, “인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은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평등한 도서로 느껴질 수 있는 방식(예컨대, 학교장은 국정, 검정, 인정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인정심의 제도의 개선

앞의 논의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본교과 또는 주요 교과가 인정으로 구분됨에 따라 인정심의 방식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정심의 방식은 국·검정 도서보다는

다소 격이 떨어지는 보조교과서 성격의 자료를 심의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인정심의 체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정심의 체제의 현황

그 동안 검정심사는 주로 기본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였기 때문에 심사규정과 절차가 비교적 엄격했다. 그러나 인정심의를 보조교과서나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심의였기 때문에 심사규정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검정심사와 인정심의 주요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심사는 해당 연령층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검정심사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인정심의를 일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아니라 해당 교과서를 사용할 학교의 장이 인정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검정심사는 해당 연령층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에서 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인정심의를 일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 인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인정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정심의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검정심사는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채택, 인쇄, 공급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 사용 12개월 전에 검정심사를 신청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정심의는 소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채택, 인쇄, 공급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사용 6개월 전에 인정심의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다.

넷째, 검정심사는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심사 합격률이 50-70% 정도임에 반하여, 인정심의는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심의 합격

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정심의회 경우 심의에서 탈락 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 수정 보완이 될 경우 인정심의를 통과시켜 준다.

다섯째, 검정도서의 가격은 국가가 사정하여 결정하는데 반하여, 인정도서의 가격은 발행사가 자율결정 하였다. 200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에 의하면, 이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모두 출판사사 가격을 정하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결정 방식은 동일해졌다.

여섯째, 검정도서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에 합격한 후에도 매년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인정도서는 소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 지시 사항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검정과 인정 심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현행 검정심사와 인정심사의 비교

검정 심사	인정 심사
1) 출판사가 심사 출원 가능	1) 학교장이 심의의뢰
2) 국가 수준에서 1차례 심사 출원 가능 (다만,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후 재심사 가능)	2) 16개 시·도교육청에 심사 출원 가능 (총 16차례 출원 가능; 한 곳에서만 합격해도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3) 사용 12개월 이전 검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3) 사용 6개월 이전 인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4) 심사 절차가 엄격함 (합격률이 50-70% 정도임)	4) 심사 절차가 느슨함 (합격률이 거의 100%에 이름)
5) 가격을 국가가 사정하여 결정 (현재는 출판사 자율결정 후 심의 통해 조정 권고)	5) 발행사가 가격 자율 결정 (현재는 출판사 자율결정 후 심의 통해 조정 권고)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매우 많음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거의 없음

나. 인정심의 체제의 문제 및 개선 방향

1) 인정 신청 자격 완화

인정심의는 그 동안 소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도서의 심의는 학교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연령층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우는 도서가 인정으로 구분됨에 따라 학교장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직접 인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 ④항)에는 지도서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으로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도 인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 심사·채택·공급 일정 조정

인정도서는 사용 6개월 전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심의, 홍보, 채택, 인쇄, 공급 등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가 사용하는 인정도서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심의, 홍보, 채택, 인쇄, 공급 등의 모든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본교과의 교과서가 인정화됨에 따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정교과서의 심의, 홍보, 채택, 인쇄, 공급 등이 모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정 신청 접수를 6개월 이상으로 앞당기거나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0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심의 후 인정번호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부여했다. 따라서 인정 교과서의 전시본 전시 등 교과서 채택 및 인쇄, 공급 등의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제대로 공급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예관한규정’(제14조 ①항)에 따라 신청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선정과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말한다)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5.4>

3) 인정심사의 충실성 확보 방안

중등학교의 주요 교과서의 교과서가 인정으로 구분될 경우 인정도서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정심의 기준이나 절차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인정심의와 현재의 검정심사간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현행 수준의 인정심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조건을 잘 조정해야 한다. 인정도서 확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행 인정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도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정심의보다는 좀더 엄격한 인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정심의를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인정 도서의 선정 절차의 명문화 방안

검정교과서는 ‘교과용도서예관규정’(제3조 ②항)에 선정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인정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소수학생이 위한 인정교과서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위한 인정교과서의 경우 검정교과서처럼 선정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

앞의 III장과 IV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매우 다르다. 교과용도서의 구분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국정으로 되돌아가는 후퇴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국정은 전면 폐지하면서 초등학교의 기본교과에도 인정을 도입하자는 다소 급진적인 입장도 있었다.

이처럼 교과용도서의 구분에 대한 의견이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연구진은 1)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2) 이번 정부 들어 실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학교 자율화 정책,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여러 교육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교과서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첫째, 검정도서 활용 경험이 적고 교사들의 검정 확대에 반대가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검정을 최소한으로 확대하고 기본교과에 인정 도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 둘째,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여 아직 검정 심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와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를 중·고등학교에서 검정으로 구분하는 방안, 셋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학년군별 합책/분책 수를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여 구분하는 방안 등이다. 사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연구진은 교과용도서의 구분에 있어서 현실을 더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을 좀더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이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정을 초등학교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현실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와 중등학교 국사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정→검정→인정으로의 단계적 전환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시하자는 것이어서 V장에 제시된 것과 같은 구분고시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다음 교육과정기에는 이번 교육과정기의 다양한 교과서 활용의 경험을 토대로 좀더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국정인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을 검정(또는 인정)으로 전환하고, 현재 검정인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를 인정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검정인 국어와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를 인정으로 전환하고, 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구분고시하지 않아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검정인 국어와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를 인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모든 교과에 대해서는 구분고시하지 않아 출판사가 자유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교과서 선진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곽병선 외(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4-6.
- 교육부(2000). 교과서백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 김재춘 외(2009). 교과서 가격자율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 김재춘 외(2011).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자료집.
- 김재춘(2009).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P 2009-5.
- 김재춘. 한국의 교과서 정책: 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
- 김재춘·곽병선·박소영·김라경(200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5-5.
- 심재호·권유진·황수영(2010). 미국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 제도 분석 -텍사스주 & 아이오와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0-60.
- 유학영·송규각·윤광원(2009).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경향과 교과용도서 수급자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9-1.
- 윤현진·주형미·문영주·추병완(2010).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함수곤 외(1997). 교과서 대여제 실시 대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소. 97-1.
- 허강 외(2002).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02-03.
- 허강(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일진사.
-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state of Ontario in Canada(2008). *Submission*

.Procedures for Textbooks for the Trillium Lis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state of Ontario in Canada(2008). *Guidelines for Approval of Textbooks.*

Harcourt School Publishers:

<http://www.harcourtschool.com/index.html>

Leilehua High School:

<http://www.leilehua.k12.hi.us/documents/home.html>

Nordhoff High School:

<http://www.ojai.k12.ca.us/Default.aspx?alias=www.ojai.k12.ca.us/nordhoff>

Nordhoff High School Library:

<http://sites.google.com/site/nordhoffhighschoollibrary2010/guidelines-3>

Springfield Public Schools Textbook Policy.

<http://sps.springfield.ma.us/webContent/TextbookPolicy.pdf>

St. Johns County School District Textbook Adoption Procedural manual

<http://www.stjohns.k12.fl.us/depts/media/files/currcoetxtadop.pdf>

Trillium List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state of Ontario in Canada

<http://www.edu.gov.on.ca/trilliumlist>

부 록

【부록 1】 교과서 선진화 방안 관련 보도 자료

★ 1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1. 12.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75
-----------------------------	---

<자료문의> ☎02-2100-6472 교과서기획과장 김태훈, 담당 교육연구관 이화성
행정사무관 최창열

“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

-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 -

- ①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종이교과서와 함께 보급
- ② 인정도서 대폭 확대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
- ③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이 가능해져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제작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서 그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교

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담아야 할 교과서도 미래의 교육환경에 알맞은 미래형 교육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 이러한 e-교과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책

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e-교과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세대에게 '보다 친밀한(friendly)'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금년 신학기부터 종전 3권('듣기·말하기', '쓰기', '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 '읽기')으로 합본**토록 하였다.

-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서, 향후 학부모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07년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 → 2010년 국정39%, 검정 16%, **인정 45%**

-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될 예정이며, 초·중·고 보통교과의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 → 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flexible)지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 그러나 국·검정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 인정도서는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도서에 대한 최소한의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2010년 인정도서 전환 취지

- **고교 과학**의 경우, 융합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는 데 인정도서 체제가 보다 유리하다.
- 체육, 음악, 미술 등 **고교 보통교과**의 경우 현장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다.
- 특목고 및 전문계고를 위한 **고교 전문교과**의 경우 산업현장 및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매년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어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다.

셋째,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08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교과서('10 적용)를 개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미술 교과서('10 적용)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다.

넷째,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채택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한다.

-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심사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결과까지도 불신하였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 그리고,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하게 된다.**
 -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검정출원(1발행사 과목별 복수출원)으로 인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출판사 경영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격종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다.
-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토록 하였다.
 - 이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외국의 교과서처럼 ‘질 높은 두꺼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목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는 출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여 전시본 교과서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도서별 특징에 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우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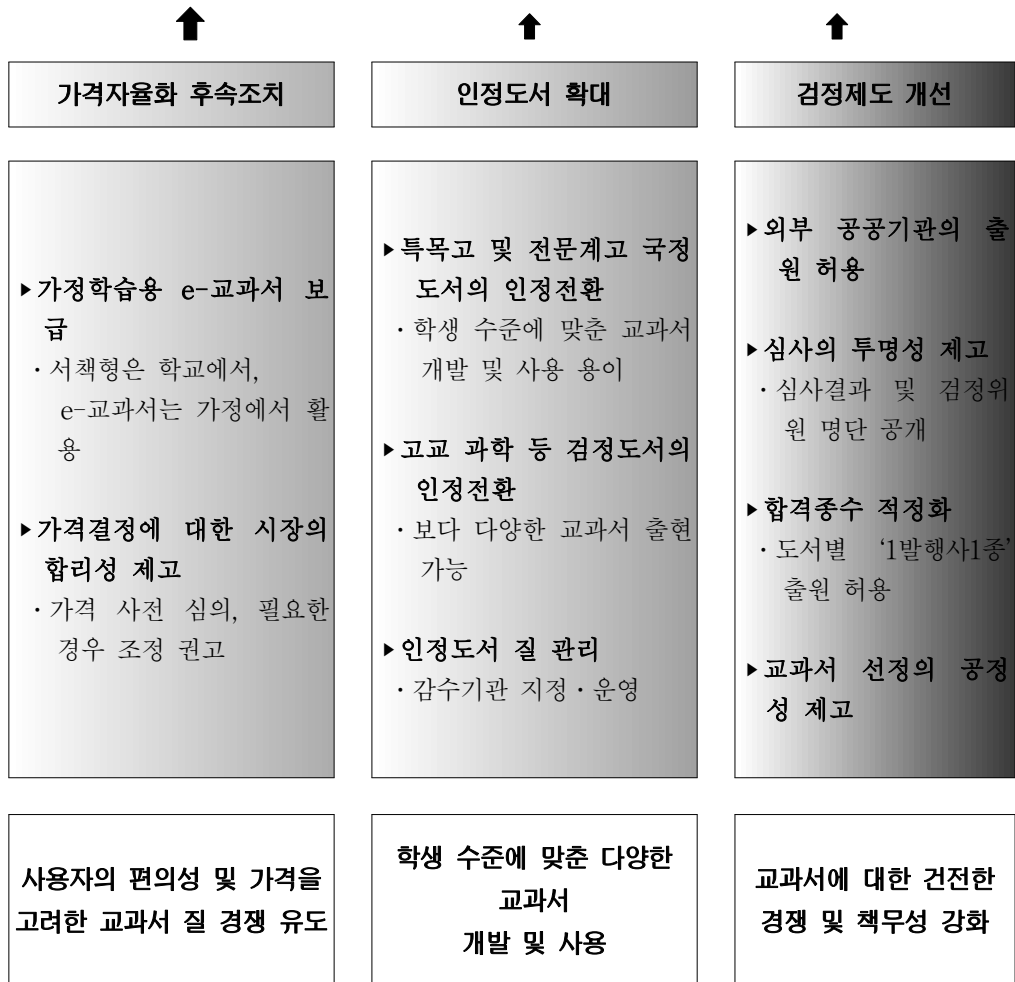
※ 별첨 자료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3. 교과용도서 종류 및 구분기준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제도 현황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별첨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



<별첨 2> 초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바른 생활	○ 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 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종】		
즐거로운 생활	○ 교과서 즐거로운 생활 1-1/1-2/2-1/2-2 ○ 지도서 즐거로운 생활 1-1/1-2/2-1/2-2 【8종】		
즐거운 생활	○ 교과서(CD 포함) 즐거운 생활 1-1/1-2/2-1/2-2 【8종】		
국어	○ 교과서(CD 포함) 듣기·말하기 1-1/1-2/2-1/2-2 읽기 1-1/1-2/2-1/2-2/3-1/3-2/4-1/4-2/5-1/5-2/ 6-1/6-2 쓰기 1-1/1-2/2-1/2-2 듣기·말하기·쓰기 3-1/3-2/4-1/4-2/5-1/5-2/6-1/6-2 ○ 지도서(CD 포함) 국어1-1/1-2/2-1/2-2/3-1/3-2/4-1/4-2/5-1/5-2/6-1/6-2 【40종】		
사회/도덕	○ 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과 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 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종】		
	○ 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 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종】		
수학	○ 교과서(CD 포함) 수학 1-1/1-2/2-1/2-2/3-1/3-2/4-1/4-2/5-1/5-2/ 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1/5-2/ 6-1/6-2 ○ 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1/5-2/ 6-1/6-2 【36종】		
과학/실과	○ 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 지도서(CD 포함) 과학 3-1/3-2/4-1/4-2/5-1/5-2/6-1/6-2 【24종】		
		○ 교과서 실과 5/6 ○ 지도서 실과 5/6 【4종】	
체육	○ 교과서 체육 3/4 ○ 지도서 체육 3/4 【4종】	○ 교과서 체육 5/6 ○ 지도서 체육 5/6 【4종】	
예술 (음악/미술)	○ 교과서 음악 3/4 ○ 지도서(CD 포함) 음악 3/4 【4종】	○ 교과서 음악 5/6 ○ 지도서(CD 포함) 음악 5/6 【4종】	
	○ 교과서 미술 3~4(합본) ○ 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 교과서 미술 5~6(합본) ○ 지도서 미술 5~6(합본) 【2종】	
영어		○ 교과서(CD 포함) 영어 3/4/5/6 ○ 지도서 영어 3/4/5/6 【8종】	○ 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 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총 계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전자저작물 8종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는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2)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있는 도서 또는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도서는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는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중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교과서(CD 포함)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3-2 【12종】	○지도서 국어* 1/2/3 【3종】
사회(역사 포함)/ 도덕		○교과서 도덕 1/2/3 【3종】	○지도서 도덕* 1/2/3 【3종】
		○교과서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종】	○지도서 사회* 1/3, 역사* 【3종】
수학		○교과서(CD 포함)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종】	○지도서 수학 1/2/3 【3종】
과학/ 기술·가정		○교과서 과학 1/2/3 【3종】	○지도서 과학 1/2/3 【3종】
		○교과서 기술·가정 1/2/3 【3종】	○지도서 기술·가정 1/2/3 【3종】
체육		○교과서 체육 1/2/3 【3종】	○지도서 체육 1/2/3 【3종】
예술 (음악/미술)		○교과서 음악 1/2/3 【3종】	○지도서(CD 포함) 음악 1/2/3 【3종】
		○교과서 미술 【1종】	○지도서 미술 【1종】
영어		○교과서(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종】	○지도서 영어 1/2/3 【3종】
선택		○교과서 한문 1/2/3 【3종】	○지도서 한문 1/2/3 【3종】
		○교과서 정보 1/2/3 【3종】	○지도서 정보 1/2/3 【3종】
		○교과서 환경 【1종】	○지도서 환경 【1종】
	○교과서(CD 포함)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 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종】	○교과서(CD 포함)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교과서 보건 【1종】	
			○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총 계	교과서 5종	교과서 56종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고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 보통교과 】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교과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지도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수학		○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종】	○지도서 수학/수학의 활용/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7종】
영어		○교과서(CD 포함)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Ⅰ/영어Ⅱ/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 ○교과서 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지도서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Ⅰ/영어Ⅱ/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교과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12종】	○지도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12종】
과학			○교과서 과학*/물리Ⅰ*/물리Ⅱ*/화학Ⅰ*/화학Ⅱ*/생명과학Ⅰ*/생명과학Ⅱ*/지구 과학Ⅰ*/지구 과학Ⅱ* 【10종】 ○지도서 과학 【10종】
체육		○교과서 체육 【1종】	○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지도서 체육 【4종】
예술 (음악/미술)		○교과서 음악 【1종】	○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지도서(CD 포함) 음악 【3종】
		○교과서 미술 【1종】	○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지도서 미술 【4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서 기술·가정 【1종】	○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지도서 기술·가정 【7종】
	○교과서 (CD 포함) 러시아 어Ⅰ/ 아랍 어Ⅰ 【2종】	○교과서(CD 포함) 독일어Ⅰ/프랑스 어Ⅰ/스페인 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 【5종】	○교과서(CD 포함) 독일어Ⅱ*/프랑스 어Ⅱ*/스페인 어Ⅱ*/중국어Ⅱ*/일본어Ⅱ*/러시아 어Ⅱ*/아랍 어Ⅱ* 【7종】
		○교과서 한문 【1종】	○교과서 한문Ⅱ* 【1종】
	○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교과서 보건 【1종】	○교과서 생활과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생활 경제/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8종】
총 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2종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 전문교과 】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생물 공학 기초/재 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원 예 및 생활 원예/동물 자원/조경/농업 과 물/식품 과학/농산물 유통/환경 보 전/농업과 관광 【14종】		○교과서 : 농업 경영/산림 자원 기술/생 산 자재/원예 기술Ⅰ·Ⅱ/사육 기술Ⅰ/사 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 기술Ⅰ· Ⅱ/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 Ⅰ/농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및 농 업 기계 기술Ⅰ/농업 기계 기술Ⅱ/농 업 기계 공작/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 술Ⅰ·Ⅱ/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관리Ⅰ/환경 관리 Ⅱ 【20종】
공업	○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 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 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 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Ⅰ·Ⅱ/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금속 제조/재료 가 공/주조/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 비Ⅰ/전자 회로/통신 일반 및시스 템/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재료·시공/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공예/ 공업 화학/기능성 세라믹/구조 세라 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섬유 재료/방직·방사/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 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새 시/선박 이론/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 /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로봇 기초/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 임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만 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61종】	○교과서 : 공업 입문/ 기초 제 도/정보 기술 기초 【3종】	○교과서 :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 래밍/프로그래밍*/정보 통신/특수 인쇄/ 사진/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제작/ 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산 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력 설비Ⅱ/전기· 전자 측정/자동차 설비/전자 기기/전 자·전산 응용/계측 제어/토목 일반/ 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시공Ⅰ·Ⅱ/제품 디자인/단위 조작·공 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세라믹 원리·공정/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 석/식품 공업 기술/제조·봉제/염색·가 공/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구 조/선박 건조/항공기 기관/항공기 장 비/대기·소음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 인 【51종】
상업· 정보	○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 【2종】	○교과서 : 상업 경제/회계 원 리/컴퓨터 【3종】	○교과서 : 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 반/전산회계/자료처리/프로그래밍 실 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팅/기업 회계/ 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 케이션 실무/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25종】
수산· 해운	○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해운 정보처리/수산 생 물/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열기관/잠수 기술/해양 레저· 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 리 【12종】		○교과서 : 생선회 실무/수산 경영 일반 /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 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냉 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선 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전자/기계 설 계·공작/항해/선박 운송/해사 법규/해 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 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 【23종】

교과(군)	국정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CD 포함) : 관광 영어 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자수와 편물/주거·영·유아 교육 원리/관광 일반/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초 복지 서비스/공중 보건 【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CD 포함) : 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 교과서 :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해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동·서양 조리/한국·서양 의복 구성/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기초 간호 임상 실무/노인 생활 지원 【19종】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 I /정보 과학 II/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종】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 【16종】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시청·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종】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CD 포함) 심화 영어/영어 청해/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 교과서 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중국어 회화/중국어 독해/중국어 문화 I/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어 문화 I/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어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어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어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32종】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세계 문제/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 【22종】
총 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58종

<별첨 3>

교과용도서의 종류 및 구분기준

□ 교과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근거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과용도서 개념 :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합한 명칭

□ 국정도서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의 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
 - 한 과목에 1종류의 교과서만 존재하게 되어,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음
- ※ 초등학교 178종,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51종 등 총 334종(39%)

□ 검정도서

-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됨
- ※ 초등학교 22종, 중학교 56종, 고등학교 58종 등 총 136종(16%)

□ 인정도서

- 국정 또는 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개발된 도서 중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로서,
- 현재 인정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 초등학교 8종, 중학교 38종, 고등학교 336종 등 총 382종(45%)

[참고]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97)*	721(69%) 초 302 중 45 고(보통) 34 고(전문) 340	187(18%) 초 0 중 65 고(보통) 113 고(전문) 9	134(13%) 초 48 중 0 고(보통) 0 고(전문) 86	1,042 초 350 중 110 고(보통) 147 고(전문) 435
2007 개정 교육과정('07)*	537(56%) 초 280 중 5 고(보통) 3 고(전문) 249	181(19%) 초 22 중 56 고(보통) 89 고(전문) 14	239(25%) 초 48 중 28 고(보통) 9 고(전문) 154	957 초 350 중 89 고(보통) 101 고(전문) 417
2009 개정 교육과정('09)	334(39%) 초 178 중 5 고(보통) 3 고(전문) 148	136(16%) 초 22 중 56 고(보통) 52 고(전문) 6	382(45%) 초 8 중 38 고(보통) 78 고(전문) 258	852 초 208 중 99 고(보통) 133 고(전문) 412

※ 초등에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별첨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관련 제도 현황

구분	종전	개선안	비고																
국·검·인정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table border="1"> <tr> <td>국정</td><td>검정</td><td>인정</td><td>계</td></tr> <tr> <td>537 (56%)</td><td>181 (19%)</td><td>239 (25%)</td><td>957</td></tr> </table>	국정	검정	인정	계	537 (56%)	181 (19%)	239 (25%)	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table border="1"> <tr> <td>국정</td><td>검정</td><td>인정</td><td>계</td></tr> <tr> <td>334 (39%)</td><td>136 (16%)</td><td>382 (45%)</td><td>852</td></tr> </table>	국정	검정	인정	계	334 (39%)	136 (16%)	382 (45%)	852	*국정은 1종 1책주의, 검·인정은 1종 다책주의
국정	검정	인정	계																
537 (56%)	181 (19%)	239 (25%)	957																
국정	검정	인정	계																
334 (39%)	136 (16%)	382 (45%)	852																
교과서 선정 및 채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비리 관련 처벌규정 없음 ○ 교과서 이외에 별도의 교과서 선정관련 참고 자료 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채택비리 처벌 규정 마련·시행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및 5년간 출원제한) ○ 교육감에게 참고자료 제공 의무화(검정보고서, 집필자 의견서, 해설서 등) 	* '10년 상반기 중 초·중등 교육법 개정 추진																
녹생성장과 관련된 교과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교과서부터 폐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교과서 제작·보급 ○ 학생편의를 고려하여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3권에서 2권으로 합본 보급 	*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 「듣기·말하기·쓰기」, 「읽기」로																
검정 출원 자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자(출판사)로만 출원 자격을 부여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의 검정출원 자격 제한 ○ 도서별 1발행사 복수출원으로 지나친 경쟁출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있는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검정출원 자격 완화 ○ 도서별 '1발행사 1종'(국,영,수는 2종)으로 출원 허용함으로써 합격종수 적정화 유도 																	
교과서 가격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 교과서 가격을 검정 심사에 합격된 이후 학교 선정이 끝나고 주문량을 감안하여 사후 가격사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 ○ '12년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 가격 인상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검정 출원되는 도서의 가격을 사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정을 권고 ○ 가격자율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확대 및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실시 																	
e-교과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책형 교과서만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11년 국, 영, 수 과목부터 서책형교과서와 함께 보급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구분	1983년 (제4차 교육과정)	1988년 (제5차 교육과정)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2009 개정 교육과정)
합격 종수	5종 이내	8종 이내 (‘88. 8. 22)	8종 이내	폐지 (‘95. 2. 28)	폐지 (1발행사 다종 출원)	폐지 (1발행사 1종 출원)
합격 유효기간	5년 (‘84. 1. 18) ※ 2년까지 연장가능	5년 (‘84. 1. 18) ※ 2년까지 연장가능	6년 (‘94. 1. 1) ※ 3년까지 연장가능 ↓ 3년 (‘95. 7. 20) ※ 2년까지 연장가능	3년 (‘98. 2. 24) ※ 연장가능	5년 ※ 교육과정 개편 시 유효기간 종료	삭제 (수시 수정 개편 가능)
검정위원 공개여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공개 (2010년 검정심사부터)
채택비리 처벌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설
검정 대상 교과	6교과 (체, 음, 미, 서예, 한문, 사회과 부도)	9교과 (수학, 과학, 영어, 추가)	11교과 (가정, 기술·산업, 추가)	12교과 (사회, 컴퓨터, 환경, 추가) (가정/기술·산업→기술·가정) (서예 삭제)	20교과 (초등 영어, 실과, 체, 음, 미, 중등 국어, 도덕, 역사, 추가)	20교과 (고교 과학은 인정 전환)

<별첨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1.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국·검·인정 교과서 구분고시

- 국정도서 **고교 선택과목**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개발하고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인정도서로 전환**한다.
-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과목 특성 및 개발(공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으로 전환한다.
- 국정도서는 '10년에 개발 착수되는 **전문교과 145종부터 인정 전환**하고,
 - 검정도서는 검정실시 공고되지 않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의 교과서 39종부터 인정으로 전환한다.
- 수능 과목(14종)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학계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과학(9종)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 초·중·고교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초등 국·검정 지도서 등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한다.

※ 국정 지도서 68종, 검정 지도서 11종

※ [참고 1] 2010년 인정전환 대상 교과목(안)

학교급	국정→인정	검정→인정	인정 추가	현행 유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초		◦ 초등 5/6 영어 학생용 전자저작물 2종	◦ 학생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교사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국정유지 : 교과서 115 종, 지도서 68종 ◦ 검정유지 :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중			◦ 진로와 직업(신설) 1종	◦ 국정유지 : 교과서 5종 ◦ 검정유지 : 교과서 56종 ◦ 인정유지 : 지도서 37종
고	◦ 농업 경영 등 전문계고 101종 특목고 44종 총 145종	◦ 과학(9), 기술·가정 (6), 체육(3), 음악 (2), 미술(3), 외국 어Ⅱ(5), 한문Ⅱ (1), 원가회계 등 전 문 교 과 (8) 총 37종		◦ 국정유지 : 보통교과 3종 (아랍어Ⅰ, 러시아어Ⅰ, 안전과 건강), 전문교과 148종 ◦ 검정유지 : 58종(국어 7, 수학 14, 영어 8, 사회 12, 체육 1, 음악 1, 미 술 1, 가·가 1, 외국어Ⅰ (5), 한문Ⅰ, 보건 1, 전 문교과 6) ◦ 인정유지 : 교과서 159 종(외국어Ⅱ 2종 포함), 지도서 39종
총계	145종	39종	9종	710종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특별활동 지도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 [참고 2] 국정·검정·인정도서 책수 현황

<2009. 9월 기준>

구분	국정	검정	인정
유치원/특수학교	101	·	·
초등학교	216	·	1,112
중학교	45	718(63)	153
고등학교	372	871(121)	928
계	734	1,589	2,193

※ 인정도서는 '00년부터 '09년까지 시·도교육청 인정심사를 받은 도서를 모두 포함함

2. 검정절차 투명화 및 인정도서 심사 강화

- 검정절차를 투명화하고, '1발행사 1종'으로 출원을 제한하여 합격종수를 적정화한다.
 - '10년 검정심사부터 검정절차를 폐쇄형 비공개 합숙을 종전에는 16일에서 4일로 대폭 줄이고, 재택심사를 10일에서 42일로 강화하는 등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검정심사관리위원회 및 교과서검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합격도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11년 교과서 검정부부터 도서별로 '1발행사 1종'만 출원 허용한다.
(국·영·수 필수과목은 2종까지)
 - 합격 종수의 적정화를 유도하여 교과서 시장의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를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인정도서 심사를 강화한다.
 - '10년부터 인정도서 심사 시 전문연구기관 등을 공모 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과별 감수기관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되면 인정심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정도서 수시 개편을 위해 2010년부터 '인정도서 의무 사용 연한제'를 폐지한다.
 -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 ※ 검정도서도 수시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10년 검정실시 공고부터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할 예정임

[표 1] 교과별 감수기관 지정(안)

교과	감수기관(안)*
과학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연구회, 과학교육학회
기술·가정	IT 국제화기술연구소, 대한경영교육학회
체육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대한체력관리학회, 한국스포츠학회
음악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술	한국교육미술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국어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한문	근역한문학회, 한국고전번역원
디지털교과서 (전자저작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과별 감수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한다.
-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 분량이 많아져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2011년부터 기존 서책형 교과서 보급 시 함께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교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3. 외부 공공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 확대

□ 종전 개별 저작자(출판사)에게만 허용된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에게도 검정교과서 발행을 위한 출원자격을 부여**하였다.(‘10. 1월 검정실시 공고문에 반영예정)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기관과 외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국정도서 개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개발하는 국정도서(러시아어 I, 아랍어 I) 편찬기관 선정 시 공모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 ‘10년 정책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 국정도서 개발 추진에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또한,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에 외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 시 기존 교과용도서 심의위원 외에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기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한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교과서 분실·구매, 내용 수정 요구, 채택비리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한 교사,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한 별도의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한 불법·부정행위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 출판사의 과당경쟁 및 부정행위시 근거법규가 없어 이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 및 처벌 근거(과징금 3천만원 이하) 명문화하고,
 - 교과서 선정 비리로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에 대해서는 5년간 검·인정 출원을 제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일선학교 교과서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검정도서 공급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검정출원 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거쳐 교과서 가격조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을 추진한다.

【부록 2】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와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와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와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 와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와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와 같습니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 와 같습니다.
16.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별책 16】 와 같습니다.
17. 한문 교육과정은 【별책 17】 와 같습니다.
18. 중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8】 와 같습니다.
19.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9】 와 같습니다.
20.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 와 같습니다.
21. 공업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 와 같습니다.
22. 상업 정보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2】 와 같습니다.

- 23. 수산·해운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 와 같습니다.
- 24. 가사·실업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 와 같습니다.
- 2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25】 와 같습니다.

부 칙

-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적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차 례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I.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중점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I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즐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3) 각 교과(군)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 · 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

하도록 한다.

-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한다.

① 보통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표 1】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필수 이수 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안의 숫자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체육·예술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3) 보통교과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국어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초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영어		기초 영어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예술 실습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 과학 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 지구 과학 II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체육·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투기 운동, 병상 및 설상 운동, 표현 및 창작 운동, 스포츠경기 체력, 스포츠경기 기술, 스포츠경기 실습, 코칭론, 스포츠경영·행정, 체육 전공 실기, 전공 지도 실습
	예술	예술 (음악/미술)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미술창작, 미술문화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드로잉, 미술 이론, 미술사,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미술 전공 실기
		예술			무용의 이해, 기초 한국 무용, 기초 발레, 기초 현대 무용,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무용 감상과 비평,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 제2외국어/ 한문/ 교양			<p>안무</p> <p>문학 개론, 문장론, 고전 문학 감상, 현대 문학 감상, 시 창작 입문, 소설 창작 입문, 문예 창작 전공 실기</p> <p>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영화 창작과 표현,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p> <p>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중급 촬영, 암실 실기, 사진 편집, 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p>
			<p>기술 · 가정</p> <p>독일어 I, 독일어 II</p> <p>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p> <p>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p> <p>중국어 I, 중국어 II,</p> <p>일본어 I, 일본어 II,</p> <p>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p> <p>아랍어 I, 아랍어 II</p> <p>베트남어 I, 베트남어 II</p> <p>한문 I, 한문 II</p>	<p>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경영 일반, 해양 과학, 정보</p> <p>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 I,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p> <p>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 I, 프랑스어 독해 II,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p> <p>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 I, 스페인어 독해 II,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p> <p>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 I,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p> <p>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 I,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p> <p>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p> <p>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 I, 아랍어 독해 II,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p> <p>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II, 베트남어 독해 I, 베트남어 독해 II, 베트남어 작문, 베트남 문화</p>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 경과 녹색성장, 학교 스포츠클 럽	

- ①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
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②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
- ④ 예술 교과의 심화 과목 중 무용, 문예 창작, 연극 영화, 사진 관련 과목은 예술계
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4) 전문 교과

【표 3】

교 과	과 목				기 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생명 공학 기술 작물 생산 기술 원예 기술 대 가축 관리 조경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기계 공작 식품 위생 농산물 유통 관리 관광 농업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영어 원예 원예 전문 생산 반려 동물 관리 조경 설계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산 식품 가공 농산물 유통 실무 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 정보 관리 친환경 농업 생활 원예 동물 자원 숲과 인간 조경 사공 관리 농업 토목 시공·측량 농업 기계 정비 축산·수산 식품 가공 환경 보전	농업 경영 재배 생산 자재 중소 가축 관리 산림 자원 기술 농업과 물 농업 기계 식품 과학 농산물 유통 환경 관리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 업	공업 일반 전문 제도 기계 공작법 공작 기계 전자 기계 회로 로봇 제작 주조 전력 설비 전자 회로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토목 설계 지적 실무 건축 목공 색채 관리 시각 디자인 제조 화학 세라믹 원리·공정 식품 공업 기술 염색·가공 제판 실체 자동차 색시 선박 이론 항공기 기계 인간과 환경 컴퓨터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 시스템	기초 제도 기계 일반 유체 기계 산업 설비 전자 기계 공작 재료 일반 금속 처리 전기·전자 측정 전자 기기 통신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토목 재료·시공 공간 정보 건축 구조체 시공 조형 컴퓨터 그래픽 분석 화학 스마트 세라믹 섬유 재료 인쇄의 이해 사진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박 구조 항공기 기관 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만화 창작	정보기술과 활용 전기와 생활 공기 조화 설비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제조 전기 회로 전기 응용 전자·전산 응용 컴퓨터 구조 측량 수리·토질 건축 구조 건축 마감 시공 제품 디자인 공업 화학 파인 세라믹 발효 공업 방직·방사 인쇄 재료 디지털 인쇄 건설기계 구조·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대기·소음 방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영화·방송 제작	공업 영어 기계 구조와 기능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로봇 기초 재료 가공 전기 기기 자동차 설비 통신 일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학 지적 전산 건축 계획 디자인 일반 공예 단위조작·공정제어 세라믹 재료 식품 분석 제포·봉제 아날로그 인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차체 수리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만화·애니메이션기초 촬영·조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상업 정보	상업 경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자료 구조 상업 디자인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웹 프로그래밍 창업 일반	회계 원리 재무 회계 글로벌 경영 모바일 콘텐츠 상업 디자인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금융 일반 컴퓨터 일반	마케팅 원가 관리 회계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래밍 실무 유통 관리 미디어 콘텐츠 일반 금융 실무	기업과 경영 세무 회계 국제 상무 사무 관리 실무 물류 관리 미디어 콘텐츠 실무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수산· 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플랜트 일반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공조 기기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기초 해양 레저·관광	해양의 이해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해양 물류 일반	수산·해운 산업 기초 수산 양식 해양 오염·방제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가사· 실업	인간 발달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아동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보육과정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미용	급식 관리 제과·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놀이 지도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복지 서비스의 기초 메이크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 ㉡ 공업 계열 : 공업 일반, 기초 제도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② 농생명 산업에 관한 교과목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계열 공통 선택 과목으로 이수한다.
- ③ 전문교과목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 (나)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의 심화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의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한다.
- (다)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 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바)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사)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아)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 (자)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의 과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전문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교과의 이수료 간주할 수 있다.

- (ㄷ)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교과의 과목과 전문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ㄹ)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① 전문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ㄴ)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보통교과의 심화 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의 심화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보통교과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ㄷ)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 심화 과목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보통교과 심화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ㄹ)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

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24) 교과용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5)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활동

-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교과목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목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8)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19)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

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식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부록 3】 설문지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초등학교 교사용)

<일반사항>

1. 담당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2. 교직 경력: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3. 성 별: ① 여 ② 남

<설문 문항>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위한 교과부의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일부 교과용도서(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문 문항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 일동

1. 새로 도입된 검정도서를 이전의 국정도서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②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나아졌다. ⑤ 많이 나아졌다.

☞ ④, ⑤번에 응답하신 분은 1-1번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1-1. 검정도서가 국정도서보다 나아졌다면, 어떤 부분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디자인이나 편집상태 등 외형 체제 ② 교과서 내용의 선정 및 구성
- ③ 교사용 지도서 (내용 및 체제) ④ 관련 교수·학습 자료 (CD 등 부수 자료)
- ⑤ 기타 -----

2. 국정도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한 결과 각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는 얼마나 되며, 어떤 점에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교과	나아진 정도					나아진 점
	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②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나아졌다.	⑤ 많이 나아졌다.	
2-1. 영어	①	②	③	④	⑤	
2-2. 체육	①	②	③	④	⑤	
2-3. 음악	①	②	③	④	⑤	
2-4. 미술	①	②	③	④	⑤	
2-5. 실과	①	②	③	④	⑤	

3. 국정도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하면서 아래 각 항목에 대해 교사들이 가졌던 경험은 무엇이며, 부정적 경험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	경험의 성격					부정적 경험이었다면 개선/지원 방안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그저 그랬다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1. 교과서의 선정/채택	①	②	③	④	⑤	
3-2.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제공	①	②	③	④	⑤	
3-3.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내용의 불일치	①	②	③	④	⑤	
3-4. 검정 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 양과 수준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3-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4.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확대할 필요가 없다. ② 별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⑤ 매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①, ②번에 응답하신 분은 4-1번, ④, ⑤번에 응답하신 분은 4-2번 문항에 응해 주십시오.

4-1. 검정도서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2. 검정도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대 방안	찬성 정도				
	① 매우 반대 ④ 약간 찬성	② 약간 반대 ⑤ 매우 찬성	③ 그저 그렇다		
5-1. 현행 유지 (5-6학년의 영/체/음/미/실만 검정 실시)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5-2. 3-4학년의 (영)/체/음/미로 확대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5-3. 5-6학년의 국/수/사/과/도로 확대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5-4. 3-6학년의 전 교과로 확대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5-5. 초등학교 전 교과로 확대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5-6. 기타 _____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6.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록 4】 1차 토론회 자료집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5월 31일(화) 14:30~17:3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1층 사향문화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일정

14:30 - 15:00 등록

15:00 - 15:05 개회사 · 국민의례

사회 : 박상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5:05 - 15:40 <주제발표>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15:40 - 16:40 <지정토론>

강미애 (전주아중초등학교 교감)

김혜원 (서울성재중학교 교사)

박흥권 (부산금정고등학교 교장)

송호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조성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실장)

김범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6:40 - 17:30 종합토론

사회 : 김만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위원)

목 차

- 주제발표 :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 토론1 :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장 미 애 (전주아중초등학교 교감)
- 토론2 :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김 혜 원 (서울성재중학교 교사)
- 토론3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박 홍 권 (부산금정고등학교 교장)
- 토론4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에 대하여
송 호 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5 : 초·중등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에 대하여
조 성 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개발실장)
- 토론6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에 관한 토론
김 범 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 토론1 : 강미애 (전주아중초등학교 교감)
- ☐ 토론2 : 김혜원 (서울성재중학교 교사)
- ☐ 토론3 : 박홍권 (부산금정고등학교 교장)
- ☐ 토론4 : 송호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토론5 : 조성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실장)
- ☐ 토론6 : 김범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외국의 교과용도서를 통해 바라보는 교과용도서의 구분 방향

강 미 애
[전주아중초등학교 교감]

교과서⁹⁾란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소재를 제공하는 과목별 교수 학습 자료이다. 즉,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이고, 교과서 속에 반영된 내용으로서의 문화가치 체계는 학생의 행동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외국과 한국의 교과용도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보면서 초등학교에서 교과용도서 구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교과서를 살펴보면 외형상의 특징은 화려하게 구성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표지가 두껍고 책 쪽수 또한 많아 두꺼우며, 각 장 모두 총천연색으로 되어있으며 그림이 많고, 내용 전개나 문제 상황에 직결되지 않는 화보나 읽을거리까지 싣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교과서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문제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실험이나 관찰 및 탐구 학습의 설명도 매우 논리 정연하다.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읽을거리를 주는 '이야기 중심의 접근법'으로 쓰여 지식 전달 중심이라기보다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지식으로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능상으로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학교

9) 외국의 교과용도서 내용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이정기(백석대학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7-04

사물함 등에 보관을 하게 되며 숙제나 시험 등 필요할 때만 집에 가져가 공부를 한다고 한다. 즉, 교과서는 수업할 때의 참고용 도구이지 항상 가지고 다니며 공부해야 할 절대적인 수업, 공부 자료가 아닌 것이다.

미국 교과서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교과서는 교과서(Textbook) 및 토픽 북(Topic book) 등의 개념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은 모두 교과서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 학습을 위해 쓰이는 도서"와 "학교에서 쓰기 위해 교사가 출판사의 카탈로그에서 선정한 도서" 그리고 "도서관(실), 서점에서 선정된 학교용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Class text)은 모두를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즉, Core book : 계통적, 요약적 학습용의 중핵교재, Topic book : 특정 주제에 심화 학습을 위해서 만든 교재(주제별로 분책한다), Resource book : 풍부한 통계자료인 자료로서 구분한다.

셋째, 독일의 교과서는 그 내용과 교수법에 있어서 국가 기본법의 틀과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주(州) 교육 과정(Lehrplane)과 지침 규정(Richtlinie)에 일치해야 한다. 교과서는 단순히 내용 위주의 구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교수방법과 형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내용도 서로 다른 효과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교과서의 경우 - 특별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용중심의 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과서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라는 교수법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교재로 생각하며 실제 학생들과 교사들 또한 교과서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무게는 곧 학생들의 짐

이 되며 학교에서 조차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을 열악한 교육환경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과서도 일반도서와 같은 재미있고 읽을거리가 가득한 자료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풍부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데 많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끔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경우나 자습시간에 학생들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책을 읽으세요. 하면 ‘읽을 책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교실에 있는 책은 다 읽었는데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럴 때면 읽기 책이나 사회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하나같이 ‘아이! 왜 재미없는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세요!’ 하며 항의를 한다. 아무리 교과서는 재미있는, 읽어볼만한 감동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다. 교과서도 풀어 보면 교과용도서인데 말이다.

하긴 내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교과서란 단지 수업시간이나 시험 때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교육과정의 탄력적 현장 운영을 지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군제나 교과군제’를 도입하고, 학교에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하여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강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란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하는 소재를 제공하는 교수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의 정의가,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으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한 시기이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핵심적 내용 위주의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용도서로의 그 정의가 전환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풍부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창의적이고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가 반영되며,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제시하여 학생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수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발제자의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로의 대폭적인 확대’,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용도서의 편찬방향 또한 전환해야 된다고 본 토론자도 생각한다.

여기에서 국·검·인정도서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정교과서가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기만 하는 형식의 교과서 체제가 좀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검정이나 인정, 자유발행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교과서는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본다.
(윤옥희,세광음악출판사 편집과장)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가격과 질 면에서 자신있게 검정교과서가 우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격의 문제는 우리들이 검정교과서 확대를 시키기에 앞서 검토해야할 내용으로 생각한다. 또한, 검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연구하고,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검정도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질 개선을 위한 교과서 모니터요원을 구성하여 교과서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검정과 달리 인정도서는 편찬지침이나 전문 출판사나 편집자가 없고, 비용투자도 국·검정에 낮다.

발제자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전 교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체제, 일본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의 지리적 위치,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작은 땅덩어리 등을 살펴볼 때 국가 정체성과 내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검정교과서로의 전환 요구가 많아도 검정도서를 심사할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검정교과서도 국정에 비해 다양성이 강조될 수가 없고, 단지 일선 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심사해야하는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검정교과서인 영어교과의 심사의 예를 들어보면, 2011년도에는 선정도서학년이 3, 4학년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교과서의 종류가 20종이 넘는다. 이를 심사공고, 교과서 홍보, 심사위원 선정, 심사표 작성, 심사, 심사회의록 작성, 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그 심사의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도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는 많은 단점이 야기된다. 내용의 선진화 및 다양성에 앞서 초등학교 5, 6학년 모든 교과를 검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이런 업무과중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좀 더 검정교과서체제가 정착이 된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본 토론자의 생각이다.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의 교과서화 촉진, 간단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을 통한 질 좋은 교과서 개발 등을 위하여 인정도서 종수의 확대하자고 하였는데,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는 인정도서를 컴퓨터 교육이나 한자교육 등 한두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도서를 확대시키면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교사들의 자존감 및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다양한 교과서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교과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지역의 인쇄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인정도서를 살펴보면 첫째, 인쇄의 질, 즉 편집이나 그림, 사진 등이 조잡하고, 둘째, 교과서라 하면 학생들에게나 교사에게 학습에 대한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인정도서들은 인정심의 후에는 수정·보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내용상의 결함이 노출된다. 전문가들이 모여 제작한 인정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체계적인 차이점만 있을 뿐 내용상의 변화가 없는 교과서들이 많다. 넷째, 인정도서가 장점으로 지녀야 할 다양성이 부족하다. 즉,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출하고, 자기주도적학습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인정도서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의 의견이다. 인정도서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야 교과서 구분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재미있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방향에서 자유발행제를 제의해 본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그동안 국가나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현장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군제나 교과군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강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등 학생들의 다양성을 키워주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를 교과서에 포함시킨다면 교과서는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즐겁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량활동이나 진로교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교과서로서의 인정만 받는 자유발행제를 실행하는 것이 교육과정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찬성하는 바이다. 공식적으로 교사용 지도서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지도 자료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굳이 교사용 지도서를 국정이나 검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인정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현장 선생님들의 지도방법과 자료가 공유되고 활용되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학년군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합책이나 분책**을 해야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학년군 도입으로 연계된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서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집필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발제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전교과를 검정으로 전환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교과별 연계를 어렵게 만든다. 즉, 5학년 때와 6학년 때 검정교과서를 심의하였을 때 꼭 같은 회사의 교과서가 선정되지는 아니할 수도 있다. 이때 교육과정의 중점은 같을지라도 교과내용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3-4개로 분책을 하였다면 이는 전학을 하거나 학년이 바뀌었을 경우 전출이 많은 도시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출입을 가는 경우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과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는 교과서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발생한다. 또한, 검정교과서가 많아지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어디에서나 교과서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검·인정 도서간의 위계적 서열 체계 해체하는 것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위계적 서열 체계를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서가 시중에 출판될 것이고,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앞서 교과서가 다양해 질 수 있도록 국·검·인정

도서의 심사체제 및 인력관리가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발전된 교과서를 위해서는

첫째, 교과서 체제에 대한 심사요건이 융통성 있고,

둘째,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며,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하고,

넷째,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발행기관이 어디냐의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과정의 흐름에 어울리게,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학생들의 창의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사가 교과를 지도할 때 교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되는지가 교과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아닐까 한다.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교육의 중심이지 교과서가 교육의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참고자료>

교과서 연구(2011).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기대하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부산교육청·부산교육대학교(2010).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국 워크숍. 부산교육청.

이정기·정영근·김진규·고원석(2007). 외국의 교과용도서 내용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홍후조·백경선·김대영(2008).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홍후조·함수곤·윤광원·조성준(2006).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김 혜 원
[서울성재중학교 교사]

1. 인정교과서의 확대 측면

- 인정교과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하다는 것이 곧 ‘산 지식’이나 ‘창의적인 교육’과 동일시되어서는 곤란하다.
- 교과서가 다양해질 경우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던 시절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나 그 제재에 관련된 학습활동의 질문의 답을 외워버리는 암기식 학습에서 학습목표에의 달성도를 목표로 하는 수업을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과서가 다양해질수록 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 수준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교육 수준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 국가의 철저한 검증 심사를 정부의 간섭으로 볼 것이냐, 지나친 교육의 질적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이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인정한다면, 전문적인 연구 집단이 중심을 잡아주고 기본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교과서의 다양화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 외 잡무가 과중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교과서를 탐색하여 지도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 시

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잡무 경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교사에게 지나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별학교나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보다 현장 교사 개개인에게 2차적인 교과서 심사의 책임을 떠맡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교과서 채택과정의 비리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평가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 국정에 비해 편집이나 디자인과 같은 외양꾸미기로 치중하는 교과서들이 많았고, 실제로 채택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
- 모든 교과서는 재구성을 필요로 하지만, 검정과 인정이 국정 교과서에 비해 재구성도 많이 필요하고 오류도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 철저한 심사 기준과 아울러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오류 수정을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많은 과정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교과서의 선진화 측면

- 선진화의 기준을 하드웨어에 둘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좀더 책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올해 'e-교과서'라는 명목 아래 교과서의 내용을 PDF파일로 수록한 CD(국어, 수학, 영어) 학생들에게 배포했으나 거의 방치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 5월 26일 자 기사에 따르면 올해 학생들에게 배부한 'e-교과서' 이용률이 86%로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 있음)
- 'e-교과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야만 표현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된 보충 자료로서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시를 낭송한 자료나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작품, 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문학기행 프로그램, 신문 기

사 등)

- 자료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도, 개개 학생들에게 CD를 배포하는 것보다 각 출판사가 운영하는 교과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교과서는 학습 독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스스로 메모하고 정리해 가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메모 가능한 종이책 교과서가 중심이 되고 멀티미디어 교과서는 보조 교과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합책/분책의 측면

- 합책/분책의 문제는 교과서를 늘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입장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문제이다.
- 교과서 내용과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좀 더 유연성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가방을 가볍게 한다는 효과 면에서 볼 때, 'e-교과서'를 배포하는 것보다 합책/분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2007년 개정 중학교 국어의 경우, 각 학년에 한 학기당 '국어'와 '생활국어'한 권씩 한 학년에 총 4권의 교과서로 구성되어있다. 대체로 '국어'는 원리 학습 교재라면 '생활국어'는 적용학습의 내용으로 나뉜다. 따라서 한 단원의 수업이 '국어'와 '생활국어'를 연결해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두 권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을 분기 당 한 권씩으로, 한 권에 '국어'와 '생활국어'를 합책하는 방식으로 훨씬 이용이 편리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박 홍 권

[부산금정고등학교 교장]

-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울수 있는 질높은 교과용도서 마련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및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 고등학교에서 인정 확대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자율성 보장, 절차 간소화, 교사 자체 제작의 교과서화 촉진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에 적용할 다양한 교재 마련을 기대하며 길게는 창의력 신장이 기대됨
반면 현재 인정도서 제작을 위한 보다 많은 수준 높은 전문가 배양 및 확보의 미흡, 16개 시도 교육청등 여러 인정 심사기관에서의 심사시 일정 수준 유지 및 일관성 유지 미흡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질 높은 교과용도서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검정시 적용된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 등(페이지, 가격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도 함께 고민
- 고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으로는 고등학교 인정을 대폭 확대하는 차원에서 3안의 '고등학교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정책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

는 방안'과 4안의 '전문교과는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하여 원안의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교과용도서 인정확대를 위한 지원 방향

▷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인정심사기관이 16개 시도 교육청임을 감안할 때 각 기관간의 심사의 형평성,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유지 등 심사시간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다양한 교과용도서 마련과 질 관리를 위하여 가격, 페이지, 지질 등 효과적인 규정 마련에도 신중을 기하여야한다고 봄.
다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은 단순히 심사체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많은 교사와 전문가의 교과서 개발에 관한 관심, 참여와 함께 전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풍토조성도 필요하다고 봄

▷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적용한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다양하고 질높은 교과서 마련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과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바, 교과서 구입 경비 지원, 또는 교과서 대여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한편 시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는 도덕성, 청렴(금품수수 등 부당행위 금지) 준수가 어느 때 보다는 필요하며, 국민 공감대를 위하여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함

▷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울수 있는 질높은 교과서를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딱딱하고 압축 중심의 교과서에서 보다 풍성한 스토리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되었으면 함
-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개편된 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졌음

그러나 참고서와 비교하여 'best seller'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함
특히 대입선발과 연관이 높은 과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과서가 참고서보다 교육적으로 질이 높아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음

이는 대학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문항이 5지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은 오히려 요약정리 위주의 참고서를 선호하기 때문임

따라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선발방법의 개선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에 대하여

송 호 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1. 발제자의 원고 안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탐색 과정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함
-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서는 학습 교재를 사용해야 함
-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과서는 학습 자료의 하나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중량감이 남다름
- 학교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가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임
-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교과서를 다양화,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교과용도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 교과서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국정도서를 검정이나 인정도서로 전환할 필요는 있음
- 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교과서 다양화 정책에 역행할 여지가 있음
- 특히, 소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의 경우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

환하면 교과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전문교과의 경우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은 국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 초등학교 교과서는 5-6학년 전 교과를 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찬성하며 더 나아가 3~6학년 교과서를 모두 검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지
- 고등학교 일반교과는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지지
- 전문교과는 각 교과군 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할 교과를 선정하여 국정으로 관리하고 기타 과목은 심의 없는 인정으로 전환
- 교사용 지도서는 초, 중, 고 모두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전환

□ 교과용도서의 합책/분책 개발

-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학년군별로 분책
- 중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 국정, 검정, 인정 순으로 도서들이 위계적 서열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 교과서 사용이 아니라 교과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변경 필요

- 검정이나 인정으로 전환했을 경우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들을 국정으로 관리
- 현재 인정도서 중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교과서가 많음. 이것을 과연 인정도서로 볼 것인가?
- 현행 인정도서 합격률이 거의 100%인 것은 심사 체제가 느슨해서라기보다는 인정도서의 성격에서 기인. 즉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신청한 교과서를 불합격처리하면 학교 교육을 방해할 수 있음. 심의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인정
- 발제자는 “인정 심사를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 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가능할까?
- 인정도서 확대의 기본 취지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과서를 개발하여 인정 심사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게 아니라 “학교가 교육목적 상 필요한 책자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라고 봄
- 인정 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교과서,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며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2. 발제자의 원고 밖으로

☐ 자유 발행제가 아니고 자유 선택제

- 교과서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교육자료이다.
- 교과서를 자유 발행 체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정도서로의 전환 확대가 교과서 다양화에 기여할까?

- 소수 선택 과목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런 교과서의 경우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양질의 교과서 개발 필요
- 인정도서로 확대가 필요한 교과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배우는 과목임

□ 기타 몇 가지 자유로운 생각들

- 검정도서가 필요할까?
 - 검정도서의 존재 목적 불분명함(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유지?)
 - 검정도서를 폐지하고 인정도서로 전환, 대신 인정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수”를 의무화 하여 인정도서의 질관리 철저
- 수학능력시험에 EBS 교육 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연동시키는 정책이 학습 보조 교재 출판 시장에 미친 영향 → 가장 강한 하나만 살아남는다.

초·중등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에 대하여

조 성 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개발실장]

1. 시작하는 말

조급한 계획은 첫눈에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천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 결국 ○○에 이르게 된다. -리비우스

교과서 정책이 또 요동치며 바뀌는 것 같다. 이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폭이 크고, 강도가 센 것 같다. 사전 연구와 준비, 홍보를 충분히 하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단 벌려 놓고 헤쳐나가는 듯한 모습이다. 야구에 빗대면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작전과 흡사하다.

혹시 이 계획이 잘못되면 이에 따른 궁극적인 피해자는 학생일 것이나, 최초의 피해자는 출판사라 할 수 있다. 교과부의 정책이 견실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출판사가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되면 좋겠으나, 안정성을 잃으면 출판사는 혼란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토론자는 우선 교과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축소, 검·인정 교과서 확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다.

2. 원론적 확인

(1) 국·검정 교과서 축소 및 인정 교과서 확대의 의의

- ① 정부 주도의 국·검정 중심 제도에서 민간 중심의 인정 제도로의 중심축 이동¹⁰⁾
- ② 교과서의 발전적 변화 기반 마련
- ③ 학교 교육의 변화
- ④ 시대적 변화 추세 수용

(2) 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 및 목적

- ① 교육과학기술부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 확대
 - 정부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
- ② 교과서 출판사
 - 교과서 제도의 변화가 출판사의 수익 및 장래에 미치는 영향
 - 개발할 교과서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또는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Concentration)’에 대한 고민
 - 초등 교과서의 검정화 범위
 - 중·고등 교과서의 인정화 범위
 - 교과서 개발비와 기대 효과

10) 우리나라에서 검정교과서의 시작은 조선 정부가 학부 관제를 제정, 공포(1894. 3. 25.)한 1년 뒤에 공포한 소학교령(1895. 7. 19.), 중학교 관제(1899. 4. 4.) 등으로 뒷받침되나, 이것이 실현된 것은 1890년대 후반부터였다.(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근대교과용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 1991. p.121.)

(3) 이전까지의 상황 :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국·검정 중심이었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부터 검·인정 교과서가 확대되는 등 제도적 변화 폭이 컸다.

- ① 초등학교 : 전 교과 국정에서 일부 교과의 검정화(5~6학년 음악·미술·체육·실과, 3~6학년 영어)
- ② 중학교 : 국정의 검정화(국어, 도덕 등), 검정의 인정화(지도서 등)
- ③ 고등학교 : 국정의 검정화(국어, 도덕 등), 국정의 인정화(전문계 교과 일부), 검정의 인정화(주로 2, 3학년 과정의 다수 교과)

3. 돌아보기(교과서 제도 변경 이전에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목적 및 방법의 재검토

이는 변화되는 교과서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중간 과정이다.

- ①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가?
- ②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차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성공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를 하였는가?
(예)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학교 교육의 변화(→ 교육의 질 향상)
- ③ 제도의 성공적 정착 요건은 무엇이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 사례를 분석하여 차기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는가?

(2)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는 창의성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 ① 인정 확대에 알맞도록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상세화할 것인가?
- ② 인정 심의 시 교육과정 적용 기준을 검정 교과서 정도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느슨하게 확인할 것인가?

(3) 교과서 시장 규모에 대하여

교과서 시장 규모와 교과서 총 매출액은 출판사의 전문성, 교과서 개발 투자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판사 간의 과잉 경쟁과 부조리,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독과점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수용자 실태와 요구 분석에 대하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제도 변경의 명분이 제아무리 좋아도 사용자, 즉 학교 현장에서의 수용성에 문제가 크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 ① 초등학교 교사는 음악, 미술 등의 검정 교과서의 창의성, 질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 ② 학부모와 학생은 초등 검정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5) 교과서 선정 및 유통상의 문제는 충분히 점검하였는가?

이는 질 높은 교과서의 공정한 선정, 적기 공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임.

① 교과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정 교과서는 학교 전시를 통해 선정. 인정 교과서는 임의 선정하고 있어 교과서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② 교과서 주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정 교과서는 전수 NEIS를 통해 주문. 인정 교과서는 NEIS, 출판사 총판, 교과서 공급소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3원화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움.

③ 교과서 수익금 : 주문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불공정 문제 야기 우려)

④ 공급 : 인정 교과서의 확대에 따라 큰 혼란이 야기되어 교과서 적기 공급 차질이 우려됨.

(6) 교과서 개발 기간은 충분 또는 적정한가?

교과서 제도 변경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정한 교과서 개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 2013년 사용을 위해 약 7개월의 개발 기간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질까?

(7) 교과서 개발, 가격 결정, 외형 체제, 심사자율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제도는 ‘정부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교과서 개발, 가격 결정, 외형 체제, 심사의 자율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 변경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 ①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인가? 특히, 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정부 규제를 폐지할 것인가?
- ② 시장 원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8) 교과서 질 확보 및 관리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교과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과서 질 확보 및 관리 방안은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 ① 교과서의 질 사전 확보 및 사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②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같은 페널티 제도를 둘 것인가?

(9) 교과서 예산 대폭 증가 및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른 해결책은 있는가?

가격 자율화를 할 경우 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예 : 고등 과학), 중학교의 경우는 정부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을 야기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과서 구입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4.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에 대한 의견

(1) 초등학교

- ① 의견 : 제1안(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전 학년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

- ② 이유 : 제2안(5~6학년의 전 교과로 검정 확대)은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과서 외형 체제의 학년군별 생경성 야기

(2) 중학교

- ① 의견 : 제2안(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 '역사'를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 ② 이유 : 과거 국책교과인 국어, 도덕을 검정으로 전환하였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사회는 검정이므로 본 제도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인정 교과서 범위를 확대함.

(3) 고등학교

- ① 의견 : 제2안[(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 '역사'를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다만, 선택 교과서 중 교과서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교과는 국정 또는 각 시도 개발 인정 교과서로 전환
- ② 이유 : 중학교와 같음.

(4) 교사용 지도서

- ① 지도서 사용도 : 초 > 중 > 고
- ② 초등학교 : 검정 교과서에 따른 지도서의 검정화. 또한, 영어의 학생용·교사용 전자저작물도 현행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출판사 과당 경쟁 및 과출혈의 원인)
- ③ 중학교 : 제2안(중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에 찬성함.

- ④ 고등학교 : 제3안(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에 찬성함.

(5) 합책 · 분책 개발에 대하여

- ① 외형 체제 자율화, 시장 원리 반영하여 합책 · 분책도 자율화 방안 검토
- ② 제2안 : 교육과정 집중 이수 시 수업 축소 및 학년 쏠림이 매우 큰 교과 중심으로 합책
- (예) 초등학교 : 음악, 미술은 학년군 단위로 합책. 그 밖의 교과는 현행 체제 유지
- 중 · 고등학교 : 음악, 미술, 한문은 합책. 그 밖의 교과는 현행 체제 유지

(6) 인정 심의 체제에 대하여

※ 용어 사용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검정 도서는 ‘심사’, 인정 도서는 ‘심의’로 표기되어 있음.

- ① 인정 도서의 취지를 살리려면 느슨한 심의 기준이 요구됨.
- ② 다만, 교과서의 질과 창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 수정 · 보완을 아무리 하여도 교육용 교재로서 부적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적격 판정을 전제로 수정 · 보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 검정 기준에서 공통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과별 기준은 느슨하게 적용함. 그래야 창의성 있는 다양한 교과서가 편찬됨.
 - 표현 · 표기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표현 · 표기의 오류 검색 프로그램을 교과서 출판사에 제공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함.
- ③ 교육용 교재로서의 미흡한 교과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히 퇴출될 것임.

(7) 가격 자율화 정책에 대하여

- ① 가격 자율화 제도 : '교과서 가격 자율화'란 출판사 등이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에 터한 제도임.
- ②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 사전 심의', '가격 조정 권고'를 염두에 두고 있음.
- ③ 그러나 이는 '규제'이며, 자유발행제를 향한 제도 개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④ 따라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흥미롭고 친절한 교과서 개발에 대하여

- ① 교과서 합책·분책을 포함하여 외형 체제의 완전 자율화
 - 외형 체제를 자율화하였다고 무분별한 체제의 교과서가 발행되지는 않을 것임.
 - 출판사에서는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소비자(학생 및 교사)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원하는 모양의 교과서를 펴낼 것임.
 - 즉, 출판사에서는 학생 및 교사가 이용 및 휴대하기에 알맞은 적절한 책 무게 및 크기, 공급의 편의성, 가독성 및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외형 체제를 정할 것이므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할 때, 출판사에서는 흥미롭고 친절하며 창의적인 교과서를 스스로 연구하여 펴낼 것임.
 - 또한, 소비자는 가격 대비 질을 평가하여 선택 사용할 것이므로, 정도 이상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
- ② 교과서 개념의 확대 적용에 대한 준비
 - 외형 체제를 자율화한다면 출판사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흥미롭고 친절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만들 것임.

- 출판사에서는 서책 일변도를 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교과용도서의 범위, 즉 서책·음반·영상·전자저작물을 뛰어넘어 웹(Web), 앱(App) 등의 수단을 십분 활용하고, 최신 기기를 이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학교 교육 재료와 방법’을 구안해 낼 것임.
-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며, 교과부의 적극적인 자율 추진은 현재 생각하지 못하는 교육 재료와 방법을 태동하게 하는 바탕이 될 것임.

5. 맺는 말

국·검정 교과서 축소, 인정 교과서 확대는 교과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과서 제도 변경을 통해서 교과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과부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나, 방법과 추진 속도면에서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급속한 종료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의 급속한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 갈 테니, 올 사람만 와라!’ 하는 식인 것 같다.

현실의 개선 또는 개혁은 ‘현실’을 제대로, 충분히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 토대 위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분 좋은 안을 먼저 내고, 여기에 현실을 꿰맞춰 이끌고 나가는 듯한 것이 현재의 양태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추진될 것도 있겠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후·좌우를 고려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면서 튼실한 제도를 구안,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라는 잠언이 있다. 이때의 아픔과 상처는 발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출판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문제 있는 제도의 특징이다. 그동안 정신없이 뛰었으니, 이제는 ‘우보(牛步)’하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필 때이다.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에 관한 토론

김 범 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선진화 방안에 관하여 여러 나라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간 현황에 관하여 연구하여 주신 김재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자께서는 우선 우리나라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국정을 검·인정으로, 국·검정을 인정 중심 체제로 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여 인정 절차를 거쳐서 일반도서도 교과서로 사용가능한 체제로 지향하여 가는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연구자께서 주요국가의 교과서 발행제도 현황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0개 국가 중에서 국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으며, 검인정이 3개국이고 나머지는 7개 국가는 인정 또는 자유발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만이 국정도서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교과서 115종이 국정, 검정이 11종으로 대부분이 국정도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10개 기본교과와 교과서가 모두 검정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제2외국어 5종이 국정이고, 진로와 직업이 인정도서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검정도서이거나 인정도서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특별한 교과에 한하여 국정인 실정이다. 연구자의 원고를 중심으로 토론자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별로 동일한 교과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교육기간의 교과서 제도는 같은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발전방향에 제시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현황을 제시한 것을 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구분이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학교급별로 교과서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의무교육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과에 따라서 교과서 제도를 달리하는 것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교과는 국정, 어느 교과는 검정, 어느 교과는 인정도서로 한다는 논리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자께서는 초등학교는 검·인정을 확대하고, 중학교는 인정을 확대한다는 제안에는 구체적인 교과목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로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동일한 교과서 제도를 적용하고, 교과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검정이나, 인정도서로 발간되기 어려운 교과서의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정도서를 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국정보다는 검정도서로, 검정도서 보다는 인정도서로 교과서 제도를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국정이 대부분이므로, 가장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과거의 국정도서에 비하여 검인정 도서인 경우 그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정도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정도서의 경우는 좋은 도서를 개발하는 데에 집필자가 노력하는 것 보다는 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정도서의 경우라도 출원한 도서에 대해서 수정지시를 통하여 많은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검인도서

인 경우에는 출원한 도서와 검인정에 합격한 도서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의 검정도서의 경우는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 않은 여러 가지 교과서가 개발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교과에 따라서 많은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는 아주 적은 수만 검정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검정을 하는 경우라도 거의 출원한 도서는 수정지시를 통하여 지시사항이 이루어지면 합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정의 자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 보다는 수정지시를 통하여 많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본다면, 국정도서는 검정도서로, 검정도서는 인정도서로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인정도서의 경우에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어 완성도가 높은 도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연구자께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교과에 따라서 인정도서가 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고등학교도 모두 같은 교과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모두 인정도서로 하되 특별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수정보완 지시를 통하여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발행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의 합책과 분책의 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자께서는 과목별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군 도입에 따른 문제라고 하지만, 어떤 규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학년군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어렵게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 개발자들이 교과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할 문제로 국가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년군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의 위계와 학습량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과 매우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하여 새로운 교과서제도가 확립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오늘의 토론이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차 토론회 자료집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일시 : 2011년 7월 7일(목) 13:30~17:2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1층 사향문화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일 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05	개회사 · 국민의례	
		사회 : 박소영 (대구대학교 교수)
14:05 - 14:50	<주제발표>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14:50 - 16:30	<지정토론>	
	조석환 (경기송원초등학교 교사)	
	최은정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임흥수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김풍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윤광원 (미래엔컬처그룹 상무)	
	정순영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16:30 - 17:20	종합토론	사회 : 김만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위원)

목 차

- 주제발표 :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 토론1 : 초등학교 기준에서 본 검정제도 확대와 교과서 구분고시(안)에 대한 문제 제기
조 석 환 (경기송운초등학교 교사)
- 토론2 : 중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접근과 고찰
최 은 정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 토론3 :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임 홍 수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교사)
- 토론4 :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방향 탐색에 대한 고찰
김 풍 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5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에 대하여
윤 광 원 (출판사 미래엔컬처 상무)
- 토론6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 토론-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정 순 영 (서강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 토론1 : 조석환 [경기송운초등학교 교사]
- ☐ 토론2 : 최은정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 ☐ 토론3 : 임홍수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교사]
- ☐ 토론4 : 김풍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토론5 : 윤광원 [출판사 미래엔컬처 상무]
- ☐ 토론6 : 정순영 [서강대학교 교수]

초등학교 기준에서 본 검정제도 확대와 교과서 구분고시(안)에 대한 문제 제기

조 석 환
[경기송운초등학교 교사]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었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지난 2011년 6월 29일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 와중에 대통령에게 <스마트추진교육 전략>을 보고했다. 2015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이를 대신할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보급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내용,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은 물론 공책까지 들어있는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포함된 미래형교과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내년(2012) 또는 후년(2013)에 출판될 책들은 2~3년 쓰고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 역사상 교육계에 이러한 일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자의 시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새 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새 제도는 기존 제도의 장점도 계승해야 한다. 셋째, 새 제도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없어야 한다. 넷째, 새 제도의 실제적 운영주체가 새 제도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새 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더구나 교육의 근간에 해당하는 교과서에 대한 제도라면 아무리 큰 장점이 있는 제도라도 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최소화가 보장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교과서 검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일단 이번 시안에서 전면적인 검정화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또는 인정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리고 검정화된 과목들에 대한 국정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¹¹⁾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았다.

“학교에 교과서를 주지 않고 모든 교사가 알아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가르치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것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를 마련한다면, 그것이 국정이든 검정이든 인정이든 차이가 있는 것인가?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손에는 국가의 일정한 심사 체계를 통과한 하나의 교과서가 쥐어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된다. 검정과 인정을 통해 다양한 교과서가 세상에 출판된다고 해도 학생은 결국 하나의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교사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 중에서 최고의 교과서를 고를 수 있는가? 여러 교과서들의 우열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정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게 해 놓고 국가가 최고의 심의진을 구성해 최고의 교과서 하나를 선정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과서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면 교과서에 발생한 우열을 그대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의

-
- 1) 2011년 5월 11일자 중앙일보 기사 <2011년, 초·중 3~4학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천재교육 검정영어교과서로 학교에서 수업……해법영어교실의 모회사인 천재교육이 만든 교과서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중·고등학교 교과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1년부터는 초·중 3~4학년 영어교과서 점유율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천재교육 영어교과서의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신대비 특강교재인 'Catch Up'을 해법영어교실에서 출시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2011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천재교육에서 만든 영어교과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영어교과서 내용을 수록한 교재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법영어교실 회원모집에 학부모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

2010년 11월 3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2011년 중·고교 교과서에 대한 일선 학교에서의 출판사별 점유율에서 천재교육이 주문부수 551만부, 시장점유율 26.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비상교육과 두산동아가 각각 주문부수 335만부(16.3%), 226만부(11.0%)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교육적 차이는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교과서를 고를 안목이 있는 교사에게 배울 행운을 가진 아이들만이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학교는 좀 더 어려운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약 천재출판사가 초중고 교과서의 우점종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많은 교사들이 대부분의 학교가 보는 천재교과서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최고의 교과서로 인정된 어느 출판사의 책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채택된다면 이 나라의 교과서가 한 출판사의 이념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 어느 출판사의 책을 배우고 그 출판사의 문제집을 풀고 그 출판사의 이러닝을 통해 공부를 해나가면 학교는 출판사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은 없는가? 자유경쟁을 통한 출판사 간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승자만 남지 않을까? 삼성이 출판사를 차린다면 과연 그것을 이겨낼 출판사가 있는가? 엄청난 재력을 가진 출판사가 좋은 교과서를 아주 저가에 공급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한 출판사의 책으로 배우게 된다면 국정과 무엇이 다른가?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과목을 서로 다른 출판사의 것으로 배울 때 계열성과 중복성의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검정교과서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과연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가?¹²⁾ 검정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된다면 검정조직이 갖는 권한은 과연 옳은 것인가? 출판사가 검정 조직과 맺게 될 관계는 과연 건전할 것인가? 각 출판사는 교과서에 대한 최고의 학자와 교사들을 섭외할 것이고, 교과서 집필진을 모두 빼고 나면 검정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검정조직을 운영할 막대한 예산을 현재의 국정 교과서 개발에 투자한다면 민간개발보다 더 우수한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제교사를 없애지 않고 다양한 교과서가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상당수 떠오르는 검정 추진의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 없이 검정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발표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검정제도 추진에 대한 초등학교사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¹³⁾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비교 설

12) 김재춘(2009),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O 2009-5,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34쪽

“중학교 1학년 수학(익힘책 포함) 교과서를 검정 심사하는데 들어간 인력을 일수로 기준으로 연 인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연구위원 56명 × 20일 = 1,120일, 검정위원 34명 × 26일 = 884일, 연 인원수는 일 수 기준으로 총 2,004명임.”

13) 초등학교사들의 특성상 <그저 그림>은 부정적 표현이며, <약간 나아짐>은 거의 나아진 것이

문 결과는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국정수준 또는 그 아래라는 것이다. 검정 도서로 전환된 후 나아진 점은 대부분 외형체제(편집과 디자인)이다. 출판사 중심의 검정교과서가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핵심은 내용이다. 잘못된 내용이 잘 꾸며져 선정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과서 선정 및 채택,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 및 제공,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 및 내용간의 불일치, 검정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양과 수준의 증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정 도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크다. 그렇다면 초등교사들의 의식이 구태의연하고 보수적이어서 검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일까? 초등교사는 전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왔고 매일 다양한 과목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인식과 안목을 갖춘 집단이다.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초등에서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 변화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국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검정 심사에 들어가는 돈을 국정의 편집과 디자인 개선 등의 채원으로 사용한다면 국정의 단점을 줄이고 검정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꼭 검정으로 간다면 국정을 유지하고 검정 제도를 함께 병행 운영하며, 학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교과서 구분고시 시안에 대한 의견

가. 교과서

초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중에 수업시수와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한다는 내용이 있다. 체육, 음악, 미술,

없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이 표현은 여러 권의 검정 도서 중 제일 낫다고 골라서 사용해 본 것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실과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양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도덕 교과서는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음악은 악보 하나를 가지고 한 시간 수업이 가능하고, 미술은 한 두 장의 예시를 통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이 한 시간 안에 다루어야 할 내용은 적지 않다. 알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와 판단자료와 실천에 관계된 내용들은 절대로 두서너 장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도덕이란 절대로 어느 학년에 몰아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도덕은 단순히 기능을 익히거나 지식을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는 전 과정을 통해 부단히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야 하는 과목이다. 도덕은 삶 자체이다. 그런데 교과 특성상 집중이수제라는 부적절한 틀 안에서 3~4학년용 두 권, 5~6학년용 두 권을 만들어 어느 학년에 몰아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3학년은 도덕을 가르치고 4학년에서는 도덕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같다. 선생님을 폭행하고 수업 시간을 동영상 촬영하는 학생들을 묵묵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아이들에게 도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유일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처럼 한 학기에 한권씩의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져서 매 학년 매학기 도덕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목의 경중을 단순히 배당 시간수로만 계산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나. 지도서

초등학교의 경우 지도서는 꼭 필요하다. 더구나 풍부한 자료와 교과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지도서가 더욱 요구된다. 초등교사가 일 년 동안 해야 할 수업 시수는 약 1000시간정도이다. 100시간 분량의 모두 다른 지도안 1000개를 짜야 하는 것이다.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한 개의 지도안으로 5반을 수업한다고 하면 실제로 지도안 수는 초등의 1/5 수준이다. 더구나 중등교사는 같은 과목을 매년 반복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러나 초등교사는 매년 학년이 바뀐다. 이것은 수업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초등교사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과목을 가르치는 중등보다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에 있어

교사용 지도서는 꼭 필요한 자료이다. 보다 자세하고 풍부한 자료로 가득한 지도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기별로 제공되던 지도서를 학년 당 한권으로 제한할 경우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질 수 없고, 그것은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다. 보조교과서

보조교과서의 필요성은 교과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시안을 보면 기존의 보조교과서가 있던 도덕(생활의 길잡이),수학(수학익힘책), 과학(실험관찰)에서 보조 교과서가 없던 국어가 국어활동이라는 보조 교과서가 생긴 이유와 도덕의 보조교과서가 사라지 이유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특히 도덕의 생활의 길잡이는 초중고 학교의 수 백 종의 교과서들 중에서 도덕적 감동과 깊은 사유, 올바른 판단과 실천 등의 이야기 거리를 담은 유일한 책이다. 끝없는 경쟁의 나날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삶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할 거리를 담은 책 한권 주지 못하고 없애버린다면 그것을 없앤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지도서 보조자료(CD)

멀티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 그리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인 아이들과 함께 좀 더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위해 멀티미디어와 각종 자료가 담겨진 CD 제작은 모든 교과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안에 나온 것을 보면 즐거운생활, 국어, 사회, 과학, 음악, 영어 과목뿐이다. 왜 이 과목들만 보조자료가 제공되는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도덕적 감동을 주어야 하는 도덕과 수업에 있어서도 동영상 자료 등을 담아 제공할 수 있는 CD자료는 아주 중요하다. 보조 자료의 유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알고 싶다.

자유로운 경쟁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쟁

에 뛰어난 자의 최고의 관심은 이익이다. 검정 제도는 교과서간의 경쟁이 아니다. 출판사 간의 경쟁이다. 출판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예쁘고 화려하고 눈에 띄도록 포장할 것이며,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원하는 모습에 교과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손질할 것이다. 그러나 의(義)를 위해 이(利)를 포기하는 출판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정을 통과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최고 판매량을 가진 출판사만 살아남아 독점과 과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출판사는 교과서의 신이 될 것이다. 수많은 교과서가 출판되어도 교사는 다른 수많은 학교에서 보는 그 교과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의성은 교과서가 다양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튼튼한 기본기를 수많은 시간 연마한 후에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창의성이 생기는 것이다. 기본은 단순하다. 그러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기본만 들어있는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수많은 초등 교사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수많은 다른 방식의 수업을 해낸다. 그 속에 가장 위대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씨앗이 숨어있다. 또한 동일한 교과서로 가르치는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그러한 깨달음들을 공유하는 수많은 통로를 가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단순하나 그것에 대한 연구들은 끝없이 다양하다. 그 다양성을 옥죄고 일순간에 제거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일제고사이다. 국정의 단점만 보고 검정의 피상적 장점만을 근거로 교과서 제도를 바꾼다면 발묘조장(拔苗助長)의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검정의 단점만을 부각해 토론에 임한 것은 그 모든 정책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검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당분간 국정을 유지하며 서류나 논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완벽한 검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 검정 제도를 실시해도 절대 늦지 않다.

중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접근과 고찰

최 은 정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관과 성장 동력을 의도적 또는 잠재적으로 전수한다고 할 때, 교과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시대의 발전과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내적, 외적 변모는 물론 발행 시스템의 전환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학교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연구의 맥락에 대해

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성 교육면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는 목적과 의도는 매우 바람직
- 단,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행 초기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 등의 여러 교육과정과의 혼재, 교과별 의견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학교는 매우 힘든 상황
-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자율, 창의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평가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 반쪽의 성공 : 실질적으로 창의성을 평가하고 독려하며,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 마련 긴요함

- 한편, 창의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단에 선 수많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절실 : 교사들에 대한 효율적 연수, 잡무 및 형식적 업무 경감으로 시간 여유 확보, 대도시의 학급당 인원수 감축, 상호 정보 공유 및 파급 시스템 마련,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성적 위주의 현 학교와 경쟁 위주인 사회의 제도 및 가치관 개선 등

나.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및 자율화면

-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교과서 정책의 방향 재설정 필요
- 시대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변화를 수용하고 좀더 자유로운 교재를 통해 창의·인성 교육의 발판 마련 요구.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량이 성장
- 학교 밖 시중의 시의적절하고 매력적인 일반서적이거나 자료, 교사들의 연구 집단에서 나오는 각종 훌륭한 자료들을 공식적 교재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희망
- 단, 역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특수상황 하에서 별도로 고려

2.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가. 중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의 인정도서화 방안 : 찬성

-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도서화 가능
- 국어, 사회, 도덕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걱정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 거의 미발생

- 시민의식 성숙, 교과서 집필자의 자정력, 교과서 선택 시 교사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 다양한 수용자(학생, 학부모)의 모니터 등으로 우려 불식 가능
- 오히려 다각도의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교과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 세계관 형성, 사회적 윤리적 몰레랑스 구현에 도움
- 단, 검정으로 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느슨한 검정제도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점진적 개선 방안
- 단, 역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특수상황 하에서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가치관과 사실을 강요할 여지가 있어 검정 교과서로 객관적인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나. 교사용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 찬성

- 교과서가 심의 있는(또는 없는) 인정도서이거나 자유개발 교재가 된다면, 교사용 지도서는 그보다 한 단계 제약이 덜 해될 것 : 지도서는 교과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 지도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자료나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 심의 업무를 경감함과 동시에 교과서에 더 집중하여 인정도서의 질 제고
- 교사용지도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도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당연한 설명 위주여서 오히려 활용도 낮음
-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답과 풀이, 애매한 내용의 지도방향, 참고 및 추천 자료 목록,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글, 그림, 전자자료, 평가문항 등 포함) 등 요긴한 내용만을 담아 효율적이고 교사가 애지중지하는 지도서가 되길 희망
- 지도서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담아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방안

다. 학년군별 교과서 권(분책)수 구분고시 : 반대

- 교과서 권(분책) 수는 해당 교과서의 편집 특성, 학습 내용 구성에 따라 개발자/출판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한 교과에 다양한 통권, 분권 책이 출판되어야 각 학교도 당해 교육과정 특성,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통권 또는 분책 교과서에 최소 필요 수업시수, 총권수 등 표기하면 현장의 혼란 방지 가능
- 지도서의 권(분책)수도 자유롭게 하여 선택의 폭을 넓힘
- 교과서의 표지를 좀더 견고하게 제작 희망

라. 기타 사항에 대한 견해

1) 교과별 다교과서(보조교과서) 개발 방안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등에서 보조교과서 개발 찬성
- 국어는 중학교와의 연계 및 친숙도 높이기 위해 '생활국어'(국어 교과서의 특성상 생활과의 밀접도도 높음)로, 수학은 '수학익힘책'으로, 과학은 '실험관찰'로 하는 것이 적절.
- 참고로, 현재 국어, 수학, 영어의 지문만 그대로 실려 있는 e-교과서는 무용지물 :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하거나 또는 다양한 참고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을 수록한 e-교과서라야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

2) 인정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검정의 인정으로의 전환에 즈음하여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 필요
- 현행 검정 심사와 인정 심사 사이의 간극 조절하여 접합점 마련
- 시도 교육청에 교과서 업무 전담 부서 마련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서 인정 심사 및 관리, 모니터, 교과서 관련 학교 업무 및 법적(저작권 등) 지원 체제 구축 필요

- 현행 검정과 인정 심사 체제 및 개선 방향 의견

검정 심사	인정 심사	인정 심사 개선 방향 의견
1) 출판사가 심사 출원 가능	1) 학교장이 심사 출원	1) 출판사 또는 학교장이 심사 출원(출판사에서 출원하여 인정 심사를 통과한 여러 책 중 학교장이 선택할 수도 있도록)
2) 국가 수준에서 1차례 심사 출원 가능(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후 재심사 가능)	2) 16개 시도 교육청에 심사 출원 가능(총 16차례 가능; 1곳에서만 합격해도 전국 사용)	2) 16개 시도 교육청에 심사 출원 가능(총 16차례 출원 가능; 세 곳 이상에서 합격해야 전국 사용 가능/ 세 곳 미만일 경우 합격한 시도에서만 사용)
3) 사용 12개월 이전 검정 출원(교과서 집필 기간 상대적 짧음)	3) 사용 6(3)개월 이전 인정 출원(교과서 집필 기간 상대적 김)	3) 사용 6개월 이전 인정 출원(인정 심사량의 증가 및 기준 강화를 고려)
4) 심사 절차가 엄격함(합격율 50~70%)	4) 심사 절차가 느슨함(합격율 거의 100%)	4) 심사 절차 약간 강화(합격율 80~90% 유지, 단 수정해울 경우 재심 통과 가능)
5) 가격을 국가가 사정하여 결정	5) 발행사가 가격 자율 결정	5) 시도 교육청에서 가격 상한선 미리 고지(어느 정도 가격에 맞는 교과서 제작 유도, 가격 대비 내용 알찬 교과서 선택될 것)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매우 많음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거의 없음	6)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전담 부서 마련 후 상시 모니터링으로 수정 사항 권고(교사, 학생 의견도 수렴하여 전달)

3. 기타 향후 과제들

- 가. 시도 교육청의 인정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성 및 인력풀 확보로 인정교과서의 질 제고 및 지속적인 관리
- 나. 인정도서 선택 시 학교현장의 업무는 간소화하되 채택을 둘러싼 공정, 청렴한 업무 수행 모니터링
- 다. 교과서 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낙후 지역 지원 대책, 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선택 교과서의 격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장치 마련
- 라. 창의성을 강조한 교과서, 서책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교과서, 참고서 없이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세련되고 흥미로운 교과서 개발

- 마. 교육수요자와 현장교사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되,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인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 오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과 필터 마련
- 바. 창의성을 강조한 교과서의 내용과 각종 평가, 입시의 내용이 이질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 마련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임 흥 수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교사]

-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정교과서의 검·인정으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획일적 국가통제라는 구시대적 인식의 전환과 교육의 효율성 저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면 타당한 정책임
- 그러나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자율성과 함께 표준화는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이며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 ; 교육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했던 유럽과 선진국가들이 표준적인 교육과정과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음.
-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인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특정 교과의 교과적 특성과 시행시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제도와 인정제도에 대한 교과 전반적 관점에 의한 의견
- 현장의 교사들에게 여러 단계의 검정절차를 통과한 교과서는 신뢰감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함

- 여러 단계와 여러 영역에서의 검정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여러 내용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들이 발견되는 현실에서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할 경우 교과서 질의 담보 곤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에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종류가 많아 (고등학교 사회의 경우 9종)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임. 만일 교과서가 인정으로 전환될 경우 인정을 통과하는 교과서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되어 학교에서 교과서 선택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자칫 인정도서에 대한 선정의 업무가 과중되어 졸속적인 교과서 채택이 벌어질 가능성 있고,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음.
- 과학교과서의 경우 실제로 인정 교과서별로 내용의 넓이와 깊이가 천차만별이고 내용의 수준이 높아져 내용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많음

□ 사회(역사포함), 도덕의 인정도서 방안에 대한 의견

-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편향성의 논란은 역사교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 교과서에서도 큰 논란거리임. 교육과정의 개정,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교과서 서술의 각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문제제기와 요구가 많았음.
- 따라서 문학작품 선정,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과 요구, 이념관련 내용과 관련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과목은 현행대로 검정 체제가 바람직함.

- 사회와 도덕의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국정, 중학교는 검정, 고등학교는 인정으로 통일성 없이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와 도덕과목의 특성상 모두 검정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최근 사회교과에서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검정에서 탈락하는 교과서가 발생하는 등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검정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교과서 집필자의 셀프 스크린 장치 작동을 집필자의 양심과 의지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검정절차와 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과장치가 함께 작동해야함.

□ 교사용지도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와 함께 상당한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교사용 지도서는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채택된 교과서의 출판사에서 편찬한 지도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검정으로, 인정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

□ 국·검·인정의 개념과 위계성 재검토에 대한 의견

- 수요가 적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개발을 보조/지원하여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도서(전문교과서)는 국정으로 명명하지 않고

인정도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은 국정, 검정, 인정 도서의 위계적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교과서 발행제도와 그에 따른 교과서의 선정·사용에 대한 규정이므로 굳이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수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정·검정·인정 교과서가 혼재되어 발행됨으로써 선정·사용에 있어 각 교과서간 충돌을 빚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봄.

□ 인정심사 체제의 개선에 대한 의견

- 현행과 같은 인정심사체제는 심사규정과 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합격률이 100%가 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라고 평가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고등학교의 일반교과가 인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정심사과정이 교과서의 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방향 탐색에 대한 고찰

김 풍 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연구의 맥락

- 인정도서의 확대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에서 검정 또는 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 국가나 발행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도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교육시장의 교육 보조자료 등에도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그림 등이 제시되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은 인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습 보조 자료로 학생이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2.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주요 쟁점

- 초등학교에서 검·인정도서 확대 방안 : 초등에 국정도서로 있는 교과를 수요자의 선택권과 많은 교과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국정, 검정, 인정도서 모두가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되는 만큼, 국정이나 검정이 인정도서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수요가 많은 과목의 인정도서인 경우 발행사들이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확률이 높으므로, 국정에서 인정, 검정에서 인정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 있음

-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 도덕의 인정도서화 방안 : 교과서 집필자들이 현직 교수, 교사 등 교과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국정이나 검정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집필자의 가치관이나 검증되지 않은 이론 및 학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심사 강화를 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따른 예산지원과 심사를 강화하면 인정도서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봄
- 국가차원에서 심의 유/무 인정도서 구분의 폐지 방안 : 인정도서를 심의있는 인정도서와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목록에 심의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무성으로 인해 심의있는과 심의없는을 구분하여 행정처리하기 어려움
- 교사용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용 보조자료이므로 초·중등 모두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
- 학년군별 교과서 군(분책)수 구분과 관련된 문제 : 과목별로 권수가 다를 경우 아직 교과서의 다양성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논의 과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기타 사항 : 인정심사 기간은 현재 6개월 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현재 시도의 인정도서 심사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해서 개발한 교과서를 심사하기 때문에 탈락보다는 수정보완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있음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고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 제2외국어, 전문교과 등 수요가 적은 과목의 인정도서는 발행사에서 개발을 기피하고, 특히 교과서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개발하도록 해야 함

4.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인정 체제 개선 방안

- 인정 신청 자격 완화 : 인정도서는 취지가 학교의 교육과정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교과용도서인 만큼 발행사에서 출원한다면 의미가 훼손된다고 봄. 또한 현재의 인정도서 심사비는 상기 이유로 대부분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심사비를 청구할 경우 학교 요청과 발행사 요청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 단, 지도서는 인정도서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심사채택공급일정조정 : 인정도서 심사가 하반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심사 신청하면 심사가 이루어짐.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심사를 2차까지 실시하는데 충분히 수정보완하기 어려움
- 인정 도서의 선정 절차의 명문화 방안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 14조③항에 제시되어 있음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에 대하여

윤 광 원

[출판사 미래엔컬처 상무]

1. 시작하며

광복 이후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정책은 교수 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10여 차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대 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물론 집합된 자료를 새로 만들고 첨삭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정책이나 교육과정 정책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의 변화는 그간 행해져 온 내·외부 환경에 의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있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설령,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연구자나 정책 수립하는 기관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을 잘 고려했으면 하는 우문을 던져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위한 공청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자는 김재춘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되, 교과서 발행사의 입장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2. 발제자 주장에 대한 검토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맥락에 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 문제 제기 : 발제자는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시대 흐름, 즉 창의성 교육과 교과서 제도 선진화 등을 조건으로 하여 본 연구인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에 대한 맥락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 ① 백년지대계인 인간의 참교육을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시대 흐름’으로 주된 맥락을 잡은 것은 진실과는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② 주된 맥락만 강조하다 보니 광복 이후 10여 차례 수정·보완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정신이 배제된 느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2)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연구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제 제기 : 심층 면접 대상과 면접 대상의 신뢰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① 전문가 협의회에서 검토한 문제와 전문가 협의회 협의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층 면접 대상자 수가 총 12명인 것은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② 초등학교 5, 6학년에 도입된 검정 교과서에 대한 반응 조사를 위하여 표집 대상을 초등 교사로 제안하여 설문을 실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 초등학교에서 검·인정 도서 확대 방안에 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 문제 제기 : 주요 쟁점에는 항상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므로 결론 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① 정부에서 선행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꾸밈 자료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의 인정 도서와 방안에 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 문제 제기 : 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다중성 또는 이념 논쟁의 거리는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 ① “한국근현대사”, “국사” 교과서 등이 연일 보도 자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② 오히려 중지를 모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2~3종의 국정도서로의 전환을 제안해 봅니다. 즉,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국정도서’에 대한 설명에만 얽매어 국정도서는 한 종류의 교과서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편찬기관 공모를 통한 복수의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검·인정 교과서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도 갖게 될 것입니다.

(4)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기본 원칙에 대하여

■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합니다.
- 문제 제기 :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고시는 고려해야 합니다.

- ① 교과서는 국가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 축적된 자료만으로도 훌륭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 활용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 ②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는 구분고시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오히려 모든 다양성과 창의성은 교사의 연수, 창의, 장학 등에 있다고 봄.).

■ 특성화고 및 전문교과에 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반대합니다.
- 문제 제기 : 현행 교부금으로 발행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계 인정도서의 내용의 허술함과 조잡함 등이 그 예입니다.
 - ① 현재 정부는 마이스터고(전문계) 육성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 보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일부 교사의 모임으로 교과서가 제작이 줄 속으로 만들어지고 되고 있음.).
 - ② 인정도서 비율이나 책수 늘리는 방편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교과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인정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 제안에 대하여 :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문제 제기 : 인정제가 확대 실시되면 교과서가 다종화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정, 검정 축소와 인정 도서 확대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 직후(2007. 2~2009. 12) 교육과정 연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초등 교과서를 비롯하여 중·고등 전 교과서를 검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제자의 시안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2번 마항'(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의 설문 결과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가 없던 때는 검정화를 주장했지만, 초등학교에 검정도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토론자는 국·검·인정제도의 장단점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교육 목적에 꼭 들어맞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를 모이게 한 자리에서 결말로 얘기한 사항들이 점차 현실로 표출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정작 현실이 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첫째, 현행 인정도서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가? (연구·집필 → 편집 → 생산 → 공급과정)
- 둘째, 내용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쟁점화하여 인정도서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 셋째, 진정 교육 수요자(교사,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넷째, 인정 도서 확대 정책에서 교과서 전문 발행사 육성 정책이 반영되고, 경영 단위가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는가?(만약, 경영 단위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겠는가?)
- 다섯째, 검정도서도 혼란스러운 현행 교과서 시장에서 인정도서 시장을 예측해 보았는가? 또, 교과서 다양화보다는 다종화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여섯째,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와 본 연구의 시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결론 및 제언

교과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 고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제도는 그만큼 여러 속성이 변인과 밀접한 상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국정도서 → 검정화, 검정도서 → 인정화 등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젠 스마트 시대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른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는 이미 지난 얘기일 따름이며,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르다는 정답도 없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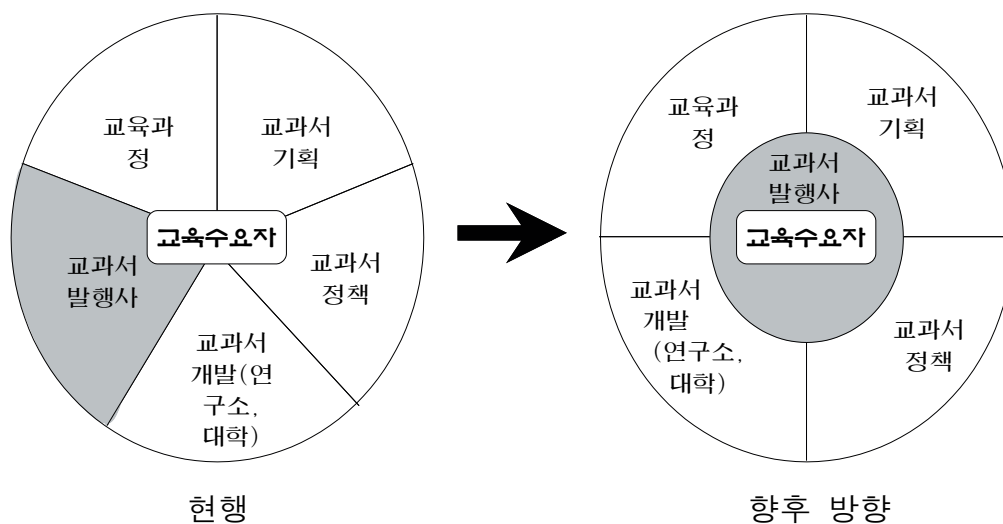
이제는 양질의 교과서를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정제가 맞는 교과서도 있고, 검정제가 맞는 교과서도 있으며, 인정제가 맞는 교과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는 교과목 특성이 잘 반영된 교과서는 만들어 보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여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많지만 “그 나물에 그 밥”, “붕어빵식 교과서” 등이 난무한다면 이제는 퇴출도 시키고, 교과서 집필자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출판사 육성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경영 단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철저한 이익 배분도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좋은 교과서를 산출하는 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정책 연구 없이 인정도서화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면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계가 혼란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현 출판사가 전과목 교과를 모조리 발행하여(그것도 모자라 한 교과목에 2~4종씩 개발하는 실정임.) 전문 출판사가 되겠다는

야심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개선 정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대비하여 토론자가 생각하는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 토론

-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정 순 영
(서강대학교 교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시안)을 검토하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온 연구진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어차피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은 없으며 교육정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리고 단계적으로 변화 또는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이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을 검토 하였다.

이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점인정 교과서의 확대’라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얻어 낸 여러 가지 장점 방안들 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자의 의견을 피력하려 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래에 제시된 의견은 검토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안의 제시는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항상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 보기에 연구진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인정제의 확대 도입이라는 것에 대하여 반가운 마음으로 동의한다. 전 세계적 추세인 정부의 간섭 및 규제완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제 교과서도 정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바꾸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수학 교과에 있어서 인정제의 확대 도입은 창의적 인재 양성, 수학 경쟁력 향상, 미래형 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또한 수학 교과는 학습자 개인의 능력차가 뚜렷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이 요구되는 교과로서 이 제도는 다양한 수학 수요자들로 부터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이 가능한 체제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수학 교과에 있어서 인정제의 확대 도입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교과서의 복수화 및 다양성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대되는 측면은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 내용과 소재의 다양성, 표현과 기술의 다양성 등일 것이다. 또한 인쇄, 지질, 제본, 크기, 부속 자료 등의 품질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고 소장하고 싶은 교과서의 출현도 기대 하게 한다. 또한 매년 논란이 많았던 검정 심사 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 등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연구의 전반적 내용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정제 확대 도입의 취지로 ‘창의성 교육 강조와 학년군제에 적합한 교과서 방향 탐색’을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기본 원칙과 방향의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의 제시나 예상되는 문제점의 제시 및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창의성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인정제 교과서의 모습과 학교 현장에서의 인정제 교과서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증제 교과서의 품질 유지와 초-중-고 급간 계열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학년군제를 전제로 하여 인정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학 교과서의 특성 상 학년군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수학교육계의 보편적 견해를 생각하면 인정제 확대 도입은 좀 더 많은 사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안 초등은 국정-검정의 체제 유지, 중등은 인정제의 대폭 확대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등학교에서 국어, 사회(역사), 도덕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의 인증제 확대’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 전에 연구진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란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 제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의구심이 간다. 일부 제시 된 자

료에 의하면 연구진은 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이 방안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설문 조사나 심층 면담에 의한 의견 도출 방법 보다는 학문적 연구 성과나 타당성을 입증 하는 자료가 근거가 되어야 하고 그 후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등학교의 경우는 설문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등학교의 경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처럼 생각된다.

이제 인정제 확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수학 교과를 포함하여 각 교과별로 교과 내용 20% 경감을 전제로 하여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수학과 개정안의 초안을 살펴보면 인정제 교과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검정 교과서 체제가 계속된다는 입장으로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인정제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형식, 내용 진술 방법, 제한 사항 등이 달라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증제를 통한 가장 큰 장점은 교과서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다양성의 신장은 곧 복잡성의 증대라는 불편함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그 이상적 철학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입시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 앞에 항상 왜곡되고 비판의 대상이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정제 교과서 체제 속에서의 평가와 입시는 학부모나 학교 현장의 불만을 가중 시킬 여지는 충분하다. 개인차가 큰 수학 교과의 특성 상 공통 내용의 추출 문제, 입시에만 유리한 교과서의 등장, 출제의 수준과 범위 등 수많은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부터 입시를 위해서는 모든 교과서를 공부하여야 한다는 왜곡된 의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량 증가와 사교육 필요성이 증대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와 입시 문제를 벗어나서도 내용의 위계가 뚜렷한 수학 교과

의 경우 학교 간 학습 내용의 차이의 누적 가능성, 초중고 학교 급간 연계성을 유지 못할 가능성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내용의 위계성, 계열성,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연결 트랙'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여 교과서 선택에 참고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학 교과에 있어 교과서의 외형적 분책 방안으로 대체적으로 초등은 학기 당 1권, 중등은 학년 당 1권을 제안하고 있고 이는 비교적 합리적 제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성을 제공하자는 의도라면 교과서의 무게나 분량 또는 제본 형태에 맞추어 저자/출판사의 재량에 맡기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e-교과서 문제는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추후 고시 예정이라고 언급 하고 있다. 수학교과와 경우 e-교과서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교수자가 IT 수단을 통해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대화가 가능한 환경 즉 smart interface 가 제공 되는 환경의 전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onilne 학습 프로그램이 언어 관련 프로그램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e-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로는 종이교과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

이제 인정 심사 제도와 교과서의 품질 관리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정 도서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제도를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인정 교과서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교과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보다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인정 방안의 제안 및 '표준화'가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의 자율성, 독창성, 수요자 요구 수용 가능성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부 인정교과서의 부실(내용의 부실, 외적 체제의 부실: 외형, 인쇄, 분량, 가격 등) 과 인정 심사 제도의 부실(책임성, 인정 기준, 인정 절차 등)을 거울삼아 타당한 표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부과되어야 하며 수시로 심사-수정/보완-재심사의 과정을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과서 간 내용, 수준과 양의 차이를 얼마나 허용할 지에 대한 교과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수학교과
의 경우는 강화된 인정 심사 제도를 제안하며 이후 품질 안정화 수준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직접적 개발 당사자인 저자 및 출판사에 대
한 영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교과서 인정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교과
서 출판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는 기존 검정 교
과서 체제 속에서는 거대 자본을 투기적 성격으로 투자하여 독점적 지
위를 누려온 반면 인정제 교과서의 경우는 소액의 개발비로 부실한 교
과서를 개발해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주요 과목의 교과서가 인
정제로 전환되면서 인정제 교과서에 대한 개발 투자가 증가할 것임을
분명하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비의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문제, 시장
논리에 의한 거대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 경제성이 적은 일부 교과목의
출판 기피 현상, 출판사의 부실에 의 교과서 품질 개선 노력 회피 및
공급 중단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 인정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자 및 출판사의
자유/자율성을 확대하여 전문 출판사, 전문 저자 등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말 ‘소장하고 싶은 교과서’의 출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정제 교과서의 다양성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단일 교재로
의 선택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 동안 이루어 온 우리나라의 비약적 발전이 결국 우수한 인재의
양성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제 우리나라의 교육도 외국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의
교과서 인정제 확대를 계기로 바람직한 교과서의 출현, 이를 통한 창의
적 인재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교육이 세계인의 관심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